hyunbulnews.com

현대불교

우주가 내 집이요, 나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는 집의 평수를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제840호 2011년 6월 15일 수요일 (음력 5월 14일 · 불기 2555년 · 주간)

불사심의기구 절실

정부 규제 완화는 불교계의 자정능력 시험대

전통사찰과 관련된 각종 규제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자율정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6월 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대지조성 규모를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대지면적의 30% 범위(최대 1만㎡ 미만)에서 추가로 대지조성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전통사찰 등의 건폐율을 3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을 5월 25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불사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사찰의 경우 법적 규제로 화장실조차 신축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조치에 따른 내적 정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사찰들이 무분별한 대형 불사에 나설 경우 생태 및 수행환경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규제 완화로 불교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그 속에서 불교 스스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휴 스님은 "목적에 맞는 불사를 해야 한다. 불사심의위원회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불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도 난개발과 불사 난립을 우려했다.

법응 스님은 "사찰들의 외형적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사심의위원회 등 종단의 내부 시스템 확립과 스님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규제완화와 더불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불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불교 각 계에서 제기돼 온 사안이다. 2007년 교단자정센터가 마련한 '건축불사 관리법 제정 토론회' 에서 김형남 변호사는 불사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각 사찰의 불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단도 3월 23일 5대결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종단실천과제로 불사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총무원이 진정으로 자성과 쇄신의 결사를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5대 결사의 기초가 될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재정 투명성 강화방안, 공정한 인사 및 사법제도 개혁방안, 종단의 민주화 개선방안, 건전한 승가공동체 회복 방안 등을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 추진방안을 촉구했다.

불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규제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종단마저 규제할 경우 발생할 사찰들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구성 필요성만 제기돼 왔다. 대신 종단은 성보보존위원회를 통해 불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무부가 이 의견을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자 불교계 자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자승 스님도 대정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종단의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심의에 착수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앞서간 발자국을 따라 한국 근현대 선지식들이 두루 거쳐 간 영천 은해사 운부암. 6월 6일, 절 앞의 연못 속에서 목탁소리가 들려오고, 하안거 중인 선방 운부난야에서는 죽비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선방을 벗어난 스님이 앞서간 선지식들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돌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다시 죽비 소리가 들려왔다. **박재완 기자**

MB "사회적기업, 종교단체 적합"

이명박 대통령이 6월 9일 서울 수유동 사회적 기업인 한빛예술단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기업은 봉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는 대기업 보다 종교 단체가 적합하다"며 종교계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며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을 가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불교계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함께 이재원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부사장은 불교계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역사 · 자연환경 · 보건 · 음식 · 특화작물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관련기사 6면

봉은사, 역사공원 된다

외국인 위한 영빈관 등 신축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에 외국인사의 사찰 체험 공간이 들어서는 등 봉은사가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바뀐다.

서울 강남구는 도시계획시설 조성 계획안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계획안이 결정되면, 그동안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증 · 개축이 불가했던 봉은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불법건축물이었던 화장실, 안내소 등 부대시설도 도시계획상 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봉은사는 2층 규모의 영빈관을 비롯해 일주문과 해탈문, 천왕문을 지나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社告 | 자비의 미얀마 돕기 DREAM 꿈

인구의 89%가 불자인 나라, 미얀마 불자의 희망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시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지원 ■ 식수가 부족한 마을에 공동 우물 건설
■ 신쀼 출가의식 지원 ■ 불자 어린이 학용품 지원 ■ 전달 가능한 물품 지원

◐ 후원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 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얀마문화원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연간캠페인

자승 스님, 청와대 찾았다

취임 후 세번째, 대정부 정상화 이후 첫 만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대정부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담화문 발표 1주일 만에 청와대를 방문한다. (6월 9일 현재)

조계종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7대 종교계 대표지도자 초청 오찬에 종지협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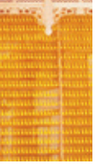
자승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교지도자의 평양방문 허용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총무원장스님의 이번 청와대 방문은 총무원장 취임 후 3번째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조계종이 지난해 12월 정부 · 여당의 천박한 전통문화인식을 비판하며 정부 · 여당과 소통의 단절을 선언한지 6개월, 이를 정상화한 후 첫 만남이다. 때문에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다.

조계종 사회부 공승관 팀장은 "종지협에서 매년 대통령과 면담을 해왔다"며 "자승 스님이 종지협 회장이 된 후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자 종지협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다. 회원종단의 요청이 있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년 전 MB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청와대의 초청을 거부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 · 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6개월 만에… 대정부 관계 정상화

자승 스님 담화문 발표, "결사전담기구 만들겠다"

조계종의 정부 인사의 사찰출입 제한, 국고지원 수령 · 집행 보류 등 대정부 조치가 6개월 만에 모두 해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담화문에서 대정부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성과 쇄신 결사에 집중하겠다"며 "소통 중단과 (정부 · 여당 인사의) 출입 제한 조치를 해소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 관련 예산 등도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모든 종도와 전국 사찰의 주지스님들은 자존의 정신을 엄



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승가가 중심이 돼 결사의 정신을 실현하고 국민과 사회에 회향하겠다"며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 이어,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정부 · 여당 관계자의 만남은 사찰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겠다. 국고 예산 수령 및 집행에 대해서는 종단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대정부 관계 정상화 이후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사찰법, 문화재보호법 등 불교계 관련 규제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전담 · 집중 추진할 전담 기구를 6월 중 발족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840호 CONTENTS

특별담화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담화문 전문 2



현장속으로
동련 어린이지도자 연수 5



특집 · 염불신앙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 정토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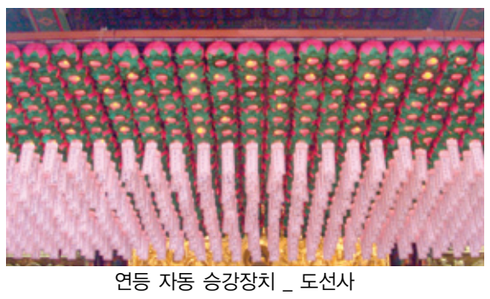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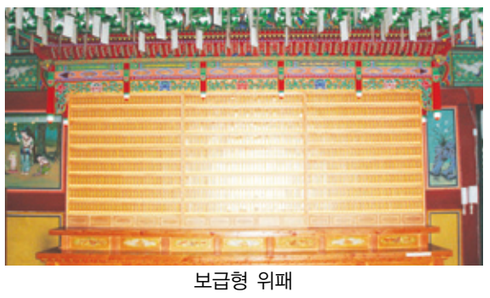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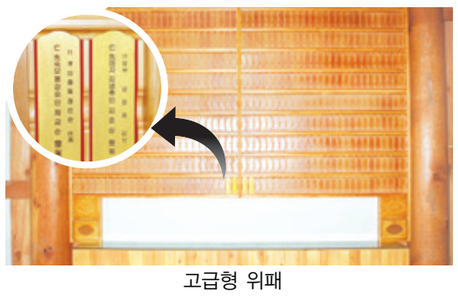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

6개월 동안 뭐했나…

총무원장스님 담화문 발표에 불교계 실망감 일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대정부 담화문이 발표된 뒤 불교계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평가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담화문에서 자성과 쇄신을 표방하며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한국 불교의 역할을 다하겠다던 6개월 전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6월 8일 각 계 인사 4인에게 이번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은 5대결사의 시작부터 담화문 발표까지의 모든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퇴휴 스님은 "예산은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당히 받아야했다. 처음부터 접근법이 잘못됐다. 정부 인사를 만나지 않고, 예산을 거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불교자주화와 민족문화수호를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불교가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보존하고 계승하는 노력을 통해 예산이 종교로서 불교가 아닌 전통문화로서의 불교에 지원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국 前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는 "5년이건 10년이건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문화를 지키겠다더니 6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결국 예산 때문에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前 특보는 또 규제완화 등 최근 정부가 보인 정책들은 수년전부터 종단이 요구해온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입장을 전환한 것은 종단이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민족문화수호와 5대결사를 한다고 할 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하는 실망감을 안겨줬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자세를 유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또 "정치권의 이 정도 제스처에 입장을 바꾼다면 종단이 스스로를 격하시킨 것이다. 자성과 쇄신을 외쳤던 불교계의 요구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불교와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은 대정부 관계 변화는 옳지만 5대결사가 무엇을 남겼는지 내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정부 관계는 어른의 입장에서 잘못한 점은 야단쳐야 한다. 그런데 5대결사는 아무래도 허전하다. 문구로만 추진하니 내용이 없다. 핵심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추진해야 하는데 다른 기구로 넘기려는 모습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법응 스님은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자성과 쇄신으로는 어렵다. 제대로 된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종단이 현재 상황을 잘 극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6월 7일 담화문에 대해 교단자정센터가 '불교자주화, 구두선에 그쳐버렸는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는 "담화문에서 5대결사의 시발범인 국고지원금에 대한 어떠한 투명한 관리대책이나 자립을 뒷받침할 만한 의지와 실천계획, 자성과 자정의 모습을 담은 구체적 실천강령도 제시하지 못했다. 구호만을 외치면서 문제의 핵심만을 슬그머니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지금까지의 한국불교 결사는 아래로부터의 자각·자성으로부터 시작돼 큰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사는 위로부터의 결사이므로 더더욱 이 결사를 시작한 종단 지도자들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으로 시작됐어야 했다"며 "국민적 공감, 울림 없이 전담추진기구를 만든다고 결사가 성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총무원이 이번 결사를 대정부 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 총무원의 실책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면 숭고한 결사 정신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한국불교의 앞날을 망친 훼종행위"라고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지금이라도 총무원은 5대결사의 기초가 될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재정투명성 강화방안, 공정한 인사 및 사법제도 개혁방안, 종단의 민주화 개선방안, 건전한 승가공동체 회복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실천계획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박기범 기자

박구원 만평



화쟁위원회, 신규 위원 발탁

박광서 교수·운달 스님 7일 위촉돼


박광서 교수


운달 스님

박광서 서강대 교수와 운달 스님이 조계종 화쟁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신규 위원 위촉식을 6월 7일 열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운달 스님은 건강을 이유로 위촉식에는 불참했다.

자승 스님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종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화쟁위원으로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화쟁위원으로 위촉된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사회갈등과 종교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화쟁위에서의 내 몫인 것 같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권력화된 종교가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그것은 정치 민주화의 심화라고 생각한다. 스님들이 너무 정치권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조계종이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담화문

지난 해 12월, 종단에서는 정부 ? 여당의 전통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종교 편향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사찰 출입 제한, 국고 지원 수령 보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정부 여당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종단 스스로도 전통 문화 보전과 대정부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주장을 관철시키는 투쟁과 대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고 종단이 먼저 의식 전환과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통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1월 26일에는 총무원장 담화문을 통하여 자성(自省)과 쇄신(刷新) 결사(結社)의 정신으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5대 분야의 실천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6개월 여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내부의 의지 결속과 관성 타파를 위한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대화와 출입 제한 방침이 불교적인 방식인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종단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제하고 이해하고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도들 스스로 자존과 자립의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종도들의 의식 전환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견디고 종단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찰의 주지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6개월 여 진행해 온 대정부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성과 쇄신 결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소통 중단과 출입 제한의 조치를 해소하고, 전통문화 유산과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 지원 예산 등도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차단과 제한의 방편 대신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운영의 원칙인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함으로써 세상이 변화한다는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로써 모든 종도들과 전국 사찰의 주지스님들은 중앙종무기관과 각 교구 본사의 지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존의 정신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도와 지역 사회를 우선 소중히 여기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 하는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종교인으로서의 자세, 승가의 위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는, 그동안 종단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언급되었던 현안들을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사업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종단의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를 지지해주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결사의 뜻과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한편에,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새겨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욱 본격적으로 결사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결사 전담 기구가 곧 출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단의 유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기능과 함께 종교 본연의 중생 구제와 사회적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결사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이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승가가 중심이 되어 작은 변화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결사의 정신을 실현하고, 국민들과 사회에 회향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緣起)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절박한 현실이라는 과(果)는, 선대(先代)의 덕화(德化)에만 의지한 채,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던 지난날의 인(因)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자 하는 자성과 쇄신의 길은 새로운 인(因)이 되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 사회의 통합과 평화로 이어지는 행복한 과(果)를 맺게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종도들이 결사 정신으로 한 몸을 이루어 한국불교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장엄연등이 되고 그 환희심(歡喜心) 가득한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 2555(2011)년 6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도법 스님, '불신' 발언 해명

보도 내용 과장 지적… 유감 표명

"내 본의와는 다르게 보도돼 유감이다. 표현에 서툴렀을 뿐 종단의 5대 결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원장 스님과 집행부, 종도들에게 죄송하다."

도법 스님이 6월 7일 열린 화쟁위원회 10차 회의에 앞서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 추모 '생명평화 대화마당'에서의 발언을 해명하고 나섰다. 스님은 당시 발언 중 일부 부정적 단어가 언론에 과장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6월 3일 '생명 평화 대화마당'에서 "종단이 추진하는 결사를 종도들 대부분이 불신한다. 결사를 표방했으나 내용이 없고, 불신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의해 일부 교계 언론에 보도돼 확대해석을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도법 스님은 "5대 결사가 잘 추진돼야 하고, 나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나의 본의다. 원장 스님과 집행부가 잘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박기범 기자

영선사 등용청소년공부방 여름방학 특별 용맹정진 팀 입방공고

인재의 양성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째, 인격적 도야와 수행을 통한 것과 둘 째, 선거를 통한 것, 셋 째, 학습을 통한 것입니다.
영선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지장철야기도를 봉행(2011년 5월 현재 152차)하고 있는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장보살님의 사상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자 인재 양성의 길 중 세 번째를 택하여 사찰이 위치한 소재지인 인월에 무료 공부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기 중에는 지역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방학 중에는 20명 정도의 영선사 신도님들 자녀들 위주로 4번의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여름 방학부터 문호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공지를 드리니 안내를 참고하시어 참여하실 님 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년 7월 18일(월) ~ 8월 12일(금)** (이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결정함)
■ 입방자격 : 중등 이상(대학생 포함) 불자 및 무교 여학생 (남학생은 방사 문제로 영선사 신도들 자녀로 한정함)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35명
■ 팀 구 성 : 1팀-자율학습 / 2팀-스님이 직접 영어와 수학 중심 지도(기초반) / 3팀-학교 보충 수업 시작 전 잠깐 쉬는 기간에 와서 공부
■ 비　　용 : 없음. 약 한 달 간 무료로 영선사에서 숙식하며 학습은 공부방에서 진행됨
■ 운영시간 : 오전 9시 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주지 스님의 관리 하에 학습 진행
■ 특이사항 : 본 용맹정진은 단기간의 수련대회가 아니라 장기적 학습을 위한 것이므로 종교적인 부분은 매일 일정 시작 전 삼귀의와 반야심경이 있을 뿐입니다.
■ 신　　청 : 영선사 다음카페에서 입방원서와 청규 서약서를 다운 후 이메일로 신청 후 문자 연락함 - **0770child@hanmail.net**
■ 기　　타 : 문의 사항은 영선사 홈과 다음카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람
■ 위　　치 : 영선사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 공부방 - 인월면 소재지

주지 월공스님 약력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 실상사 화엄학림 수료 / 조계종 어산작법학교 본과 졸업 / 조계종 어산작법학교 전문반 졸업 / 한디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 한디대 청소년학과 졸업 / 공군 군승법사 전역
- 사회복지사 1급 / 보육교사 1급
- 현 영선사 주지 / 현 함양시민연대 공동대표 / 현 남원경찰서 경승 / 현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대표이사 / 현 등용청소년공부방 관장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오봉산 영선사.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등용(登龍)청소년공부방
http://cafe.daum.net/youngsunsa / http://www.youngsunsa.org / http://www.isaram.kr

불교, 호국을 말하다

제23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호국법회가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에서 봉행됐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스님, 삼천사 주지)와 은평구청불심회(회장 김은혜)는 6월 7일 호국사찰 서울 진관사에서 '제23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장 성운 스님을 비롯한 사원연합회 주지 스님 및 신도,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현찬 은평구의회 의장, 이재오 한나라당 특임장관, 김미경 서울시의회 의원, 보훈가족, 은평구청 불심회 및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된 제23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호국법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뜻을 기리는 행사로 은평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구에서 23년간 진행해 왔다. 사원연합회는 법회에서 선열의 후손을 위로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보훈단체 및 가족, 모범공무원 모범자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48명에게 각각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불교의 호국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호국영령에 대한 추도 정신은 한 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불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때마다 민족과 국가를 지키며 민족정신의 지주역할을 했다"며 "자타불이 정신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나눔을 생활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찬 은평구의회 의장은 "지도층 인사들의 일탈행위로 땀 흘려 번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으며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 대북문제의 꼬인 매듭을 풀어가는 방법을 두고 벌어진 국론 분열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불심과 국민의 혼연일체 된 힘으로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가자"고 당부했다.

기원대법회 참가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신적 계도 역할 수행, 법과 질서 존중, 복지 · 교육 발전에 힘쓸 것을 발원했다.

이상언 기자

"당연히 해야 할 일…"

송천사 주지 혜장 스님



은평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구청불심회가 마련한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올해 전달한 장학금은 2400만원. 그 중 1000만원을 보시한 혜장 스님의 자비나눔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혜장 스님(70)은 1994년 성운 스님과 인연을 맺은 후 매년 사정이 되는 대로 100만원, 200만원씩 전달해 왔다.

"큰 법당으로 절을 반듯하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범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활력을 불어 넣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평소에도 방송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 바로 전화를 눌러 기부를 한다. 이렇게 하루에도 최소 1~2만원은 나가고, 신도나 지인의 자녀가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하면 등록금도 아낌없이 후원하고 옷이라도 사서 보낸다. 스님은 "내 욕심 차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늘 이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 사정이 되는대로 정성을 다하면 천지가 돕게 돼 있다"며 "이번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에 특별히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상언 기자

현충일 행사서 찬송가 연주

국방부 "종교적 이해와는 무관" 해명

현충일 행사에서 군악대가 개신교 찬송가를 연주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월 6일 서울현충원에서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의 1부 행사로 거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은 지난해 10월 강원 양구에서 발굴된 이천후 이등중사의 유해를 이미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친형 이만우 하사의 묘 옆에 모시는 행사였다.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합참의장,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국방부 군악대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연주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는 8일 '국방부는 호국영령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 공식 행사에 특정종교의 찬송가가 국방부 군악대에 의해 반복 연주됐다는 사실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이는 국가 공식행사조차 장로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려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호국영령에까지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종교편향적 행위"라며 ▷국가 공식기념행사에서의 특정종교음악 연주 금지 ▷대통령 참석행사에서의 위헌적 행위 근절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실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종교적 이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정식 출범

20여 단체 참여, 공동대표 선출 등 조직 정비 예정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불교계 발전과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들은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 생명평화대화마당 마지막 강연이 마무리된 뒤 청중들에게 출범을 알렸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생명평화공동체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13~15일까지 조계사 갤러리 '나무'에서는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시회를 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에는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새 주소 변경에 불교계 항의 봇물

개운사 이어 화계사도 반발… "'화계사길' 대신 '덕릉로' 웬말"

7월 29일 새 주소가 도입되면서 새 주소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개운사에 이어 화계사 주지 선암 스님 역시 6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주소 변경으로 '화계사길'이 '덕릉로'로 변경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 성북구 화계사에 이어 도봉구, 노원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이르는 '화계사길'은 폐지되고, '덕릉로'로 신설된 상황이다. 선암 스님은 "이미 60여 년 동안 사용한 지명을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덕릉로'로 바꾸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30년 동안 이 지역을 살았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계사길'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측은 '화계사길'의 '덕릉로' 변경 이유에 대해 "인근에 덕흥대원군 묘가 위치하기 때문에 '덕릉로'로 도로명이 붙여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선암 스님은 "수유리 일대에서 30년을 살아왔지만, 덕릉이 어디 있는지 누구의 능인지 조차 들어 보지도 못했다"며 "서울 시민이 다 알고 있는 '화계사길'을 아무도 모르는 '덕릉로'로 굳이 변경한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님은 "새 주소 명칭은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지명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을 홍보하며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 자긍심과 애착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종교적인 이유로 '화계사로'를 폐지하고 '덕릉로'로 바꿨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덕릉은 경기도 별내면 흥국사 근처에 위치한 조선왕조 선조 임금의 부친인 덕흥대원군의 묘이다. 스님은 '덕릉'에 대해 "당시 신하들의 반대로 능으로 봉해진 바도 없고, 선조임금 부친의 묘로서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덕릉으로 불리게 된 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의하면 도로명의 부여 · 변경 기준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 선암 스님은 이 같은 내용으로 미뤄 봤을 때, '덕릉로' '덕릉로길'보다 '화계로' '화계로길'로 명칭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선암 스님은 "화계사 사적비문에 의하면 화계사 창건 당시, 화계사(華溪寺)는 화계동(華溪洞), 즉 꽃골에서 연유됐다. 꽃골은 빨래골, 냉골처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선암 스님은 "'화계'라는 이름은 이미 화계중학교, 화계초등학교, 화계유치원, 화계교회, 화계맨션 등 특정종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의 역사와 문화 숨결이다"라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새 주소 명칭 부여에 신중하고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스님은 "현재 '개운사길'이 '인촌길'로 변경됐다가 다시 환원된 것에 희망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화계로'라는 명칭이 도로명 변경 취지에 들어맞는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동국대에 이제사 채식 식당 개점

채식문화 확산 위해 2주간 시범운영… 9월 정식 오픈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6월 7일 채식 식단만 제공하는 '채식당'의 문을 열었다.

동국대 상록원에 입주한 뷔페 형식의 채식당은 각종 쌈과 나물, 두부, 잡곡밥, 샐러드 등의 식단으로 5000원~7000원대의 점심 식단을 제공하며, 2주간 시범운영을 한 뒤 점검 · 보완 절차를 거쳐 9월 초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

동국대의 채식당 운영은 건학이념인 불교의 불살생(不殺生, 산 것을 죽이지 않는다) 정신에서 비롯됐다.

채식당 위탁업체인 아워홈 동국대 지점장 이상민 씨는 "불교 종립대학의 특성상 스님들이나 채식주의자의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서울대만 종교적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채식 식당을 운영했다. 동국대의 경우 채식주의자 연구원이 총장에게 채식식당을 만들어달라는 편지를 쓰는 등 요구가 많아지자 대학 측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식당은 100%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 젓갈이나 멸치육수도 쓰지 않는다.

개점 첫날 식단을 맛본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인경 스님은 "종립대학인데도 육식을 비롯해 일반인 입맛 위주의 음식들이 많아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채식식당이 알려지면 발걸음이 잦아 질 것 같다"고 반겼다. (02)6713-5140

노덕현 기자

국내 최초, 불교계 최초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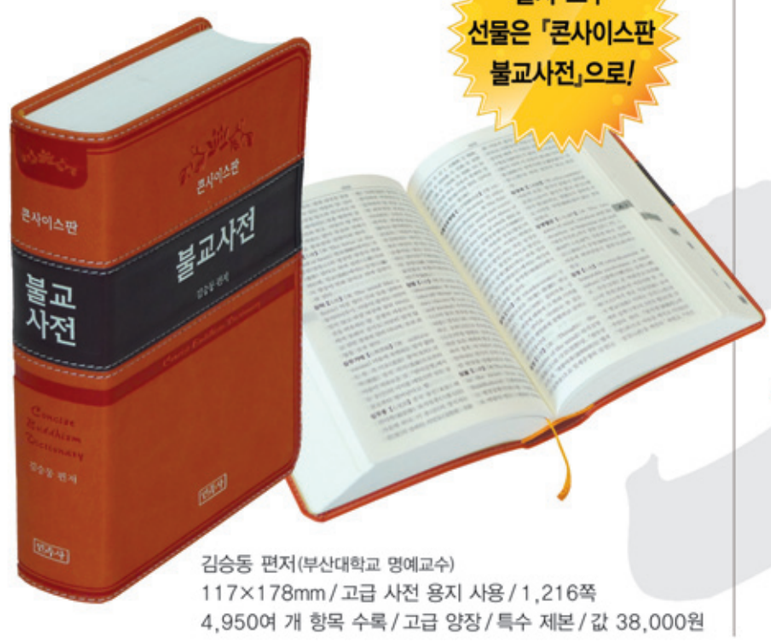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품위 있는 선물!

Concise Buddhism Dictionary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명확하고 풍부하다.

불자 모두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김승동 편저(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1.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불교와 관련된 교리 · 사상 · 역사 · 인물 · 문화 · 문헌 등 불교도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 중심으로 뽑았다.
2. 단어의 개념 설명이 매우 간결 · 명확 · 풍부하다.
3.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4. 사이즈가 작은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5.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 · 중국 · 한국 · 티베트 · 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 · 원시 · 부파 ·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 · 사상 · 철학 · 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이 한 권만 있으면 중요한 불교용어는 물론이고, 불교교리와 상식,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모두 해결된다.
6.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발전합니다. 법문이나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하고 싶지만, 막상 "그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질문하지도 못합니다. 또 타인을 의식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오기도 전에 잊어버리기 일쑤!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 법보시는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 각 지역별 판매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민족사

일 주 문



교육원 연수국장 임명
광주 불국사 주지 가섭 스님은 6월 7일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에 임명됐다. 가섭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길상사 불교입문 강좌
길상사 주지 덕운 스님은 6월 8일~8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길상사에서 제10기 불교입문 강좌를 개최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상담워크숍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담교 스님은 6월 25~26일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불교상담 워크숍을 개최한다. (02)737-7378



불레협 제47회 여름불교학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도경 스님은 6월 19일 서울 불교방송 3층에서 제47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선진규 봉화 정토원장 등단
선진규 봉화 정토원장은 6월 1일 발행된 2011 〈한국현대시문학〉 여름 제10호에서 '봉화산 사자바위' 시로 등단했다.



불교신문 편집국장 직무대행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는 6월 7일 자로 불교신문 이사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임명 됐다.

"다름은 인정돼야"

새 사무실로 이전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



"임대 사무실에서 벗어나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가 두산위브 707호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고 6월 9일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퇴휴 스님은 사무실 이전과 함께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실천승가회는 정토구현전국승가회와 대승불교승가회가 1992년 통합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불교단체다. 국제구호사업과 종책 연구, 남북교류, 인권·평화·민주 등 정토사회 구현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산하에는 국제구호기구 로터스월드와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함께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의 실천승가회 활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성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창립 20년이 다 됐으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실천승가회는 수 년 전부터는 종단 중심의 활동을 지양하고, 대북, 성평등, 인권 등 사회적 현안과 가치실현에 관심을 가져왔다. 동시에 종단 발전을 위한 종책 제안과 감시자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퇴휴 스님과 실천승가회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스님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부담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정착시킬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종헌종법 개정과 수도권 포교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에는 공찰이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종단의 지도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강남 3구에서는 불교 인구가 다른 종교에 비해 3순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지금의 본사 구조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퇴휴 스님은 신도시 및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는 종교부지 불하를 통한 접근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시는 불교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미 활동 중인 사찰과의 과열 경쟁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교 부지는 종단이 예산을 통해 확보한 뒤 건물은 개별 사찰이 짓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능력 있는 젊은 포교인재를 발굴한다면 수도권 포교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퇴휴 스님은 "종단이 부지 매입 문제라도 해결해준다면 열성을 갖고 뛰어들 인재들이 많습니다. 역량은 있으나 기반 마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며 "그들의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선정, 지원한다면 수도권 포교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면밀한 평가 시스템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불교는 사회와의 접촉 통로가 약합니다. 실천승가회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종단에 대한 감시와 종책 제안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문제 또한 실천승가회가 놓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문화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넘어 다름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기범 기자

제주 7대경관 선정에 조계종 나서



조계종과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는 6월 7일 업무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자승 스님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운찬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 최종 선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박기범 기자

일붕 존자 열반 제15주기 추모재

제주 조천체육관 문도 1000여 명 운집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존자 탄신 97주년 및 열반 15주기 추모재가 10일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봉행됐다.

세계7대 자연경관선정 기원과 겸하여 일붕스님 탄생지인 제주도에서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화엄)과 전국일붕문도중앙회(회장 의륜) 공동주최로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에서 봉행됐다.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재)일붕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 총무원장 화엄 스님, 전국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의륜 스님, 명예회장 지산 스님, 일붕신문사 사장 동봉 스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종도 및 문도회 회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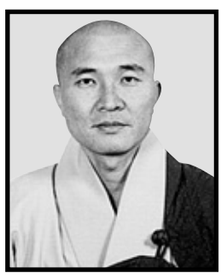
전국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의륜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수행자의 표상을 보여주신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이웃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여 사부대중의 지표가 되자"고 밝혔다.

(재)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화엄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법중생의 선각자이신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화합과 단결하여 유업을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재)일붕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큰스님께서 추구하시던 종단의 참모습과 위상을 이루기 위해 참회의 마음으로 종도와 문도가 화합단결하여 유지를 이어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부행사로 마정수기 법회가 이어졌다. (02)998-8161

노덕현 기자

〈부고〉 삼성암 주지 현종 스님 입적



최근 급성 간경화로 투병 중이던 서울 삼성암 주지 현종 스님(사진)이 6월 10일 입적했다. 세수 55세, 법납 32세.

해인사와 조계사 주지를 지낸 세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현종 스님은 1975년 8월 30일 청용암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9월 26일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4년 서울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용곡대학 대학원에서 문학연구로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08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현종 스님은 2005~2009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맡아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간화선 보급에 이바지했다. 2009년 명상 대중화를 위해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2010년 조계종 대학생전법단 단장을 맡아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도 앞장서 왔다.

자비 실천 위해 여성들이 뭉쳤다

붓다자비봉사단, 국내외 자비행



"밥을 해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여성 불자들이 뭉쳤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소속인 붓다자비봉사단(회장 김대천)은 여성분과 회원들로만 구성돼, 1년 전부터 국내와 국외를 돌며 자비행을 실천해 왔다.

붓다자비봉사단의 김대천 회장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 활동해 오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여성들이 모여 봉사단을 창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붓다자비봉사단 단원들은 국내에서는 양로원, 고아원, 군부대 교도서 등을 방문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도 의정부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에게 시루떡 7가마, 라면 50박스, 염주와 단주 500개를 기증했으며, 대한불자가수회 회원들을 초청해 교화 공연도 봉행했다.

이밖에도 미얀마 등 어려운 이웃 국가를 찾아 우물파기 운동, 신뿌식(불교 출가 의식), 초등학교 설립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춘 씨는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에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난함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내가 봉사를 통해 삶의 힘을 얻게 된다"며 "비록 작더라도 베푸는 삶이 나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천 회장은 "붓다자비봉사단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직은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한마음이 돼 봉사대열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02)733-5670

이은정 기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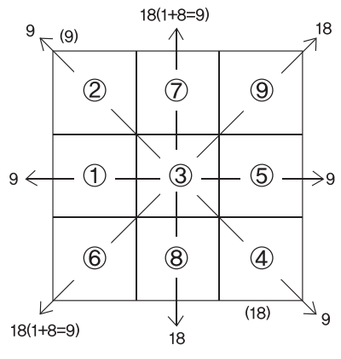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지자 (50%)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6개월]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 수,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토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 금, 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제5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6월 4~5일 제5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열린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이 만다라 그리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아이들에겐 재미가 필요

'올 여름불교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라는 공통 화두는 어색했던 분위기를 금새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어린이 법회 지도자들의 경험담과 사례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여름방학을 한 달 여 앞두고 6월 4~5일 충남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 어린이 지도자 400여 명이 모였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계성)와 동련(이사장 심산)이 개최한 제5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는 어린이 지도자들의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행사에서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은 불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참선과 염불, 발우공양 등 전통적인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회 프로그램에 생태나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종합수행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오랜 시간 어린이포교 현장에서 활약한 100여 지도자들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획회의를 열었다. 베테랑 어린이법회 지도자답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그림그리기를 통한 미술치료, 도반의 발을 씻겨주며 보살행 실천하기, 팥빙수 등 여름철 간식 만들기 등 공통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이색적인 경험담도 많았다.



어린이 지도자인 스님과 재가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와 동련이 개최한 행사에는 400여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10년 넘게 어린이 법회를 이끌어온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배윤정 씨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여름불교학교 기획서를 타 사찰에서 온 팀원들과 회람하며 노하우를 나눴다.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 했던 한 여름 밤 귀신놀이는 팀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배 지도사는 "불교동화를 무섭게 구연하거나 귀신놀이를 했다. 귀신과 밤이 주는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살려 공포와 두려움을 상황연출합니다. 이 때 진언을 통해 이겨내도록 해 아이들에게 진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봤다"고 말했다.

운문사 어린이법회 일석 스님도 "연못 안에 번호를 매긴 조약돌을 넣어 어린이들이 물놀이 후 건져낸 조약돌 번호에 따라 기초교리 퀴즈를 풀었다. 평소 두루마리 휴지의 심을 버리지 않고 모아 발원문을 적은 후 탑을 쌓는 프로그램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었다"고 소개했다.

지도자들은 폐지를 활용한 발원탑 쌓기와 연못놀이를 접목해 '지혜를 건너라' 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연수회는 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화랑 스님의 '쉼 없는 정진, 수행의 첫 발' 강의를 시작으로, 연수 참가 4년차 이하와 이상 2개 반으로 나뉘어 동련 이사 철우 스님의 '수행의 즐거움, Let's go 불교!' 와 조계종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정범스님(옥천암 주지)의 '나는 불자다, 우리들의 여름불교학교' 강의가 진행됐다.

철우 스님은 강의에서 "불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행위는 포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로 가르친다는 필요가 없다"며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도반으로 그들이 나를 가르치고 제도한다고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연수회에서는 조계종 5대 결사 항목인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를 여름불교학교에 접목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수행 결사는 서원 세우기와 매일 수행하기라는 세부 실천지침에 따라 '사경과 사불'을 문화 결사는 우리 문화재 바로알기 실천지침에 따른 '석가탑 만들기', 생명 결사는 친환경운동의 생활화를 실천지침으로 삼은 '종이화분 만들기', 나눔과 평화 결사는 '자신을 찾는 만다라 그리기' 등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온 장정희 씨(미국 불타사 자모회장)는 "사찰 내에 어린이한글학교를 운영하던 중 어린이법회 개설을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을 위해 참가했다"며 "여러 강의 중 찬불동요와 만다라그리기 등 체험프로그램은 바로 적용해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은 천진불을 기르는 어린이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심을 꼽았다. 뜨거운 신심을 어린이포교를 향한 열정으로 옮겨,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불심을 심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어린이지도자들은 부처님의 손과 발, 눈빛과 미소, 마음이 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불심을 심고 가꾸어야 할 대승보살들입니다. 그 원력이 무르익어 훗날 성불에 이르도록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대원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심산 스님은 "매년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천진불 곁으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으로 연수회를 준비하고 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지도자들이 많은 것을 배워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어린이지도자들이 있기에 한국불교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자부심으로 포교해 달라"고 격려했다.

스님은 여름 수련회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면과 스스로의 개발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원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

1만 일자리 창출하려면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서 사회적기업 역할 강조

종교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사회적 기업은 나눔과 공존을 실천하는 종교적 역할은 물론 지역이나 자치단체에 네트워크 구축, 인적 물적 자원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활성과 확산의 '텃밭' 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적 · 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결집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 물적 자원 연계와 지역사회 인식 확산 · 공유를 위한 교육사업에 종교계의 역할에 주목했다.

6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는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후원으로 설립한 불교계 유통 사회적기업 연우와함께(대표 이상근)와 개신교 해인교회의 인천내일을여는집 등을 조명하고 종교계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이 소개됐다.

불교계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에는 현재 사회적 기업이 532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005개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교계 사회적기업은 4개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 중 불자가 22.8% 인데 비해 불교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참여와 확산은 미약하다.

하지만 불교계는 사회적기업을 이루기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27개 종단 산하에 약 2만여 사찰, 1072만 명의 불자가 있으며 1만평 이상 보유사찰을 기준으로 2억 3500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가 22개, 복지시설도 115개에 이른다.

연우와함께는 '1사찰 1사회적기업' 을 목표로 100개 사회적기업을 창업으로 1만개 일자리 창출, 1조원 매출 달성, 10조원 사회적 효과 달성을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역사와 전통의 특징을 살리고, 넓은 임야 및 토지를 활용한 숲 가꾸기, 생태계 보존 · 재활용 및 자연학습장, 명상센터, 요양 · 자활센터, 숲유치원 등 힐링 프로그램, 친환경 식재료, 약초, 장류 및 발효 등을 통합 연계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 사업 및 사찰음식 세계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과 건강한 유통 관련 사업을 특화할 계획이다.

이웃종교에 비해 조직력이 부족한 불교계는 27개 종단을 통합하는 불교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별, 분야별 사회적 기업 가능성과 상호연계 지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홍보의 과제가 남아있다.

기독교계 사회적기업 확산 방안

기독교는 전국 교회 5만개 중 5%만 참여해도 사회적 기업 2500여 개소를 육성할 수 있다. 1개소당 3~5명을 고용하면 약 7500~1만 2500명의 고용 효과도 얻는다.

기독교의 조직력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가장 큰 이점이다. 기독교는 스스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국단위의 총회, 지방자치 단위의 노회, 시군구 단위의 시찰회 등 오랜 세월 활성화 된 조직을 앞세워 사회적기업 육성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라봤다. 또 교회 성격상 매주 한 차례이상 모이는 점, 헌금으로 하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 CBS, CTS, 기독교 IPTV 등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전국적 기독교 언론이 구성돼 있고, 이를 통해 계몽과 상업적 홍보도 가능한 점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독교는 기독교계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초교파적 차원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교단에서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실태파악, 컨설팅, 자원연계, 인증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하게 된다.

>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종교계 주축
> 불교계는 인적·물적 자원 충분해

최근 기독교에서 교회성장논리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로 패러다임의 변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다. 기독교 측은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사회공헌의 시대정신과 맞물리면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상의 자원과 환경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이 국정 아젠다로 자리잡아 제도 개선안이 실행되도록 향후 실행시스템 구축과 부처별 계획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사업단은 6월 21일 오후4시 30분 중앙신도회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상언 기자

박 기 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봉사활동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인덕원 노인요양원 자원봉사자 조남인 보살



"환자들에게서 오히려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인(76) 보살은 은평구에 위치한 인덕원 노인요양원에서 매주 2회씩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조 보살은 항상 손에 3~4개씩의 단주를 차고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환자들과 함께한다. 그러다보니 환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처음에는 청진기 검사조차 거부하던 환자들도 이제는 조 보살을 믿고 따른다.

"환자들을 대하다보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건 다 주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서로간의 신뢰가 쌓인 것 같아요.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인 보살은 인덕원 이외에도 은평노인복지관, 녹번노인돌봄센터에서도 매주 봉사활동을 펼친다. 조 보살은 은퇴 전까지 개업의로서 30년 동안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은퇴 전에도 꾸준한 의료봉사를 펼쳤지만 이제는 봉사 자체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됐다.

"이사장인 성운 스님이 불교복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니까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스님에게 울타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남인 보살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성운 스님의 울타리가 될 것을 당부한다. 조 보살은 어머니 때부터 성운 스님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조 보살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먼저 스님을 찾아가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 할 뿐이다. 자주 찾아뵙는 것조차 스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남인 보살은 봉사자들에게 '진심' 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인요양원의 치매환자들조차 봉사자들의 진심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봉사자들의 손만 잡아도 봉사자의 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 진심이 아니면 아예 시작도 말라고 합니다."

환자들을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고, 봉사를 하겠다는 헌신적인 자세 없이는 봉사활동을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보살은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굳게 믿는다. 환자들이 자신에게 웃어주고, 최고라고 외쳐줄 때마다 힘을 얻는다.

"봉사를 통해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의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네요. 개업의로 지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조남인 보살은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인덕원과 복지관에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의약품을 후원하고 있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조 보살이 지원하는 의약품조차 의심의 눈길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가 후원한 의약품만 찾는다. 의약품을 후원받은 사람들은 김치나 묵 등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갖고와 고마움을 표시한다. 조 보살은 그럴 때면 정말 행복하다며 웃어 보였다.

조 보살은 불자로서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불교계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불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당부했다.

"불교도 더 발전하고, 불교계 봉사활동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60살에 봉사활동을 시작해도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15~20년은 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박기범 기자

한국종교, 이슬람교를 만나다

대화 세미나 열고 서로 간 이해 증진

한국종교와 이슬람교가 한 자리에서 서로간의 이해를 위한 대화를 풀어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한국이슬람교, 종교평화국제사업단과 함께 용산구 하이원 빌리지에서 6월 8~10일까지 친교와 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슬람 다가서다'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아시아 지역의 무슬림과 이웃종교학자 및 국내 이주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눴다.

9일 날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서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서 "이슬람권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서구가 이슬람권에 좀 더 유연하게 다가가고, 동시에 무슬림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혁과 의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문명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무슬림이마 유니타, 필리핀 천주교인 파블리토 바이비도 등이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박기범 기자

뜨거운 여름 수행 열기 이어져

성주 보리선사는 7월 29~31일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숲속 명상학교를 실시한다. (054)931-8874

해남 미황사는 6월 18~25일 7월 9~16일, 8월 11~15일, 8월 15~21일, 9월 17일~24일 참선집중수행을 2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한문학당도 7월 24~31일, 8월 3~10일 진행되고 한문교육, 문화체험, 발우공양, 예절, 참선 다도, 산행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061)533-3521

이상언 기자

아름다운동행, 구제역 피해 장학금 지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피해지역 사찰 및 관공서이며, 6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 737-9595

박기범 기자

장보고 대사로 이어진 천 년의 인연

제3회 한중일 불교문화교류제, 기념법회 및 학술대회



'장보고와 한중일 삼국의 불교문화' 를 주제로 열린 제3회 한중일 불교문화교류제가 6월 9~11일까지 조계사와 전라남도 완도 일대에서 진행됐다.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일본, 중국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됐다.

한중일 삼국의 스님과 관계자들은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기념 법회 후 한 · 중 · 일 참가자들은 조계사 종각에서 함께 평화의 종을 타종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학술 행사 '제3회 불교문화교류제 국제 학술회의' 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윤재운 대구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8~10세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 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윤 교수는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공간인 황해, 동해, 오호츠크해 가운데 황해는 장보고로 대표되는 신라상인과 발해 상인의 활약이 주목되고, 동해는 고구려 및 발해 관련 사절단, 오호츠크해는 숙신 · 읍루족이 주역이었다"고 말했다.

박기범 · 이나은 기자

금강경 강의 수강 및
인도 오쇼명상 나다브르마 수행 안내

세계적인 명상의 스승 인도 오쇼 명상 나다브르마수행 및
불교 금강경 명상 수행 최고의 지침서 강의

불교 금강경이란 이런것이다 제자 수부티의 이질문에 대한 부처님답변이다
올바른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이
금강경이란 경전이다 명상이란 바로 이금강경 내용을 실행 하는 것이 올바른 명상이다

금강경 제일분 법회인유분 이란 친밀한 스승부처님과 제자12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질문과 가르침이 펼쳐지는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한 상황설명이다제16분 능정업장분 전생의 업보를 소멸 시키다 선세죄업 즉위소멸 전생에서 지은 업보 즉시 소멸 된다 하지만 혹유인문 심즉광란 호의불신 하리라

이금강경을 이해 하므로 전생의 업장이 소멸 되고 정등각 올바른 깨달음에 들지만 혹 어떤 사람은
여우처럼 의심하여 믿거나 이해 하지 못하고 마음이 미쳐 날뛸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백일 금강경 강의 달려 오시라 망설이거나 계산 하는 마음은 빗나갔다
오시라 명상사로

강 의 자 : 명상사 주지 동암스님 . 오쇼산야신 아난드마그노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342 명상사 법당
강의수련일시 : 2011년 6월 19일 부터
매일 오후 20시~22시 2시간 100일간
선 착 순 : 약간명 숙식 가능
문의연락처 : 033)521 1772 / 010-7200-0943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문화재 일제조사에 私記 포함해야

이종수 동국대 연구교수, 사기편찬사업단 제1회 학술세미나서 주장



"더 이상 사기가 손상되기 전 전국의 사기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2002년부터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에서 사기 소장 여부를 취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선불교 교학 발전의 증거, '사기(私記)' 연구를 위한 사업단이 구성됐음에도 개인 소장과 보관상태 불량으로 그 수집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사찰 문화재일재조사에서 사기 소장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기는 조선시대 강원 교과목에 대한 강의 내용을 주석형태로 기록한 것으로 억불숭유의 조선불교시대 교학 연구를 위한 근거자료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산하에 조선불교사기편찬사업단(단장 김상현, 사학과 교수)을 구성해 사기 연구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소장 사기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6월 3일에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조선후기불교 사기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제1회 학술세미나에서는 사기 수집에 대한 애로점과 향후 과제 등이 다뤄졌다.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사진)는 '사기 집성 현황과 과제' 발제를 통해 "사기는 전국 사찰과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개인 도서 수집가들이 소장하고 있어 대체로 찢어지고 닳아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특히 사기를 소장하고 있는 곳에서 그 사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보관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담화족

이 교수는 "현재 사기류 전적은 〈한국의 사찰문화재〉에서 그 목록을 소개하고 있지만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는 그 자료 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향후 사업단의 사기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교수는 "현존하는 조선 후기 불교 사기는 대부분 조선 후기 이력(履歷) 과목 교재에 대한 주석서이므로 이력과정의 성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이력과정은 조선후기 승려교육과정으로 16~17세기를 거치며 성립됐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후기 진행된 승려교육과정인 이력 과목을 중심으로 사기 편찬 과정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특히 1차년도에는 화엄교학을 중심으로 편찬된 사기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을 밝혔다.

이 교수는 끝으로 "조선시대 불교를 연구하는데 그 가치가 크다. 수백 권의 사기가 발견되는 만큼 사기 수집부터 편찬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회 학술대회에서 법사로 참여한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도 개별사찰에서 사기의 가치를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며 불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종진 스님은 "지난 40년 전 해인사와 대흥사 등에서 수많은 사기를 보았지만 본인도 당시에는 사기가 중요한 것인지 느끼지 못했다. 그 당시부터 사기를 모았다면 수백권은 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노덕현 기자

"적석 기초가 자연석 활용으로 이어져"

홍대한 문화유산국민신탁 연구원 미륵사석탑 분석



"신라 황룡사와 분황사의 목탑 기초부는 백제 미륵사 동서 석탑의 기초구조와 같은 양식이다. 이러한 백제 석탑 기초양식은 고려 석탑 기초 양식으로 전용돼 전개됐다."

기반부를 자연석이 아닌 판축다짐으로 쌓는 백제 석탑 양식이 신라 황룡사와 분황사 등 신라 대규모 목탑의 기초양식과 고려 석탑의 기초양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홍대한 연구원(사진)은 6월 4일 불교미술사학회가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한 제17회 불교미술사학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백제 미륵사지에는 동서에 석탑 및 중앙에 목탑이 있었는데 이에 사용된 판축기법은 활석을 사용해 황토를 판축에 사용한 부여 판축 기법와 차이를 보인다. 홍 연구원은 미륵사지 동·서 탑의 하부 판축구조는 "물게 갠 흙을 붓고 표면이 마르면 목봉으로 다져 층을 형성한 후 그 위에 다시 활석을 깔기를 반복하여 축조하였다"고 밝혔다.

홍 연구원은 "연약지반을 고려해 추가한 것으로 이는 중국 판축 기법과도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이러한 적석 기초가 다른 백제지역에 나타나지 않고 황룡사의 기초 양식으로 이어지는데 주목했다.

황 연구원은 고려시대 석탑의 기단의 특징으로 "자연암반을 이용한 기단구축"이라며 "이러한 적석 기초가 탑의 소형화와 함께 통일 신라 시대 자연암반을 이용한 기단 구축으로 진행되고 고려시대 널리 사용됐다"고 말햇다.

자연 암반기단은 탑의 소형화와 함께 자연지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한국만의 기단 축조 방식이란 것이다.

홍 연구원은 탑신이 극도로 소형화 돼 기초부 조성 없이 대산사 삼층 석탑, 안동 이천동 삼층 석탑과 소형 청탑 등과 같이 판성을 이용해 기초와 지대석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형식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미술사학회는 2003년 학회지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까지 학회지 〈불교미술사학〉 제11호를 발간했다. 학술지는 2011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천진영 기자

〈학술단신〉

■ 김선근 동국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법회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6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정년퇴임을 맞아 '법화경 신앙과 사상'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정년퇴임을 겸한 이날 법회에선 '불교와 인도종교'를 주제로 김선근 교수의 특별강연도 열린다. (02)2260-3130

■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6월 24일 오후 1시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불교의 평화사상과 소통-원리와 방법'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가 주최하는 '2011년 만해축전 불교학술심포지엄'을 겸해 진행된다. (02)2260-3835

■ 보조사상연구원 간화선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6월 18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간화선 수행의 전개와 현대적 응용'을 주제로 제96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황금연 동국대 강사가 '몽산덕이(蒙山德異) 선사의 간화선 수행관',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화랑 스님이 '간화선과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접근'을 각각 발표한다.

■ 티베트 주제로 불교계 학회들 공동 워크숍

티베트불교를 주제로 교계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와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 티베트불교 연구기관인 티벳장경연구소(소장 김성철)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7월 9~1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한국불교와 티베트불교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리는 공동 워크숍은 학술발표와 성지순례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9일에는 양승규 박사(동국대 강사)가 '한국불교가 티베트불교에 끼친 영향', 땐진 남카스님(티벳장경연구소 연구교수)가 '티베트불교 기도문의 종류와 의미'를 발표한다. 또 최연철 박사(티벳장경연구소 전문연구원)가 '티베트의 불전 번역 역사'를 발표하며 문무왕 박사(동국대 강사)의 '불국사와 감은사, 그리고 문무왕 해중릉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10일에는 감은사지, 문무왕 해중릉, 감포 등 순례도 진행된다. (054)770-2893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9 - 알아차림

알아차림(sati)은 마음을 보호한다.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지방에 가면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 스님이 설립한 세계적인 명상센터인 자두마을(Plum village)이 있다. 이곳에 가면 아주 재미난 풍경을 볼 수가 있다. 이곳에서는 가끔씩 종이 울리는데 종이 울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동작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돌린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호흡을 세 번 관찰한 다음 다시 멈추었던 동작을 시작한다.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노인까지 예외 없이 행해진다. 겨우 일곱 살 남짓한 어린아이들이 종소리를 듣고 멈추어 서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인상 깊었었다.

사람들은 보통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성공을 꿈꾸며 돌아다닌다. 자두마을에서는 종소리를 이용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마음을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같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게 하는 심리현상을 '알아차림(sati, 念)' 또는 '마음챙김'이라 한다. 그러면 알아차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알아차림이 있어야 대상을 편견 없이 바라본다
알아차림은 열반 이르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

첫째 알아차림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함으로써 대상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상을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다. '보석'을 예를 들어 보자. 보석을 보석이라고만 아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러나 보석의 본질이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결합이고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특성이 있다'라는 통찰은 대상의 본질에 깊이 들어간 것이다.

둘째 알아차림은 대상을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 취했거나 현재 취하고 있는 대상을 기억한다. 이를 통해서 대상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한 후에 사라진 마음을 기억해 사라진 마음의 특성이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자아가 없음을 통찰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뒤에 일어난 지혜의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셋째 알아차림은 대상과 직면하게 하여 편견 없이 대상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한다. 이로써 대상을 잘못 이해해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보호한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마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감각기관을 잘 단속해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보호해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음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이유는 어리석음, 탐욕과 성냄 때문이다. 이중 우선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탐욕이 있으면 대상의 원하는 측면을 주로 보려고 하고, 성냄이 있으면 대상에 대한 좋지 않은 측면을 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상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현상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아차림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고 마음을 잘 보호하기 때문에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대상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편견이 없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알아차림은 모든 요리에 맛을 내는 소금과 양념처럼, 모든 정치적인 일을 잘 처리하는 대신처럼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선(善)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알아차림이 있어야 지혜가 계발될 수 있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tvN 엑소시스트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커버넌트대학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빙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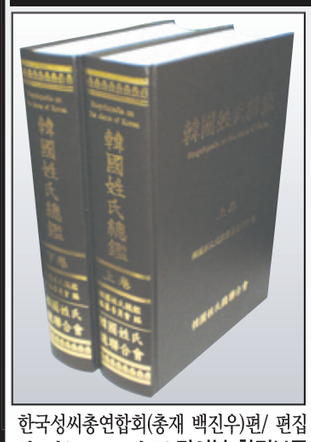
미국 스탠톤대학교 부설 최면연구소
한국최면과학원
http//:www.hypnos114.com

현재 접수중

대전(042) 222-0737
대전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도청과 대전세무서 중간지점)

각 집안내력을 한눈에!

한국성씨총감



범 거족적 기획에 의해
현존하는 총 867개 본관별 성씨의
시조 및 본관의 유래,
세계(世系)·분파도(分派圖),
항렬표, 인물, 유적,
종중행례·연혁 등을 총망라,
나와 우리 정체성의 혈연적
근거는 물론 장구한 씨줄
날줄상의 현주소를 가늠케 한
또 하나의 유산이 될
우리 가문역사 대백과!

한국성씨총연합회(총재 백진우)편/ 편집·감수 600여 위원/ 국배판/ 올컬러/ 전2권/ 3,400여쪽/ 잔여분 한정보급가 17만원(정가 250,000원)

"우리 민족사 형성의 지류라 할 나와 내 이웃의 성씨별 혈족사에 대한 폭넓은 식견함양과 함께 오늘의 나와 우리를 있게 한 구체적 발원(發源) 및 유래를 더듬어 앎으로써 각자가 점하고 있는 현 위상을 자각시켜 정체성 상실로 인한 몰(沒)인성화의 시대에 중심을 바로잡게 하고 자성을 촉발시키는 또 하나의 서슬퍼런 죽비가 될 수 있을 것" –조호현(출판인)–

"우리나라 모든 성씨의 연원과 열선조님들이 국가와 사회, 각 가문에 남긴 귀중한 사적(事蹟)을 한질의 책으로 수록하여 후세인들이 살아감에 귀감이 되게 하려 함은 높이 치하해야 할 일" –강영훈(전 국무총리)–

"각 종중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를 바탕 해 신뢰성이 매우 높고, 통계청 집계의 모든 성본을 망라했으므로 많은 분들이 비치해 종사(宗事)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이성무(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몰랐다. 이토록 확실한 완치법인 줄은!

신비한 벌침요법시술



흘려 지나쳤던, 미심쩍던,
그러나 현대과학에 의해 그 위력적인 치유 메커니즘이
속속 규명되어 마침내 동서의학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른 벌침요법의 경이로운 효능!
'어떤 질병도 반드시 치유법이 있다'는
고례(古來)의 명제에 닿아있는 순기능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천연의학,
그 천혜의 치유법에 관한 제대로 된 독보적 텍스트!!

교본1권+DVD4장으로 구성(질병별 최적의 시술법을 누구나 쉽고 정확히 배워 상용케 한 생생한 실감의 동영상 시청각 교재 및 교본)/ 강철형(대한벌침요법연구회장)편저 ※홍보특별보급가 14만원(정가 32만원)

"수많은 질병의 천적, 벌침! 따라 해보세요. 놀랍도록 낫습니다."

쉽게 건너기엔 너무 크고 깊었던 대하(大河) 팔만대장경!
그 무궁의 지혜와 진리, 쉽게 섭렵하기!!

쉽게 읽는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 조성 1,000년 기념 기획출간/
유종문 편/ 양장본/ 전2권(1권 : 대승삼장·소승삼장 편, 2권 : 보유잡장·팔만대장경해제 편)/ 총1,740여쪽/
※ 출간홍보 보급가 79,000원 [정가 96,000원(각권 48,000원)]

각종 과수·채소 병해충 방제 필수교본!

작물병해충방제도감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편/ 4*6배판/ 올컬러/ 530여쪽/
※할인보급가 68,000원(정가 85,000원)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검토 후 송금하시면 됨. 주문 : T.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호국영령에의 관심도 나눔결사

홍법사 홍법바라밀제, 조계종부산聯 순국경찰 추도, 지여원은 보훈장학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과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6월 6일 홍법사에서 봉행된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에서 기도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법석이 잇따라 엄수됐다.

홍법사(주지 심산, 동련 이사장)는 6월 6일 경내 잔디마당에서 '제21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화랑 스님,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김영종 경주동국대학교총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는 자승 스님의 법문과 유주무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는 천도재가 봉행됐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법석으로 매년 현충일에 개최됐다. 허공마지는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산화한 수많은 고혼들의 천도를 기원하고 현재의 중생을 자비로 이끄는 의미가 담겨있다.

홍법사는 해마다 홍법바라밀제를 기념해 신행과 포교에 앞장서온 불자에게 홍법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장학금 대신 육군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을 위해 홍법대상 상금 1000만원을 종단에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내가 이룬 모든 것을 국가와 사회, 불교에 회향하는 공심이다.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결사의 목적이기도 하다"며 "불심 강한 부산의 불자들이 앞장서서 신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한 불자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지 심산 스님은 "불교계에서 호국영령에 관심 갖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호국영령에 대한 불교계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서로 신뢰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행사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홍법사는 홍법바라밀제가 끝난 후 올해 '나라사랑'을 주제로 '제1회 호국의 숨결 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글짓기 대회에는 600여 학생들이 참가해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되돌아 봤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에서는 6월 8일 청사 앞 동백광장에서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열었다.

행사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전법도량 의장),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등 조계종부산연합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천도 의식을 봉행하고 순국경찰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부산 지여원(원장 남보터월)도 10일 화영신도시 내 현충공원에서 호국영령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한 행사를 열고 보훈 유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부모 그리는 스님의 마음 '훈훈'

가야사 '제5회 효도큰잔치' 성료

가야사의 효도큰잔치가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사(주지 정현)는 6월 3일 가야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500여 지역 어르신을 초청하고 '제5회 효도큰잔치'를 개최했다.



부산 가야사는 500여 지역 어르신을 초청하고 6월 3일 효도큰잔치를 개최했다.

주지 정현 스님은 "가야사로 출가한지 43년이 흘렀지만 항상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을 안고 있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어르신을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싶어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현 스님은 "가야동 일대에는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 여러 신도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통해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우리 지역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1.4%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어렵게 여생을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가야사의 효도큰잔치는 진구에서 열리는 경로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관에서 해야 할 복지행사를 사찰에서 열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가야사는 매년 6월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자비의 김장김치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연말 개소를 목표로 지역 아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교와 지역사회 간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일본 문학 속 불교 '눈길'

제(齊)의 유형과 선어, 명상과 심리치료, 화두 의심과 돈오견성의 상관관계 등 불교의 총체적 예술과 깨달음을 논하는 장이 열렸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김용환, 부산대 교수)는 6월 4일 부산 연산동 혜원정사(주지 원허)에서, '불교의 예술, 심리, 그리고 깨달음을 주제로 제1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장휘주 교수(서울대 국악과)가 제1주제 '제의(齊儀) 절차와 성격으로 본 제의 유형'을, 진명순 교수(영산대 국제학부)가 제2주제 '나쓰메 소세키 작품에 수용된 선어 고찰'을,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 자연치료학)이 제3주제 '명상과 심리치료 명상 프로그램'을, 박태원 교수(울산대 철학과)가 제4주제 '화두 의심과 돈오 견성의 상관관계' 등을 차례로 발표하고,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진명순 교수는 발표에서 "일본 작가인 나쓰메 소세키(1867~1916)는 청년시절 원각사에서 받은 화두를 참구하며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선에 대한 많은 내용과 선어를 다량 도입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매일 오후에 쓴 한시에서 솔직한 선 수행의 과정과 선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내용을 선어를 빌어 자신의 견해로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교수는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들은 선 수행과 정진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장이 된다. 또한 인생이란 대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와 마음의 본체를 깨닫기 위해 평생 정정진한 그의 선 사상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나쓰메 소세키는 그의 영정이 1000엔권 지폐에 새겨져 있을 만큼 일본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최고의 근대문학가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법문공부 가장 큰 행복"

박영병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제8대 회장



박영병(법명 경담, 63 · 사진) 교수가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6월 2일 부산 해운대 대광명사(주지 목종)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그를 향해 쏟아졌다. 박영병 교수는 합장한 채 눈을 지그시 감았다.

前 동국대 역경원장 무비 스님이 취임 법문을 위해 법석에 오르자 주머니에서 캠코더를 꺼내들고 스님의 법문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녹화했다. 자신의 취임식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큰 스님의 법문을 담기란 쉽지 않은 일.

"대덕 스님께 법을 청하고 가르침을 받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영병 교수는 1996년 부경대에 불교교수회를 창립했다. 교수회에서 부회장 소임을 맡았던 그는 서암 스님 초청법문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날 들은 법문은 며칠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선지식의 법문이 지식이 아니란 것을 실감했죠. 수행자의 기운을 받아 살아가는 이치를 어렴풋이 깨달았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참선에 든다. 1시간 여 참선과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박영병 교수는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노력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교수이기 이전에, 학생들이 참된 나를 찾아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감한 젊은이를 기르는 참 스승이 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대학생 불자는 한국불교 미래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잘 심어야 미래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자 대학생을 양성하지 않으면, 우리 불교의 미래는 어둡고 암울하게 변모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교수불자들이 바로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과 맑은 물, 태양과 영양분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대학생 포교의 발원을 부산불교교수불자회의 임기 내 목표로 삼았다. 대학생 불자의 육성을 위해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격조 높은 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법회에는 교수불자 뿐 아니라 제자인 대학생들과 함께 참여토록 해 신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재가자들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 풍토 확산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교수불자들이 가진 것은 지식을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만큼 재가불자들의 신행 생활에 있어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는 풍토 확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경전이 교과서라면 불법을 쉽게 서술한 경전해설서는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다. 교과서만 보고 알 수 없는 것도 백과사전을 보면 단박에 알아차리듯, 불자들이 책을 보고 불법을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는 풍토를 기르고 싶습니다."

22년 전 부산교수불자회의 창립은 부산 불교계에 혜성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고 교계와 사회는 소통의 부재로 위축되면서 수많은 신행단체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식지 않는 신심과 역대 회장단의 희생으로 부산불교교수연합회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왔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회장 직책을 맡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는 박영병 교수의 겸손함과 스님의 법문 앞에서 보이는 그의 열정과 용기가 부산 불교계의 새로운 위상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원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군청이 사찰토지 '무단 훼손'

사전 협의 및 사용 승낙 누락… 고창군 "실수 인정한다"며 사과

전북 고창군이 하천 정비를 추진하면서 토지주인 문수사(주지 선법)에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군은 2월경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최근 칠성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문수사에 사전 연락이나 토지 사용 승낙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

칠성소하천 정비 사실을 전혀 몰랐던 문수사는 2월 초 사찰 소유지에 측량표시를 위해 설치된 붉은 깃발을 발견했다. 그 때야 문수사는 하천 정비 사실을 알게 됐고, 고창군에 항의를 하는 등 시정을 촉구했다.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은 "공사 입찰 공고와 사업자 선정이 끝난 한참 뒤에 관련 공무원이 사찰로 찾아와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사 시행사 관계자가 토지수용 동의서를 받으러 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선법 스님은 2010년 연말 단풍나무 숲을 지키기 위한 '팜스테이 빌리지 조성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본지 제815호 보도). 스님은 지역 현안 사업에 문수사가 반대만 일삼는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문수사 스님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오해와 악성루머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면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선법 스님은 이러한 루머로 인한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선법 스님은 "고창군에 문수사와 신도, 마을주민, 행정기관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현명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자고 제안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민과 문수사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자체의 개발 논리에 무작정 사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호인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담당은 "사전에 문수사에 충분한 사업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수사 스님께 사죄드렸다. 현재 문수사 동의 없이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토지 강제 수용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이 하천 정비사업을 하며 파헤친 문수사 소유지

한편, 4억5000만원 가량이 투입되는 '칠성소하천 정비사업'은 1.1km에 이르는 칠성소하천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토지 1만 1879㎡ 중 문수사 토지 약 2479㎡가 포함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원 봉사와 포교 둘이 아니죠"

봉사와 포교에 일심전력하는 정별모, 모순영 부부



우리는 흔히 부부를 내외라 부른다. 남편은 바깥일을 책임지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는 역할분담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정별모, 모순영 부부(사진)는 아마도 내외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부일 것이다. 남편은 포교사로서 포교활동에 임하고 부인은 자원봉사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면 불자 부부로서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들 부부가 본격적으로 불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정별모 포교사는 종교를 물어보면 불교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찰에 가서 절 하는 법도 모를 정도로 속칭 무늬만 불자였다.

정 포교사는 "1990년 중반 친구들과 설악산 등산 중 신흥사에서 친구들이 절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본격적인 불교예절과 교리공부를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후 가족들과 함께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비로서 본격적인 불자 가족이 됐고, 포교사 고시에도 합격해 본격적인 신행활동과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익산의 마한거사림 부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부인인 모순영 불자도 남편의 영향으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리 지역 대표적 자원봉사 단체인 대원회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원회 회원들과 함께 매월 1인당 5000원씩 회비를 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총 32 가족에게 매월 김치와 돼지불고기, 오징어 젓갈무침, 멸치조림 등 반찬 3가지를 정성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군산교도소, 군부대 법당, 양로원 등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 및 간식 등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소외된 노인들의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는 봉사와 함께 2003년 5월부터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에 정식 등록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를 해주고, 장애인들을 돕는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원회 회장에 취임해서 봉사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각 종 불교행사에도 항상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이들 부부는 봉사란 시간이 남아 돌고, 살림이 넉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더 많이 봉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여주고 있다.

정별모, 모순영 부부는 "포교활동이 타종교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타종교의 눈부신 성장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신심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스님과 재가불자 모두 화합된 모습으로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할 때 불교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빵도 굽고, 일자리도 만들고

해남장애인복지관, '워킹맘 베이커리' 신설



이번 사업장에는 제과제빵 기술자 1명과 장애여성 4명, 장애아동부모 2명,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해 제빵 교육과 판매를 병행한다.

특히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제빵기술 외에도 매장 관리기술의 노하우도 전수받는다.

사업장을 준비한 관장 지웅 스님은 "워킹맘 베이커리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워킹맘 베이커리는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라남도와 해남군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해남지역 여성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해남군 지역사회공동체사업장 제1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땅끝마을 해남여성장애인들을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해남지역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사회공동체사업장인 워킹맘 베이커리가 6월 16일 해남읍에 문을 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웅)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여성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립형지역사회공동체사업 '워킹맘 베이커리'를 개설하고 교육에 나선다.

"이웃의 고통 함께 나눠요"

전북 포교사단 무료급식 봉사활동 펼쳐

전주 전북포교사단(단장 김진수)은 6월 9일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 처음 임용된 신규포교사들의 교육을 겸해 열린 이날의 봉사활동에는 10여명의 신규포교사들의 정성이 듬뿍담긴 음식을 어르신들께 대접했다. 또 전북포교사단에서 준비한 양말도 어르신들께 일일이 전했다.

이날 무료급식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한 김진수 단장은 "포교사들이 포교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포교의 한 방편이다"라며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포교사단이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6·25 희생자 추모, 불교계 나서

추도 사업회 발족… 대구 승불사 · 광덕사 등 참여

불교계가 중심이 돼 한국전쟁을 전후해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사업이 추진된다.

청도 승불사 주지 청호 스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청도지역 6 · 25 민간인 희생자 추도 사업회'는 6월 7일 청도군 각북면사무소 강당에서 대구 광덕사 주지 운성 스님(운영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추도 사업회 28명의 위원은 앞으로 청도지역의 정확한 민간인 희생자 규모 조사와 희생자 위령제,추모비 건립에 나서는 한편 국방부와 함께 유해발굴 사업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청도지역에서는 한국전행을 전후해 좌익혐의 등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6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고 유족들은 연좌제 등으로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야 했다.

청호 스님은 "늦은 감은 있지만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 청도에서 이념과 종교를 초월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을 전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054) 371-6389

손문철 대구지사장

노우 스님과 불교를 묻고 답하다
108개의 문답으로 명쾌하게 알아보는
불교의 최상승 교리들!

백팔문답요집
불교란 무엇인가

百八問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던지는 의문과 물음,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엄밀히 선정하여 문답 형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방대하고 복잡한 불교 철학과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 불교의 깊고 넓은 사유
세계를 보여주는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노우스님 저 | 신국판 변형 | 343쪽 | 15,000원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4〉
정진대사 긍양
(靜眞大師 兢讓; 878~956)

불법에 정진하되 명리에 매달리지 않는다

현대 한국불교의 진정한 출발점은 어디일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없지 않겠지만, 한국불교를 현실에 놓고 보았을 때, 그 출발점을 봉암사결사로 놓는 데 대부분은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봉암사결사가 이처럼 현대 한국불교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손꼽아야 할 것은 봉암사결사를 주도한 정신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것이 봉암사결사를 이끈 이들이 내건 정신의 핵심이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 한마디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60년 뒤의 한국불교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는 것에는 어김이 없다. 그리고 봉암사결사의 주역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터전을 잡았던 땅, 그곳이 바로 봉암사이며, 선문의 아홉 산 중의 하나인 희양산문(曦陽山門)이다.

애초 희양산 봉암사는 산문의 시조인 지증 도헌(智證道憲; 824~882)이 881년에 창건한 사찰이다. 하지만 산이 사방에 병풍같이 둘러친 곳이니, 도헌 스님은 봉암사터를 보고 "이 땅을 얻음이 어찌 하늘의 돌보심이 아니겠는가. 승려의 거처가 되지 않는다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곳이다. 도헌 스님 당대에는 사방에서 문하가 모여들어 일시 융성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후삼국 쟁패의 지경에 처하면서 전화를 입어 불타는 불운을 당하고 말았다. 국사의 탑비를 세운 것이 924년이고, 전화로 소실되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터전에 다시 찾아든 이가 바로 정진왕사 긍양이다. 긍양은 도헌의 제자인 서혈원(西穴院) 양부선사(楊孚禪師)의 제자이니, 긍양은 도헌의 법손이 된다.

이 3대에 걸친 사승은 모두가 중국에서 유학해 중국 선종의 법맥을 이어왔는데, 도헌은 북종선 신행(神行)의 계통을 이었고, 긍양은 남종선 청원 행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도헌이 창건하고 주석했던 봉암사터에 긍양이 도착한 것은 935년이었는데, 산 뒤의 절벽은 적도의 방화로 불탄 흔적이 남아있고 불전과 승방 자리는 가시덩쿨로 뒤엉켜 있었다. 도헌의 탑비와 도헌이 조성한 철불만이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을 향한 긍양의 진정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원래 이 희양산 봉암사는 사조(師祖)인 도헌이 창건하고 주석했던 곳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긍양과 크게 인연이 있었던 곳은 아니다. 긍양은 원래 공주의 토호 집안 출신으로 공주 남혈원(南穴院)의 여해 선사에게 삭발하고, 20세 되던 해에 가야산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다음, 곧바로 서혈원에 주석하고 있던 양부선사를 친견하고 제자가 됐다. 아마도 사승(師承) 간에 대를 입당유학했던 경험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900년에 중국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선사는 924년에 귀국할 때까지 20여 년간 중국 각지를 유력하며 남종선의 선풍을 배우는 등 배움을 거듭했다. 이때 스님이 주로 영향 받은 이 중의 하나가 바로 석상(石霜)의 법을 이은 곡산도연(谷山道緣) 선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운개회상(雲蓋會上)과 동산도량(洞山道場) 등을 두루 참방했다고 한다.

이처럼 긍양 스님은 출가 직후부터 유학시절에 이르기까지 거의 선종의 회상에서 공부하고 있다. 귀국 후에는 스승인 양부 선사가 서혈원에서 옮겨 주석했던 강주(康州, 진주) 백엄사에 일시 머물렀는데, 이 무렵 신라 경애왕으로부터 '봉종 대사(奉宗大師)'라는 별호를 받았다. 이 강주에 머물 때 긍양은 신라 왕실의 지원은 물론, 강주 지역을 유력한 호족이었던 왕봉규 등의 지원을 동시에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즈음이면 강주 지역은 고려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당시 유력한 대부분의 선승들이 고려 태조에게 귀부하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정치세력으로부터 대단히 자유롭게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혼란기에 누가 찾아와서 지원하든 개의치 않고 지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세간의 명리가 아니라 승려의 입장에 철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며, 당시 입당유학 후 귀국했던 선승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비교적 행보가 자유로운 부분이 많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안정되는 935년, 긍양은 백엄사 세력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화로 인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봉암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 봉암사에 정착한 초기를 비문은 "비록 산중에 고요히 앉아 있어도 위맹을 지역에 두루 떨쳤다. 조용히 마군을 항복하는 술(術)을 보이며 불교를 돕고 순화하는 공을 드날렸다. 개미떼처럼 모인 흉악한 도적과 뱀처럼 야합하는 역당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성품을 고치게 했으며, 난폭한 마음을 순화시키니 영토를 다투는 것이 점차 없어져 모두 평안하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 보물 제171호. 봉암사에 자리잡고 있는 고려 전기의 사리탑으로, 정진 대사의 사리를 모셔놓고 있다.

신라왕실과 지방호족의 도움 속 정진
고려왕실과 소원했으나 봉암사 기틀 다져
산중에 앉아서도 불교를 돕고 순화하고
철저한 지계 통해 출가자 본분 지켜

일시에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봉암사의 기틀을 다시 잡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이 당시 이 지역에 영향이 컸던 고려왕실과 인연이 깊은 충주 유씨 세력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936년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는 유력한 고승대덕들을 불러들였지만 긍양은 거기에서 빠져 있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고려와 후백제가 다투던 강주에서 신라왕으로부터 별호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니 고려 태조로서는 긍양이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긍양은 고려 조정의 조서를 기다리지 않고 개경으로 올라갔다. 궁으로 들어온 대사를 친견한 태조는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見而異之]"도 불구하고, 공경을 표하면서 숭불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태조는 대장경을 사경해 개경과 서경에 나누어 봉안하는 문제를 논의했고, 대사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 가까이 두려고 했다. 그러나 대사는 다시 그 청을 물리치고 봉암사로 돌아와 두문불출했다.

이후 혜종이 즉위했을 때 다시 대사를 초청했으나 산문을 나서기를 거부했다.

그런데 정종이 즉위했을 때는, 태조 때와 마찬가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발걸음을 개경으로 옮기고 있다. 광종 2년에는 왕의 초청을 받아들여 왕사의 지위를 받아들여 약 30개월 동안 개경의 사나선원(舍那禪院)에 머물렀다. 이 고려의 네 왕과 관련된 긍양의 특이한 행보를 이인재 교수는 대장경 연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한다. 태조와 논의한 문제가 대장경의 양도분치(兩都分置) 문제였고, 정종 때는 〈의희본 화엄경〉 8질을 전해받았으며, 사나사는 대장경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찰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흔히 고려불교는 호국불교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의 호국불교와 우리가 생각하는 호국불교는 차이가 있다. 고려의 호국불교는 왕과 조정이 불법을 수호하고, 그 수호의 공덕력으로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이 말하는 호국불교는 불교가 왕권에 종속된 불교, 곧 불교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두 관점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고려의 호국불교는 고려 초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긍양과 같은 승려의 모습에서 그 단초를 볼 수 있다. 세간의 명리가 아니라 불법에 정진하는 승려의 모습, 긍양은 그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았다. 그랬기에 법을 구하러 감에 있어서는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거침없는 행보를 내보였고, 세간의 명리를 구함에 있어서는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되돌아보지 않았던 것이다. 계율을 지켜 어그러짐이 없었기에 몸이 야위어서 세수하거나 목욕할 때 목욕통 속에 앉으면 물에 뜬 바가지와 같았다는 기록은, 과장일지라도 긍양이 계율에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준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1



정토종의 개조 호넨 상인
(法然上人 하)

호넨 상인의 정토이론은 어떠했을까. 호넨은 염불을 통해 극락에 머무는 삼매의 경지를 체득했다. 그리고 이를 먼저 체험한 선도가 〈관무량수경소〉에서 설함을 알고 선도야말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안내하는 선지식으로 확신하게 됐다. 호넨은 이처럼 정토교에 심취한 뒤부터 염불을 통해 얻는 삼매가 왕생의 정정업(正定業)이라고 설했다. 이 정정업이라는 것은 선도의 〈관무량수경소〉에서 왕생의 정인(正因)이라고 본 행업을 말한다.

선도는 왕생을 위한 행을 정행(正行)과 잡행(雜行)으로 나누고 다시 정행 5종을 2업(業)으로 나누어 그 가운데 칭명염불의 행은 아미타불의 서원에 의지하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라고 하고 나머지 경전의 독송, 아미타불을 상상해 떠올리는 수행인 관찰, 아미타불에 대한 예배와 찬탄공양을 조업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마침내 당시 정계 실력자 중 한 사람인 쿠조 카네자네의 요청으로 그의 필생의 사상이 담긴 〈선택본원염불집(選擇本願念?集)〉을 쓰게 됐다. 여기에서 그는 선도는 아미타여래의 화신이며 그가 쓴 〈관무량수경소〉는 아미타여래가 직접 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도야말로 서방정토로 안내
염불 삼매가 왕생의 지름길

이 〈선택본원염불집〉은 당시의 시대가 말법의 시기임을 설하고 있으며, 그러한 법멸의 시기 유일한 구제의 길은 자력의 성도(聖道)와 타력에 의지하는 이행도인 왕생정토의 길 중 후자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후반부에는 선도가 설한, 왕생을 위한 3종의 마음, 즉 지성심, 심신(深信), 회향발원심을 강조해 염불에 대한 신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더불어 말미에는 이 법을 해하는 사람이 악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번 본 후에는 벽장에 묻어버릴 것을 바라고 있다. 이는 호넨의 교설이 퍼짐에 따라 무지몽매한 무리가 자신의 문하를 어지럽히고, 진의가 왜곡되어 기존 교단에 의한 박해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로 드러나 대교단에서는 전수염불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정토종의 총본산 지은원(知恩院), 교토시(京都市)

1204년에는 천태와 진언의 교설을 파하여 제불보살을 비난하지 않겠다는 등의 자숙을 맹세하는 〈7개조 제계(七箇條制誡)〉를 정하고 제자들의 연명을 받아 천태종의 총본산인 연력사(延曆寺)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에 화엄종의 승려 묘에(明惠)는 〈최사륜(?邪輪)〉을 통해 전수염불의 과실 9조목을 들어 조정에 이를 정지시킬 것과 호넨을 비롯하여 제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타교단의 승려가 호넨의 제자가 되거나 조정의 관리와 무인들의 귀의가 늘어가자 1206년에는 기성 교단의 승려들이 이 신흥종단의 염불 전파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가할 것을 재차 고하였다.

당시의 권력가들은 호넨의 입장을 비호하였지만 결국 전수염불의 정지를 명령하지 않으면 안됐다. 이로 인해 1207년 염불정지와 함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제자들은 사형을 당하고 호넨은 멀리 유배됐다. 그는 다음 해에 사면되어 교토로 돌아와 정진하던 중 1212년 80세의 일기로 입적했다.

호넨의 일생의 행적은 당시 거대 교단 세력의 안락함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의 전환기에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법의 사명을 자각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범부중생들의 낮은 입장에 서서 구제의 방도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전심전력의 삶을 일관하였던 것이다. 호넨으로부터 시작된 카마쿠라 신불교의 선택의 정신은 비로소 민중에 대한 일본불교의 토착화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서막이기도 하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인생은 가도가도 끝없는 '파도'
본래 마음에는 하등의 문제 없다



봉은사 초청 법회,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에서 진행 중인 강주스님 초청 두 번째 법회가 6월 5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진행됐다. 두 번째 초청 강주인 부산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은 형식적인 공부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옮기는 불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법문 전문을 요약했다.

법문 듣는 복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청복(淸福)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고, 병 든 사람이 좋은 약을 찾고, 꿀벌이 꽃을 찾아 꿀을 모으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십시오.

오늘 법문을 형식적으로 듣고 가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한두 사람이라도 부처님이 남긴 도와 여래의 종자를 심어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을 듣고 난 후에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이익과 쇠망, 집착, 괴로움, 비방에서 자유로워 져야 합니다. 내리려면 바로 내리고, 타려면 바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큰 바다에는 자이언트 조개가 있습니다. 한 번 자면 1000년씩 잡니다. 1000년 자고 일어나서는 "파도 때문에 한 숨도 못 잤다"고 이야기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이언트 조개와 같이 졸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요. 너저분하게 껌처럼 달라붙어 사는 칙칙한 삶이 아니라 '이 순간' 벗어나야 합니다. 잠을 확 깨야 합니다. 눈과 귀는 법문을 들으라고 있는 것이지, 남을 헐뜯고 시비분별하고 우울증 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을 듣고는 환희에 차서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합니다. 법문을 듣고 당장 행복하다면 세세생생에 죽어서 가는 세 가지 괴로운 세계인 지옥도 · 축생도 · 아귀도 삼악도에 빠지지 않고 사람 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법문은 콩나물시루에 붓는 물과 같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즉시 다 빠져버리지만 콩나물은 잘 자랍니다. 오히려 물이 안 빠지면 콩나물은 썩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법문을 듣고 법왕루를 나가는 순간 지식적인 내용의 법문은 모두 다 잊으십시오. 지식적으로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살면서 실행으로 바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은 무엇인가

일체중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시시비비하고, 남 잘 되는 것을 못보고, 남이 자신에게 하는 나쁜 소리에는 잠시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지혜롭고 자비로워야하는데 왜 우리는 안될까요.

아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즉시에 행복해 져야합니다.

부처님은 성불한 뒤 "온 대지는 황금으로 덮여있는 것과 같고 온 나무는 보배의 가지로 이뤄져 있으며,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는 것 같다. 일체중생이 실유불성이라. 나와 불성이 다른 것이 없구나. 그러나 미혹한 중생은 업장이 두꺼워 자신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구나" 라고 합니다.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을 따라 왔으면 이제는 알아야 할 텐데 매일 잊어버립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불생불멸 불구정 부증불감(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이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희노애락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슬픔에 집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한 기쁨을 좋아하며 집착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입니다.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는 것, 즉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좋아도 좋아할 만큼만 좋아하고, 너무 싫어도 싫어 할 만큼만 싫어해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색증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色卽是空 空卽是色 色不異空 空不異色)' 이구나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은 경전은 읽지 않고 오직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며 남들을 찬탄할 뿐이었습니다. 상불경 보살이 "당신은 부처님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상불경 보살은 줄행랑 칩니다.

사실 도망가면 조금 쪽팔립니다. 하지만 상불경 보살은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 불법을 전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제 몸 속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부처님의 그릇입니다. 육신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상불경 보살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감이 떫은맛을 없애고 홍시가 되는 것처럼 업장이 다 소멸되면 불법을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몸에서 받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연 속에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 물은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나듯
> 법문 듣고 난 후 실행으로 옮겨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먼 시절부터 조각조각이 모여 사람들이 만들어온 말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말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마치 내 것 인냥 쓰고 있습니다.

마음도 세상도 그와 같습니다. 누가 만든 것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중중무진 연기로 이뤄져 만든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 돼 세상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물이 어떻게 잘났느니 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며 형식적인 것에 집착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집 덩어리는 우리 내면의 칠보탑을 보지 못합니다. 아집을 없애고 마음의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먹는 음식에서 오신채를 가려야 합니다. 둘째, 주변에 독하고 못된 사람,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원망하고 음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현실이 눈앞에 닥칠 때마다 정의감과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유연하게 사는 것과 연약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연약한 것은 야비할 수 있지만 유연한 것은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춰 살 수 있습니다.

신심을 일으키려면 탁한 음식을 먹지 말고, 잠을 조복하고, 말을 조절하십시오. 이 중에서 말 조절만 잘하면 성공 확률은 95%로 올라갑니다.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노스님(영암 스님)은 공양 받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음식 맛이 특이 하네요"라고 말합니다. 맛없다는 말 대신 이렇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쓰고 짠 음식에 대해서는 "야~ 이거 신기 합니다"라고 해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업장을 녹이기 위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보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신 · 육체적인 힘과 인연의 힘으로 모든 이에게 이익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시를 할 때에는 집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참회를 해야 합니다. 계를 잘 지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욕심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이 참회입니다. 지나간 일을 뉘우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다라니를 해야 합니다. 정진다라밀을 합니다. 정근을 하면 같은 것을 반복해도 싫어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몸에 새겨집니다.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고, 배고프면 밥 먹고, 봄 되면 꽃 피듯 자연스러운 것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작은 데에도 진실 되고 집중하게 되고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생깁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은 작은 축구공을 들고 진심과 진력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작은 공에 불과하지만 박지성의 노력이 공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박지성 선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에 대해서 좋아하고 작은 것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만든 사람, 길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영겁의 세월 속에서 내가 하나의 점을 이루며, 지금 당장 진실하고 정직하고 맑고 집착 없이 산다면 가지고 못가지고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됩니다.

마음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중고품이 되지 않는 마음, 만년이 지나도 당장 지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업장은 어떻게 해야 소멸 할 수 있나

〈천수경〉에는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百劫積集罪 一念頓蕩盡 如火焚枯草 滅盡無有餘)라고 합니다. '백겁천겁 쌓인 죄업이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마른 풀을 불태운 듯 남김없이 사라진다' 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백겁적집죄 기억들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업장이 돼 돌아납니다.

얼마 전 빈 라덴이 사살 당했습니다.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원한을 일으키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원한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자기가 안목을 열지 못하면 스스로 아귀지옥 무간지옥에 갇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코입귀가 진리를 말하고, 보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장 정직하십시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수행자도 부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근심걱정은 툭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은 가도 가도 끝없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정리=이상언 기자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 법사)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나의 대표작은 바로 내일 쓴 작품입니다

쌍산이, 보현이, 지장이가 먼저 손님을 맞았다. 이불재(耳佛齋) 싸리문을 들어서자, 나뭇잎이 바람결 따라 귀를 씻어내는 소리가 들린다. 박하사탕을 먹은 듯 바람은 코를 뚫고 푸른 산세는 눈을 씻어 냈다. 소리는 막혔던 가슴을 펑 뚫었다.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듣고 소설가 정찬주(60) 씨와 그의 아내인 도예가 박명숙(57) 씨가 싸리문 밖까지 손님을 맞으러 나왔다. 정찬주 씨는 작품을 쓰다가, 그의 아내는 도예 작업을 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초록색과 연두색의 생활한복이 잘 어울리는 부부는 겉치레 없는 인사를 건넸다.

소설가 정찬주 씨의 집필공간 이불재에서 5월 31일 만났다. 순천 쌍봉사에서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불재'는 쌍봉사의 암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에 자리 잡은 못에는 연(蓮)이 꽃을 피우고 태산목, 소나무, 해당화, 함박꽃들은 "알아서 자란" 모습이었으나 어느 것 하나 거슬림이 없었다. 꽃과 나무는 소유물이 아니었다. 부부는 그들을 함께 숨쉬는 동반자로 품고 있었다. "그들이 사는 곳을 잠시 빌렸기에 무엇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정찬주 작가의 생각이 펼쳐진 공간이었다.

2001년 정찬주 씨는 25년의 치열했던 서울 생활을 접고 쌍봉사가 보이는 순천으로 낙향했다. 논이었던 공간을 집터로 바꾸고 정성스럽게 집을 지어 올리고는 직접 귀를 씻어 불(佛)을 이루는 곳 '이불재'라 이름 지었다. 논을 집터로 만든다고 했을 때 동네 주민들은 걱정을 했지만 정찬주 씨는 명당을 찾아 터의 덕을 보려고 하기 보다는, 터를 잡아 사는 사람에 따라서 명당이 될 수 있다는 평소 지론대로 집을 지어 올렸다. 이제는 지나가던 사람들도 명당이라고 한단다.

온전하게 살겠다는 의지로 내려온 이불재에서 정찬주 작가는 소설 〈니르바나의 미소〉 〈인연〉 〈산은 산 물은 물〉 〈하늘의 도〉 〈대백제왕〉 〈만행〉 등과 산문집 〈암자로 가는 길 2〉 〈자기를 속이지 말라〉 〈선방 가는 길〉 〈돈황 가는 길〉 〈정찬주의 茶人기행〉 〈뜰 앞의 잣나무〉, 어른을 위한 동화 〈눈부처〉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정 작가의 집필은 나날이 왕성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정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쓴 〈무소유〉가 13만권 판매돼 불교계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의 작은 사찰 43곳을 순례하며 느낀 감상을 엮은 〈절은 절하는 곳이다〉, 법정 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떠난 순례기행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에 이어 본지에 연재했던 '정찬주의 행복한 선여행'을 엮은 〈행복한 선 여행〉을 6월 15일 출판했다. 집필 활동에 숨 고를 틈 없을 것 같지만, 그는 늘 여유로운 모습이다. 오히려 급한 쪽은 출판사였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전남 순천 이불재에서 만난 정찬주 씨

다작가(多作家)가 된 것 같다.

"책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하다. 이번 단행본은 조금 늦게 내려고 했는데 출판사 측에서 서둘렀고 나도 시절 인연이 그러한가 보다고 생각해 허락했다. 평생 책 100권을 쓸 계획이다. 지금도 다양한 글들을 써 놨다. 내년에는 인도로 가서 아쇼카 대왕의 루트를 따라가 글을 써 볼 계획이다."

수불 스님과 함께했던 선 여행은 어땠나.

"생생한 공안의 현장이었다. 선종 사찰 순례는 유적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활구법문을 하는 선지식이 없다고 하는데, 눈을 돌려 마조 · 백장 · 황벽 · 임제 스님이 계셨던 중국 선종 사찰을 가보니 선지식을 직접 만난 듯했다.

선어록을 책꽂이에 꽂아 두고 30년 동안 틈만 나면 바로바로 읽어 왔지만 선종 사찰의 순례에서 들은 선어록의 느낌은 굉장히 달랐다.

수불 스님은 한 · 중 수교 이후부터 70회 정도 중국 선종사찰을 다니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받아 온 것 같았다. 현장에서 듣는 수불 스님의 선어록 강의는 생동감을 넘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선어록 법문을 1000회 가량한 스님의 생생한 법문의 힘이 컸다.

선종사찰 순례는 승속을 불문하고 재가불자나 스님들이 그동안의 공부를 옛 선사들에게 침묵의 점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볼 것을 권한다. 순례 자체가 수행이다. 순례 중 자기 점검은 진짜 자기의 양심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스며들 한 치의 틈도 없다."

평소 집필은 어떻게 하나.

"저녁 9시에 자고 새벽 3~5시에 일어나 아침 공양 전까지 집중적으로 글을 쓴다. 공양 이후 오전 시간에는 아침에 썼던 글을 퇴고하고, 오후에는 손님을 맞이하거나 차를 마시고 약간의 농사일도 한다. 글 쓰는 것은 나에게 정진이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선방이나 법당에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일타 · 경봉 · 성철 · 법정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소설을 쓸 때에는 스님들의 가사 장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았다. 참 행복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스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돼 쓴 글은 독자들의 반응도 좋다. 독자들에게 행복한 기운이 전해졌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 전달 됐기 때문이라 믿는다. 저잣거리 사람들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내 행복과 불행도 지구 반대편 어디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다."

혼자서 수행자처럼 살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도 있었다. 처음에 내려와서는 벽에 호미를 걸어놓고 살았다. 농부들이 밭에서 일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경계의 표시를 두고 스스로 게으름을 멀리 했다. 또 일과표를 만들어 수험생처럼 O X 표시로 정확하게 체크하며 살기도 했다.

25년 넘게 서울에서의 치열한 삶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잣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아,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불재를 찾는 이가 많다던데, 집필 활동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독자들이 있기에 내가 있다. 오히려 감사하다. 지금 입고 있는 생활 한복도 독자들을 위해 입기 시작했다. 이불재에 내려 와서 4년 정도는 캐주얼 복장이었는데 독자들이 "작가님은 이런 복장인줄 알았는데"라며 실망하기에 생활한복으로 바꿔 입기 시작했다. 독자들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양복을 입었을 때를 떠올리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진다. 습(習)이 떨어지면 생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불재는 글을 쓰기 위한 작업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농사를 지으러 내려온 것도 아니다. 은거는 더욱 아니다. 은거는 내 성장에 맞지 않는다. 인도 브라만 계급에는 임간기(林間期)가 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사회에 일정 부분 회향을 한 후에 자연 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기간이 있다. 남은 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온 것이다."

그럼 글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글은 내 삶이고 소통의 수단이다. 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쓴 적은 없다. 내가 알고 싶고, 쓰고 싶은 것을 썼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읽어주면 금상첨화고 읽어주지 않으면 '시절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호응이 없다고 해서 초조해진적은 없었다. 나는 계속 글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것은 수행이다. 오늘 수행이 시원찮다고 해서 다음날 수행을 포기하지 않듯이 계속 쓸 뿐이다. 순일하게 이어질 때 수행의 의미가 있다. 글 쓰는 작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대한 강박관념도 없다. 내일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늘 '나의 대표작은 내일 쓴 작품이다'라는 마음으로 써내려갈 뿐이다. 이불재로 내려 온 후 세속과는 멀어졌지만 자연과는 가까워지고 건강, 집중력도 좋아져 글 쓰는 분량이 서울에서 비해 조금 는 것 같긴 하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내인 박명숙 씨는 다과를 준비해 차리고 대화도 함께 나눴다. 아내는 정찬주 씨를 "글 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매일 새벽 쌍봉사에 가서 108배를 하고 작업실에서 수불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닦는다.

집터 한 쪽에는 아내 박명숙 씨의 작업장과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다. 박 씨는 이번 선 여행에도 동행을 했다. 동행 후 박명숙 씨는 수불 스님의 법문을 직접 녹취하고, 오탈자도 확인한다고 한다. 함께 수행하는 이상적인 부부상이다.

불교와의 인연은.

"동국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다. 신심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취향이 맞아서 다녔던 것 같다. 대학 시절이었던 1970년대에는 데모가 잦아 학교생활이 거의 힘들었다. 습작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친척의 소개를 받아 쌍봉사로 오게 됐다. 그때는 폐사 직전의 사찰이었는데 주지스님과 공양주 보살, 나 이렇게 세 명이 다였다. 어느 날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 어깨며 손바닥에 앉은 먼지를 닦다가 미소를 짓는 부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됐다. 그 미소가 지금의 나에 이르게 했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갔을 때의 세계에서 짓는 미소라고 느껴졌다. 한 순간의 느낌에 전율이 흘렀다. 마치 내가 살 길을 찾은 것 같았다. 마음이 참 풍요로웠다. 습작을 위한 길이었으나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쌍봉사를 떠나며 작가로 성공하면 반드시 쌍봉사 중흥에 일조하겠다고 생각했다. 대학 졸업 후 상명대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조계종에서 〈불교사상〉 창간한다는 공고를 보고 쌍봉사에 진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교편을 놓고 직장을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했다. 월급은 반으로 줄고, 매일 12시까지 죽도록 일했지만 그때 불교 서적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다. 정말 재미있었다."

정찬주 씨는 이후 월간지 '샘터'사에서 일을 하면서 〈샘터〉에 칼럼을 연재하던 법정 스님을 만나게 된다. 법정 스님은 정찬주 씨의 은사로 1991년 그에게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직접 지어주고 오계를 내렸다. 법정 스님의 일대기와 수행처를 따라가 쓴 그의 글들은 스승을 그리는 제자의 마음이 담긴 책인 것이다. 정찬주 씨는 지금도 스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먹해진다며 다양한 사연을 소개했다. 한 번은 "가정방문 한 번 가겠다"며 법정 스님이 직접 이불재에 찾아온 이야기며, 제자를 위해 따뜻한 내복을 선물해 준 이야기, 두 딸이 학교에 입학할 때 일기장을 선물해 준 일을 떠올렸다.

도시 생활과 이곳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유지가 되는 것은 리더 몇 명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려지지는 않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아름다운 저 산을 보라. 한 두 그루의 나무가 꾸민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무가 저 속에 어우러져 화엄의 세계를 이루고 있기에 산이 아름다운 것이다. 밤하늘이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다. 내가 알고 있는 몇 개의 행성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별들이 제자리에서 반짝거리고 있기에 아름답더라.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은 잠을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깨어 있으라고 반짝이는 것이라는 것을 산 속에 있으면서 알게 됐다. 어렵지 않은 것을 여기 와서 나 알게 됐다.

서울 생활을 할 때는 백과사전 속 남의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곳에서는 생활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됐다. 또 자연 속에서 살다보니까 화내는 마음, 남의 지식이 내 것인 냥 착각했던 어리석음, 욕심내고 집착했던 마음이 바람에 땀이 식듯 저절로 사라지더라. 예전에는 비분강개파였다. 억울한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는 없다. 이불재로 온 것은 잘한 것 같다. 인생에 있어 내가 선택한 것 중에서 내가 잘 한 일로 꼽을 수 있다."

불교를 소재로 하는 작가가 많지 않아 보인다. 후학 양성의 계획은?

"불교를 소재로 글을 쓰는 일은 상상과 감각만으로는 어렵다. 불교적인 지식을 인생에서 녹여 내야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경전을 여러 권 읽고, 공부해야한다. 후학을 양성할 계획도 있지만 당분간은 작품 활동에 몰입할 계획이다."



소설가 정찬주 씨(오른쪽)와 그의 아내인 박명숙 씨가 사랑방 '무염산방(無染山房)' 앞 툇마루에 다정히 앉았다.

법정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법정스님의 빠삐용 의자

스님의 수행처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 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홀가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 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신간

그대 만의 꽃을 피워라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그대 만의 꽃을 피워라

정찬주의 마음기행

문의 (02)3144-3700 | www.Yolimwon.com 열림원

해는 서쪽 산을 넘고 달마의 그림자는 동쪽으로 간다



❾ 영천 운부암(雲浮庵)

소나무 숲을 지나 오르막길을 오르자 연못 속에서 목탁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이는 물결 속에 법당이 있고, 파란 하늘을 품은 연못 위에는 따뜻하고 오래된 눈동자의 달마 스님이 서 있다. 보화루를 바라보며 작은 돌계단을 오르면 운부암이다.

조계종 은해사의 산내 암자인 운부암은 711년(신라 성덕왕 10)에 의상 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절을 지을 때 상서러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운부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몇 차례의 화재로 인해 전소와 중건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이미 '문자'를 떠난 지 오래인 편액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운부난야(雲浮蘭若)', 문자로는 읽어낼 수 없는 공간이다. 운부암 선방의 당호다. 난야는 아란야(阿蘭若)의 준말로 적정처(寂靜處), 무쟁처(無諍處)를 뜻하며, 수행하기 적합한 곳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이곳 운부암은 많은 선지식이 거쳐 갔다. 경허, 만공 스님으로부터 용산, 운봉, 경봉, 향곡, 한암, 팔봉, 청담, 성철 스님 등 많은 선지식들이 정진했다. 특히 성철(性徹 ; 1912~1993) 스님과 향곡(香谷 ; 1912~1978) 스님은 이곳에서 만나 평생 도반이 됐다.

스님 한 분이 마당을 거닌다. 말없이 서있는 석탑을 바라보며, 걸었던 발자국 위를 걷고 또 걷는다. 먼저 걸어간 선지식의 발자국은 어디 쯤 있을까. 석탑이 스님을 바라보고, 스님은 다시 선방에 든다. 열린 선방 문에서 죽비 소리가 들려왔다.

볼 수 없으나 남아있는 그들의 이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의 하루를 용서해줬고,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시간은 값있게 흘렀다. 석탑처럼 흔들리지 않고 마당을 걸었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돌계단을 내려왔다.

흔들리지 않는 석탑처럼 서고 싶다면 운부암에 가볼 일이다. 불러보는 것만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이름들이 거기 있고, 서성이는 것만으로 앞서간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운부난야의 마당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해는 서쪽 산을 넘고 연못 위에 서있는 달마 스님의 그림자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연못에 비친 운부암 전경



운부암 선원 운부난야



절입구 연못의 달마 스님 입상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辛卯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천우종

나의 미술사 방법 권 영 필(상지대 초빙교수)



미술사(美術史)는 영어로는 History of Art 이다. 미술 작품을 연구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더듬는 학문으로 회화 · 조각 · 미술 · 건축 · 공예 등을 모두 포괄한다. 우리나라에는 미술사란 개념이 해방이후에 들어 왔을 만큼 국내는 1960년대 까지도 미술사의 불모지였다. 권영필 교수는 일찍이 1996년부터 국립 박물관의 학예사로 근무하면서 한국미술계를 이끌어 왔다.

6월 4일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제17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미술계를 이끌던 권영필 교수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권영필(상지대 초빙교수)는 '나의 미술사 방법' 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어떻게 미술사학을 접하게 됐는지와 최근 연구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 에 대한 내용이었다. 권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한 개인의 여정이 후학들에게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필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 후 파리 퀼른 대학교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1969~1978년 국립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로, 1999~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로 재직했다. 2007년부터 상지대에서 강의 중이다.

정리= 천진영 기자



문명은 충돌하지만 동시에 미술을 통해 화해한다

나의 50년 미술사 학습기

제 연구의 본령은 실크로드 쪽 이지만 이번에는 아직 한 번도 밝혀보지 않은 저의 미술사학 학습기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어떻게 미술사학을 접했고 그 이후 과정들은 어떠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학습기라고 생각하는 제가 한 개인의 이력에 불과한 것을 발표 한다는 것이 걱정도 되지만 저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년 전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해 2학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한국미술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상당히 특이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준비된 텍스트도 없이 분필만 들고 오셔서는 칠판은 3번 쓰곤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원전을 그대로 외워서 칠판에 그대로 옮겨 적는 그 분의 강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미술사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불교미술사입니다. 회화도 일부 들어가지만 불상이 많고 불교건축, 탑 등이 대부분입니다. 저의 한국미술사와의 만남은 불교미술로 시작됐고 저의 첫 리포트는 불상연구였습니다. 학생 때 과제를 받아 서울 봉은사에 가서 불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무밭, 배추밭, 소나무 숲을 지나야만 봉은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진 사람이 한반에 한두 명만 있던 시기라 불상은 연필로 스케치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년 초 저의 미술사 공부가 시작 됐습니다.

동양미술 1강은 한문강독 시간이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화론에 관한 것인데 교수님이 중국 원전을 손으로 직접 옮겨 쓰시고 복사한 것이 수업 프린트 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 미술사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했기 때문에 서양미술사를 배울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시중에 출간된 서양미술사 책은 10권이 채 되지 않았고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로지 교수님이 일본과 유럽에서 배워온 이론과 철학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철학 중 훗설(E. husserl)의 감각론에 대해 배웠는데 학생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사전만 계속 들여다 봐야하고 시간만 많이 잡아먹어 철학시간이 싫었습니다. '미술사와 독일철학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생각에 짜증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연구를 계속해 오면서 그때 공부한 원론적인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 보며 어렵게 공부한 철학
> 지금껏 미술사 연구에 큰 도움

1969년 임시직으로 국립박물관 학예 보조사로 임용됐습니다. 월급이 9400원. 책 두세 권 사면 끝나는 월급입니다. 제가 좋아서 갔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만 박물관에서의 경험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미술사 연구의 1차 자료는 박물관입니다. 진열장에 놓고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보는 것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복구도 하고 연구도 하니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불화조사' 사업을 맡았습니다. '고고미술 동인회 한국미술 사학회' 의 전신을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1969년 송광사 불화조사가 아마도 나라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가 진행 된 것으로는 최초 일 것입니다. 첫 학술 조사사업은 송광사를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연구 결과 1970년대 〈한국의 불교불화와 송광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돈황 석굴에 직접 가지 못한다면 연구도 안 된다

다음은 파리 유학시절입니다. 유럽의 학풍은 어떠냐고 지금도 물어오는 후학들이 있습니다. 많이 변하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의 학풍은 합리주의 철학이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동시에 강한 비판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황에 대해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지도교수님이 돈황에 직접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과 중국은 수교가 안돼 방문 허가가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 끝내 비자가 나오지 않자 교수님은 돈황 석굴에 가지 못하면 이 연구를 더 진행 시켜 줄 수 없다고 해 주제를 바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것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아주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배경의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용의 미학 흉노미술

흉노에 무슨 미술이 있느냐 예술이 있느냐 하는 의식들이 팽배합니다. 생산하는 것도 미술영역이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향유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미학입니다.

60년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한 지휘자가 "한국에는 오케스트라가 없는데 베토벤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없던 시절에도 베토벤의 음악은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 받았습니다. 이처럼 흉노가 미술품을 만들지는 못했어도 그 미술품을 보고 즐기는 능력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신숙주 문집 〈화기〉에 따르면 안평대군은 중국 그림들을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그림에 견줄만한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는 국내에 없었지만 좋은 그림을 보고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 미술은 극한상황 속에서도
> 감동을 주어 화해를 일으킨다

미학은 미적 상상력입니다. 체계화되고 정리된 상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상이나 또 다른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배경까지 고려하며 미술을 보는 연구도 있지만 순수하게 미학적 접근하는 연구 방법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돈황 연구는 미학적 연구가 아직 덜된 불모지 입니다.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

일본의 예수교 탄압과 양풍화 보존

처음 서양 종교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대립되고 충돌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몇 만 명에 이르는 종교인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명은 처참하게 충돌했지만 서양 종교와 함께 유입된 미술 화풍은 그대로 인정되고 융화됐습니다. 심지어 서양화가들의 작품이나 양풍화들이 사찰 서고의 서책들 사이에 혹은 법당의 천장에 보존돼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불잡혀 가지 않으려고 예수 성상을 그리던 화가들은 달마상을 그리기도 했으며 내용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뀐 내용에도 불구하고 화풍은 서양화 그대로 유지 되었습니다.

중국에 간 어떤 선교사는 서양 물감을 가지고 중국화를 배워 중국화를 그렸습니다. 18세기에 종교 탄압 속에서도 황실의 화원에서 그 그림만큼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종교는 탄압되면서도 같이 들어온 미술 문화는 왕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명맥을 유지 발전 시켜나갑니다.

기원전 서아시아 그리핀 고구려에도 영향줘

그리핀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를 가지고 뒷다리와 몸은 사자인 상상속의 동물을 말합니다. 그리핀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돼 이란으로 전파되고 이것이 흉노로 들어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전파 과정은 전쟁이라는 심각한 여건 속에서도 미술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점은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스키타이에서도 그리핀을 중요한 문장으로 채택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또, 문명의 불모지로 여기는 흉노에게서 중국이 그리핀문양을 전해 받은점도 특이합니다. 이 그리핀 문양은 고구려 벽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구려 벽화의 동물이 최초의 서유럽의 문명이라고도 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마찰을 승화시키는 미술의 힘

제일교포인 서경석 씨는 불문학을 전공한 학자로 〈청춘의 사심〉을 통해서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본 감상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일본의 그림의 볼 때 왜정시대 일본을 용서 할 수 없지만 작품을 볼 때만큼은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일본 작가라고 하면 그 그림 자체도 다 싫어야하는데 그림을 감상할 때는 빨려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미술 작품의 이율배반적인 효과를 체험했음을 말했습니다.

철학자 박이문 씨 역시 "미술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우주 전체 속에서 화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고 말해 미술 작품의 화해의 기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은 일어나지만 예술작품을 통해서 동시에 화해의 요소를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엇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6〉

탐진치 벗어나야 진짜 출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출가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찌 노승과 같은 사람을 보겠는가?"

問 如何是出家
師云 爭得見老僧

출가는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마음에서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출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머리를 깎고 염의(染衣)는 입었으나 마음에서 삼독과 번뇌가 여전히 치성하고 옳고 그름이 있다는 분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직 진정한 출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출가를 평범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 즉, "출가란 다만 집을 떠나 나와 같은 노인을 보는 것일 뿐이야"라는 뜻으로 말했다. 출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든 행복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고 번뇌를 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출가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출가자이든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불타와 조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락된 곳이 없는 것이니라."

問 佛祖不斷處如何
師云 無遺漏

부처님이 불법을 전한 이후 2500여 년이 지났고, 유신론을 믿는 종교가 세계적으로 크게 전파됐지만, 지금까지 불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조사에서 조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어째서 그러한가? 불법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원래 누락된 곳이 없고 끊어진 곳도 없다.

깨달은 자 만이 깨달음 안다
사는 것과 달리 깨달음은 체험

때문에 사람이 있는 이상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부처도 있고 불법도 있게 마련이다.

학승이 물었다.
"근원(本源)에 대해 노스님께서 지시하여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근원에는 병(病)이 없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깨달음(了處)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깨달은 사람이 안다."
학승이 말했다.
"그러할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 줘봐."

問 本源請師指示
師云 本源無病
云了處如何
師云 了人知
云 與麼時如何
師云 與我安名字著

근원은 만법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곳은 형체가 없고 이름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곳은 마치 허공과 같이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곳은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곳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 따라서 병(病)도 없다. 그곳은 원래 무병(無病)이고 고요하고 밝고 쾌활한 기상만 있다. 사람에게 그 근원이 있다.

무엇이 깨달음인가? 그것은 깨달은 자만이 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경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는 것과 깨달음은 다르다. 아는 자는 가볍게 알지만 깨달은 자는 깊게 체험한다. 아울러 매사 담담하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정신세계는 어떠한가? 이름이 없고 형체가 없는 그 곳에 당도한 자는 사람이 거듭 새로 태어난 것과 같다. 세상이 한 없이 고요하고, 시간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나고 줄어듦도 없다. 사람들은 이미 구원되어있고 불국토가 이미 완성되어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도 좋을 정도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⑮ 심외무법(心外無法)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通玄峯頂 不是人間 **心外無法** 滿目青山(통현봉정 불시인간 **심외무법** 만목청산)

통현봉 꼭대기는 인간세상이 아닌데, **마음 밖에는 법이 없으니** 눈에 가득 온통 푸른 산이네. - 천태덕소(天台德韶)

通: 통할 통
峯: 봉우리 봉
頂: 정수리 정
滿: 찰 만

청계무심
우미법외
춘
일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해제 47 한국선과 선어록 18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김시습의 불교사상을 담은 책

조선조 중기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서울 성균관의 북쪽에 해당하는 반궁리에서 태어났다.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단종의 폐위 소식을 접하고는 출가했다. 23세 무렵에 경주지방을 지나는 도중에 오도(悟道)했다. 법화경의 역경에 동참하고, 34세 이후 금오산에 6년 동안 기거한 인연으로 이후 〈금오신화〉라는 소설집을 엮었다. 이후 37세 무렵에는 수락산에서 10여 년 동안 은거했다. 이후로 〈연경별찬(蓮經別讚)〉, 〈화엄석제(華嚴釋題)〉, 〈일승법계도주병서(一乘法界圖註并序)〉(42세),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41세) 등을 저술했다. 57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 들어갔고, 이후 충청도 홍산 무량사에서 병석에 누워 59세(1493) 봄날 입적했다. 김시습은 스스로 설잠(雪岑)이라는 법명을 사용했다. 그밖에 매월당(梅月堂) · 청한자(淸寒子) · 동봉(東峰) · 벽산청은(碧山淸隱) · 췌세옹(贅世翁)으로 불렸다.

〈연경별찬〉의 서문에서 김시습은 〈법화경〉에 대한 글자상의 이해를 넘어서 선적인 이해를 중시했다. 특히 연년시호년(年年是好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의 일상성을 강조한 조사선의 가풍을 노래하기도 했다. 나아가서 〈화엄경〉에 대한 안목으로는 〈일승화엄법계도주〉와 〈화엄석제〉를 통해 의상화엄의 전통을 선적인 입장으로 승화시켜 구현했다. 이것은 낙산사에서 〈화엄경〉에 대한 강의를 들은 이후로부터 그의 심정을 시로 토로하면서 〈화엄경〉을 제일의 가르침으로 찬탄하기도 했다.

조동종의 선풍을 유려한 시풍으로 풀어내
동안상찰 〈십현담〉에 대한 주석서 성격 지녀

그러나 김시습의 불교사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선의 조동종 가풍을 유려한 시풍으로 풀어낸 〈십현담요해〉이다. 〈십현담요해〉는 동안상찰의 〈십현담〉에 대한 일종의 주석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십현담〉의 저자 동안상찰의 법계는 육조혜능의 제자 청원행사 - 석두희천 - 약산유엄 - 도오원지 - 석상경제 - 구봉도건 - 동안상찰로 이어진다. 동안상찰 선사는 많은 신라승들과 함께 교류가 깊었던 인물로서 소위 조동가풍의 종지에 대해 7언율시의 형태로 종문의 종지와 수행납자의 실천강령을 노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주석서인 김시습의 〈십현담요해〉는 〈십현담주〉라고도 불리우는데 달리 〈십현담가명법어〉, 〈십현담불능어〉, 〈십현담주석〉, 〈십현담접취〉 등 역대의 주석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다.

〈십현담〉은 조동종의 개조인 동산양개의 동산오위(洞山五位)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열 가지의 조항에 대해 율시의 형태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곧 심인(心印) · 조의(祖意) · 현기(玄機) · 진이(塵異) · 불교(佛教) · 환향곡(還鄕曲) · 파환향곡(破還鄕曲) · 회기(回機) · 전위(轉位) · 정위전(正位前)이다. 이 가운데 앞의 5항목은 조동종문의 종지를 현창한 것이라며, 뒤의 5항목은 수행납자들이 주의해야 할 실천덕목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대시대에 법안문익(885~958)이 주석을 가하여 〈십현담청량화상주(十玄談淸凉和尙註)〉를 찬술했다. 이것이 해동에 전래되어 설잠(1435~1493)에 의해 다시 〈십현담요해〉로 찬술된 것은 1475년 41세 때이다. 설잠은 용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논했다. 곧 심인(心印) · 조의(祖意) · 현기(玄機) · 진이(塵異) · 연교(演教) · 달본(達本) · 환원(還源) · 회기(廻機) · 전위(轉位) · 일색(一色) 등이다. 〈십현담요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십현담요해서(十玄談要解序) : 1475 청한자 필추 설잠이 폭천산에서 주를 붙임.
○ 오파원류도(五派源流圖) : 오가의 종파는 모두 방편이라 함.
○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 청량문익이 동안상찰의 {십현담}에 붙인 주에 다시 조목조목 열경설잠이 해석을 가함.
○ 부록으로 '조주삼문趙州三門' 곧 [문수면목(文殊面目)] · [관음묘창(觀音妙昌)] · [보현묘용(普賢妙用)] 등과 [십현담음의(十玄談音義)]를 수록함.

십현(十玄)에서 현(玄)이란 그 뜻이 현오(玄奧)하고 현미(玄微)하며 현묘(玄妙)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십은 열 개의 게송으로써 그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십이라 한 것이다. 십현이란 화엄종에서 자세하게 설하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십현연기 모두 무애자재하고 일다즉입하여 영원히 삼승의 영역을 초월하고 일승의 구덕을 나타냈다. 또한 십현연기의 십현이라는 용어를 취해 오위(五位)의 종취를 표현하려 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용어는 어느 하나의 의미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것은 삼승(三乘)이나 일승(一乘)이나 무승(無乘)이나 간에 구분이 없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설잠의 〈십현담요해〉는 동산오위에 근거한 동안상찰의 〈십현담〉이 지니고 있는 오위의 사상을 이어받아 전했다는데서 그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기존의 〈오위송(五位頌)〉을 하나로 엮어 거기에 주석을 가하고 〈조동오위군신도(曹洞五位君臣圖)〉에서처럼 도해를 곁들인 점은 당시 조동선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오위의 실천적인 측면을 긍정하여 파악하려 한 점을 엿볼 수가 있었다. 조동선법 특히 오위사상에 대한 설잠의 노력은 자칫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에만 치우치기 쉬운 동산과 조산으로 대표되는 조동교의의 몇 가지 기관(機關)에 대해 실천적인 선수행의 역동성을 모색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빛 살림
정골요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 · 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 제2010-서울성동 0204호 ·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

법정 장학생으로 다음 생에 더 좋은 공부 하렵니다



다행히 이창숙 박사(72)는 그 사건 뒤로 일을 가려서 했기 때문에 사찰을 덜 받았기에 자료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는 회람을 등사판에다 밀었잖아요. 74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2005년엔 이미 30년이 넘었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책장에 넣어뒀던 걸 꺼내니까, 종이가 바스락 바스락 하더라고요."

2005년 한 해 동안 준비모임을 가지고 관계되었던 바깥사람들 회상에 노조 발기인들이야기와 사건 일지를 모아 책을 엮었다. "쓰기가 어렵더라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일을 쓰면 되지.'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때 마음으로 쓰면 지금 마음이 아니고, 지금 마음으로 쓰면 그 때 그 마음이 또 옅어져요. 서른 몇 살 때 일어난 일을 육십이 넘어서 30년도 지난 일을 쓰는데 무슨 열이 나겠어요. 지금 마음자리에서 보면 지난 느낌이 거짓말이 되고, 그때 심정을 살리면 지금이 너무 우습잖아요. 절충점을 찾는 일이 힘들더군요. 그래서 '정직하게 쓰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1974년 겨울-유신치하 한국일보 기자노조 투쟁사〉 (출판사 미디어집) 출판기념회를 12월 12일에 가졌다. 노조지부장을 맡았던 이 박사가 인사말을 했다. "…모순을 고쳐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설사 달걀로 바위 깨듯이 어리석은 시도일지라도, 하지 않을 수 없이 밀어내는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합니다. …저는 이미 그 시대 일과 화해를 했습니다. 다 소화되어서 찌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

> 그 때 마음은 지금 마음이 아니고
>
> 지금 마음은 그 때 마음이 아니다

개인 화해가 어찌되었든 우리가 했던 일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 언론 투쟁을 말하지 않고, 오늘날 언론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놓는 이 책은 모자라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책장에 그냥 꽂아놓지 마시고, 읽어주십시오."

"불일암이 거의 마무리되어갈 때, 친구랑 같이 가서 청소를 해 드렸어요. 마루도 닦고 창도 닦고 그랬더니 구산 스님이 올라와서 보시고는, 보살들이 청소를 한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갸륵하다면서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좋은 공부를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끝에 법정 스님이 그러셨어요. 다음 생이 반드시 몸을 바꾸는 다음 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짜 그 공덕으로 불교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법정 스님이 불일암을 짓고 내려가면서 봉은사 다래헌은 성철 스님 상좌 원정 스님이 잠깐 살다 해인사로 떠나고, 돈연 스님이 썼다. 이창숙 박사 일행은 법정 스님이 안 계셔도 봉은사 다래헌을 고향처럼 찾다보니 자연스레 원정 스님이나 돈연 스님을 알게 되었다. 그 뒤 해인사에서 우연히 이창숙 박사를 만난 원정 스님은 노장님을 뵈러가자고 했다. 노장님은 백년암에 계시는 성철 스님을 가리키는 말씀. 그때 성철 스님은 "여기 삼천배해야 들어오는데 니는 외상으로 왔다잉."하며 말씀을 꺼냈다. 그 말씀에 이창숙 박사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네 알아요. 제가 외상 갚을게요. 스님."하고 말을 받았다. "성철 스님이 '그래 갚아라.' 그러시면서 '니는 절에 왜 다니노?'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절하러 다니죠?' 그러니까 '니는 아는구나.' 그러더니 '몇 번 하노?' 그러세요. '세 번 하죠.' 그랬더니 또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와, 세 번 하노? 한 번이면 되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 왜 세 번을 하지?' 싶었어요. 거기서 딱 막히더라고. 한 방 맞았죠." 1·2차 관문은 통과했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막혀버렸다. 이창숙 박사, 백년암에서 내

> 다음 생이란 꼭 몸 바꾸는
>
> 다음 생을 뜻하지 않는다

려오면서 절에 다닌다고 어물거리다가 세월 다보내고, 육칠십 되었을 때 한 방 맞았으면 어쩌겠나. 지금 서른 몇 살에 맞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었다.

"법정 스님은 제게 무슨 기도를 하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성철 스님을 뵈면서 삼천 배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 법정 스님이 간절함이 담기지 않은 절은 그저 '굴신운동' 일뿐이라는 글을, 아마 불교신문에 쓰셨을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성철 스님을 따르는 스님들이 법정 스님 방으로 몰려가 스님이 아끼던 백제와당을 박살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원정 스님이 저를 법정 스님한테 다니는 신도라고 소개시켰어요. 그러자 성철 스님이 대뜸 '그래, 법정이가 직필直筆이제!' 하셨어요." 직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쪽처럼 올곧은 글을 쓴다는 말씀이다.

이창숙 박사, 그 뒤에 인연 따라 석남사엘 가서 삼천 배를 했다.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을 뵈었는데 스님이, '얘기 들었다. 석남사 가서 절했담서?' 그래서 '네, 스님 빚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불경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니 공부 끝나고 마, 포교사해라.'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서 불명을 주셨어요. 일화선一化船이라고. 반야선般若船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쓰지도 못했어요. 83년에 받았으니까 한 30년 되어가는데, 그 불명을 쓴 지는 겨우 10년 밖에 안돼요. 정말 제대로 들어갔다는 느낌, 제대로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생각이에요. 스님 다비식에 꼭 두 번 갔는데 한 번은 성철 스님 다비 때고, 이번에 법정 스님 다비 때 갔어요." 무슨 인연이었을까? 시대를 아울렀던 두 어른을 한꺼번에 모시는 복이라니.

이창숙 박사는 마흔 두 살에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늦깎이. 한국불교사를 하는 김용태 선생이 지도교수였다. 김용태 교수는 신라 때 받아들인 승만경이 아직도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면서 여성 불자가 논문을 써서 널리 알려야 한다며 해보라고 권했다. "김용태 선생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목이 〈승만경의 思想과 그 新羅的 受容에 대한 硏究, 1983〉이었어요. 그런데 쓰는 사람은 힘들고, 보는 사람은 시시한 게 석사 논문이에요." 논문에서 "…신라왕실에 바쳐진 승만경勝鬘經 주인공 승만부인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승만부인이 갖추고 있는 도덕성과 타고난 재주는 지도자가 갖춰야할 자질이기도 하다. 남성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여왕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앞선 의식수준은 이 경전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선덕여왕 재위 15년 동안 정법왕국사상과 보살다운 덕치德治, 불교신앙을 엿볼 수 있다. 정법왕국사상은 불교에 바탕을 둔 국가관으로 불도 불법 근본정신에 따른 치국치민治國治民 요소로 삼는 왕국, 곧 국가가 정법왕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법 실현은 승만경 중심 사상이다." 석사학위를 받은 이창숙 박사는 이어 박사학위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법정 스님께 드렸다. 다음은 법정 스님 답장이다.

참 오랜만에 눈에 익은 글발 받아봅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애많이 썼습니다. 박사과정 등록하셨다니 잘했습니다. 유강이가 벌써 고교이군요. 불일佛日에 와서 고추장 먹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가을이 오면 늘 그러듯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난여름 땀 좀 흘렸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끓여 먹기도 귀찮고 혼자 먹는 밥맛도 없어 자주 나돌아다닙니다. 설렁설렁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어디론지 훌쩍 떠나고 싶어요. 내일來日은 또 길을 나서려고

佛經의 眞髓, 깨닫는 法을 일러준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의 바른 해설!!

반야심경의 올바른 해설

● 金台龍 해설



金台龍 해설, 知文社 刊, 값 10,000원

지금까지 불교계의 애매모호한
해설의 오류를 밝혀,
정확히 뜻을 헤아려 새길 수 있게 한,
혁명적인 해설본 출간!!

지문사 02)715-2305, FAX 718-9387
총판 · 한국출판협동조합 전화 070-7119-1750, 팩스 031)944-8240

월암스님과 함께하는
제3기 '유식' 대강좌

대한불교조계종 군포 법해사에서는 매년 참선실참 수행 방편으로 선학강좌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기에는 문경 한산사 월암스님을 모시고 마음바탕과 작용의 법계 유심 만법유식의 대의인 '유식' 강좌를 봉행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서 난다' 는 큰 주제를 가지고 화엄 법해에서 번뇌가 곧 보리 인 용맹정진하는 거룩한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8일 오후 3시 개강,
  매월 셋째주 (토) 오후 3시
- 장 소 : 군포시 당동 법해사 4층 교육강당
- 연락처 : (031)394-7253, 397-7253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법해사

합니다. 어제부터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감의 볼도 많이 붉어졌어요. 불일佛日에 온지 꼬박 아홉해가 됐습니다. 세월 참 잘도 지나갑니다. ……승만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잘 읽히지 않은 경전인데 석사 논문으로 잘 다루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금광명경金光明經과 함께 널리 독송되는 경전인데요.

부디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시월 사일十月 四日 불일암佛日庵에서 합장合掌

"이른바 가방 끈이 긴 스님들에게 여성신도들이 무엇을 여쭈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여자들이 공부해봐야 다음 생에
남자 몸 받는 일밖에 더 있을까?

어떤 스님들은 망상피우지 말라고 해요. 알고 싶은 욕구가 망상이라는데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또 여자들이 공부해봐야 다음 생에 남자 몸 받는 일밖에 더 있어? 이러는 스님도 있어요. 그럼 여자는 뭐야? 여성 불자는 돈이나 내는 존재야? 한국 불교가 여성신도 없으면 존재할 수 있어? 부처님이 그런 분이야? 부처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난 부처님 안 믿어. 평등사상이 뭐야?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연구를 제대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같은 중요한 경전에 나온 여성성불상 사상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연구했어요. 박사 논문을 쓸 때 해주 스님이 많이 챙겨주셨어요. 박사 논문을 쓴 다음에 동대에 '불교와 여성'이라는 교양과목이 생겨서 강의를 했어요."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으로 여태 현역인 이창숙 박사 말씀이다. 박사 논문 제목은 〈인도불교의 女性成佛思想에 대한 연구, 1989〉이다. 누군가 첫발을 내딛어야 길이 열린다.

이 대목에서 귀에 너무 익숙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여성을 무시하는 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속담이 여성 자율성에 대한 남성 불안에서 나온 말이고, 더 나아가 모성에 대한 한없는 의존심을 은폐하기 위해 여성을 애써 낮추고 남성권위를 세우려는 억지라면 어떨까? 우리 과거사에 그런 보기는 심심치 않게 있다. 조선 중기 대표학자 어숙권은 신사임당을 안견 다음가는 예술가라고 꼽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신사임당이 살아있을 때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화가 신씨'로 불리다가 죽은 뒤에 율곡 어머니로, 남편 이원수 부인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화가 신씨에 대한 첫 평가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소세양蘇世讓이란 사람에게서 나왔다. 소세양은 신사임당이 그린 산수화를 보고 '동양신씨화족'이란 시를 지었다. 사임당 나이 45세 때 쓰인 이 시는 신사임당이 그린 산수화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17세기에 들어오면서 뒤집어진다. 그 동안 헌사는 다 어디가고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이 나서서 신사임당 산수화 작품이 율곡 어머니나 현숙한 현모양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다면서, 어이없게도 그 산수화가 가짜라고 뒤집는다. 그리곤 조선 유학자들 사이에서 신사임당 산수화 평가가 사라진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사임당이 그린 산수화도 종적을 감추었다. 대신 난초, 매화, 포도, 풀벌레처럼 집에서 자녀를 기르고 살림을 하다가 가끔 그렸을 법한 그림들만을 모아 그림첩을 만들었다. 백세 스승 율곡 선생 어머니께서 규문을 벗어나 산천곳곳을 누볐다는



얼굴은 어쩌면 스스로 만든 '훈장'이다. 굴곡이 적지 않았던 삶 속에서 만든 이박사의 '훈장'은 사진장이를 편안하게 한다. 돌아가신 사진장이 어머니와 같은 연세인 그를 일부러 영가등 앞에 앉혔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박사의 생사관은 어떨까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담담한 대답이 놀라웠다. '영가등을 보고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삶과 죽음은 자연스런 몸바꿈 일뿐 이란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었다. 필시 그것은 손색없는 훈장을 갖는데 일조 했을 것이다.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신문 김성우 기자는 2008년 9월 6일자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에서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수다원과 이상 도과道果를 얻은 성자 1만 2975명 가운데 신분이 확실한 5787명만을 분석하며 비구니와 우바이를 합친 여성 성자가 3544명(61.2%)으로 비구와 우바새를 합친 남성 2243명(38.8%)보다 1,300여명이나 많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여성불자 활동이 현재 한국 여성불자 활약보다 더 활발했음은 물론, 여성성불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여성변성성불 같은 이론이 널리 퍼진 까닭은 수탉 콤플렉스 때문이 아닐까.

오랫동안 법정 스님을 뵙다보니까 스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훤히 꿰고 있던 이창숙 박사는 일본 여행길 면세점에서 배터리로 쓰는 '레터오프너'를 사들고 돌아와 그 해 여름, 딸과 불일암을 찾았다. "봉투부리에 레터오프너를 넣어 살짝 밀면 찌~익 갈라져요. '스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난 스님께 드렸더니 '이런 게 있어?' 그러시면서 한 번 쓰윽 해보시고는 무심히 받아 내려놓으셨어요. 불일암에 가면 잠은 아래 요사채에 가서 자는데 그날 밤은 다실에서 자라고 그러셨어요. 차를 들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스님은 큰 방으로 건너가시고, 자려고 누웠는데 옆방에서 치~익, 치~익 소리가 나요. 레터오프너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소리에요. 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우리끼리 낄낄대면서 '스님이 아까는 무심한 척 하시더니 너무 재미있어서 자꾸 하시는 거야. 우리가 다 듣고 웃는지도 모르시고.' 그랬어요. 스님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가셨어요. 참, 사랑 많이 받고 가셨어. 아! 참, 그 말씀도 드려야지. 석사하고 박사과정 공부할 때 법정 스님이 수업료를 한 차례씩 두 번 내주셨어요." 법정 장학생 이창숙 박사와 만나고 돌아서는 나그네 발길이 가벼웠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살았느냐

'사람에게 아주 작은 도움도 주지 못할 정도로 쓸모없는 책은 세상에 한 권도 없다'는 말이 있다. 이 소중한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그냥 묻히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기를 쓰고 적바림을 해 둔다. 나중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고전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일생 하늘을 이고 다니면서도 하늘의 높이를 모르고,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땅의 깊이를 모른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말을 무색하게 한 자연과학자가 있다.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라고 천문학자 이석영은 명제를 던지고 있다. 하늘의 높이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한다. 구름이 동동 떠다니는 곳까지만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그 높이는 고작 10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햇빛이 산란돼 파랗게 보이는 곳이 하늘이라면 높이는 100킬로미터에 이른다. 별이 반짝이는 곳까지를 하늘이라고 하면 9500킬로미터까지이고, 별과 별 사이의 까맣게 보이는 허공까지가 하늘이라면 그 높이는 자그마치 137억 광년이나 된다고 한다. 불교에서 광대한 허공을 ākāśa라고 한다. 그리고 하늘의 높이는 지금도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하늘 높이 보는 마음따라 다르듯
세상만물 확 펴봐야 제대로 보인다

〈벽암록〉 제55칙의 내용이다.

도오(道悟) 선사가 점원(漸源)을 데리고 상가에 문상을 갔다. 점원이 상가에 들어가더니 관을 두들기며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도오 선사는 "죽었다고도 못하고 살았다고도 못한다"고 대답했다. 돌아오는 길에 점원이 말했다. "스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말씀해 주지 않으면 스님을 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도오 선사가 "치고 싶으면 쳐도 좋지만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문제는 말할 거라곤 없다"고 대답하니 점원이 한 대 쳤다. 도오 선사가 열반한 후 점원은 석상(石霜) 선사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이전 이야기를 꺼냈다. 그랬더니 석상 선사도 "살았다고도 못하고 죽었다고도 못한다"고 답했다. 점원이 "어째서 못합니까?"라고 물으니 석상 선사는 "'못하지, 못해"라고 대답했다. 그 말 끝에 점원은 당장 깨우침을 얻었다.

상가(喪家)에 문상을 갔다고 했는데 시다림을 간 것이다. 시다림의 어원을 보자. Śita-vana를 음역해 시타림(屍陁林)이 됐다. Śita는 '추운', '쌀쌀한'의 뜻이 있고 '찬물'이란 뜻도 있다. vana는 '숲', '덤불'을 뜻한다. 한역(漢譯)으로는 한림(寒林)이라고 표기한다. 인도인의 평생 소원 가운데 하나는 갠지스강에서 임종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강의 찬물에 육신을 부려 놓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덤불이나 숲속에 영면하는 것이다. 불교의식에서의 시다림과 시다림의 어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삭(新削) 시절에 품었던 의구심 가운데 인도의 말이 중국에서 번역할 때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 퍽이나 궁금했었다.

〈벽암록〉을 더 살펴보자. 어느 날 점원이 가래를 들고 법당 위에 올라가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했다. 석상 선사가 "뭐하는 짓이야?"라고 물으니까 "돌아가신 스님의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점원이 대답했다. 석상 선사가 "온 천지가 스님의 사리로 가득 찼는데 어떤 사리를 또 찾는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필자의 신간 〈한국을 빛낸 선사들〉을 읽고 한 언론사에서 찾아 왔다. "요사이 선수행자는 많은데 활안종사는 없다고 하는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사는 지천(至賤)인데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라고 답했다. 마치 돼지의 눈에는 돼지 같이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만 보인다고 농(弄)을 나눈 무학 스님과 이태조의 얘기를 곁들이기도 했다.

꽃은 아름답다.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꽃이라고 아름답게 보일 리 없다. 감미로운 선율도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을 옥양목(玉洋木)을 펼쳐 놓듯이 확 펴 놓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학문의 세계는 항상 구분을 짓는다. 가령 그 피부색에 따라 백인 · 흑인 · 황색인의 셋으로 나눌 때에는 피부색이 구분원리이다. 그러나 선의 세계는 구분짓기를 꺼린다.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똑같은 사물도 보는 사람의 용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듯이 진리의 세계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단정하는 순간 언어의 노예가 되고 그 울을 벗어나지 못해 구속이 된다.

아마 지금도 천문학자는 망원경을 보며 하늘의 높이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 끝없는 여정을….

동국대 선학과 교수

약사여래불의 가피로 몸을 살린다
약사여래불 치유도량 활인사





덕운 큰스님은 질병치유의
중생구제에 영험하신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습니다.
수십년간 육신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위해 기도끝에 선몽하신
"활인 발효방"!.
한약재를 첨가한 순수발효열
65℃로 체내독소배출! 건강증진!
면역강화! 질병예방!

머리감는 유황 한방비누, 활피모
■ 10주년을 맞이하여, 특가세일 (6월~8월까지 3개월간)
■ 스님께서 수년동안 연구 개발하고, 박정아 의과학박사 (여한약사회장, 경희대외래교수)가 추천하는 전통방법으로 만든 유황특수 비누입니다.
머리카락, 튼튼하게 모근! 청결하게 두피! 건강하게 탁모관리! 기본.
■ 특징 : 유황이 들어간 천연비누, 무방부제, 무자극, 무색소, 고급비누원료 사용 폼크린징 대용, 건강피부 유지, 애완견 털냄새제거
■ 가격 : 특별할인가 2만원 (정가3만원) / 판매원 : 활인사

활인 발효방 무료체험권
*1회 무료체험가능
(단, 체험권지참, 사전예약에 한함)
사당역 11번출구 활인사 02)3487-2311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 淨土

성남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 제11주년 기념법회 봉행

“노산혜원법사(盧山慧源法師)의 백련결사(白蓮結社) 전통을 계승해 꺼져 가는 법등(法燈)을 밝히며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청계산 정토사에서 만일염불결사도량을 개창합니다. 대중불교의 기치를 내세웠던 원효성사의 뜻을 받들어 일념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 바르게 사는 염불행자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염불수행을 통한 불교 대중화의 원력 하에 2000년 성남 청계산 정토사(주지 보광)에서 출범한 만일염불결사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았다.

10년의 결사운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년 결사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이날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을 비롯해 만일염불회 회원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신상진 국회의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해 결사 의미를 되새겼다.

그동안 염불수행은 삼국시대부터 원효(617~686) 대사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권장한 이래 간화선에 비해 그 수행방법의 편이성과 대중성이란 장점으로 가장 친숙한 수행법의 하나로 자리해왔다.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염불수행을 진행해 왔다. 특히 사부대중이 ‘염불결사’라는 조직을 결성해 20여 년 동안 정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라 경덕왕 때 발징 스님이 고성 원각사(현 건봉사)에서 사부대중 18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결성한 ‘만일염불회’가 최초의 결사로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그 명맥이 이어졌다.

성남 정토사가 조직한 만일염불결사회는 이런 전통을 이어 염불수행의 생활화를 통해 불법홍포를 도모하는 신앙결사체로 1600여 회원들이 참여해 생활 속 수행문화 진작에 앞장서왔다.

이들은 ‘아침에 염불하고 저녁에 감사하자’는 불교바르게 믿기운동의 기치 하에 매월 첫째 일요일에 법회를 봉행하고 세 번째 토요일에 철야정진을 봉행해왔다. 또 각각 10명을 한 팀으로하루 열번 ‘나무아미타불’ 염송, 하루 20분 염불선 실참 등을 진행하고 불교호스피스 활동과 불교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만일염불결사회 만의 독특한 기부문화인 염불전(念佛錢) 기부와 활용은 신앙결사체를 넘어 불교의 사회적 역량 확대라는 과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염불전 기부는 매일 염불수행에 앞서 100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만일염불결사회는 염불전 모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정토교학 출판사업 및 정토학 연구 및 학술 지원, 호스피스 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 내역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법사로 나선 월서 스님은 만일염불결사회의 신앙결사를 격려하고 수행열기가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가 되기를 발원했다.



월서 스님은 “찾으려고 하면 찾아도 없다”며 “염불을 통해 일념삼매에 들고 생각을 다해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 그 일념조차 버리는 순간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아미타불 염송 뿐만 아니라 그 공덕을 사회에 환원하는 단체로 더욱더 활기차고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구자선 염불만일결사회 고문은 이날 결사문을 통해 “작금의 불교현실은 위신이 날로 땅에 떨어지며 종단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수행풍토가 날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에 부족한 신심에도 금강과 같은 신심과 불퇴의 원력으로 불법이 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매일 염불 통해 사회변화를 이끕시다”

만일염불결사회 회주·성남 정토사 주지 보광 스님



오랜 시간 동안 불자들은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는 염불을 일상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처럼 염불은 선(禪)과 더불어 불자들이 가장 많이 실천해 온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일반인들에게 까지 친숙하다.

〈아미타경〉에는 “하루나 이틀 사흘 닷세 엿세 이렛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 이름을 외우되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반주삼매경〉에도 “칠일 밤낮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꿈속에라도 친견하게된다”는 구절이 있다.

신라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만일염불결사가 유행했으며 고려시대에는 타락한 불교를 살리기 위한 백련결사가 일어났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맞아 나라가 어렵자 사명대사가 동갑계(同甲契)를 조직, 사찰을 복원하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구한말에는 강원도 건봉사(乾鳳寺)에서 염불만일회가 융성하게 일어나 지금도 한국 정토신앙의 성지로 손꼽힌다. 해방 후 간화선 중심의 선불교가 융성하면서 주춤해졌던 염불만일회는 1985년 대구에서 수산 스님이 새로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보광 스님이 정토신앙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만일회를 조직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청계산 정토사는 한국 정토신앙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보광 스님은 “한국의 염불결사는 신라시대의 귀족화된 불교를 대중불교로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사찰의 경제적 후원 역할도 톡톡히 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불교가 탄압받아 교단이 위축되거나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종교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종교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만일염불결사회 결성과 관련해 “21세기 올바른 불교신앙과 새로운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신앙공동체의 결성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던 일”이라며 “매일 가정과 직장에서의 염불을 통해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염불행자가 되도록 서로를 탁마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염불신앙은 대중불교의 집약체

관문사서 제7회 천태학술대회, 염불신앙 집중 조명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다음(Daum)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불교 동호회는 어디일까. 바로 나무아미타불(http://cafe.daum.net/amtb)이다. 회원수가 54000 여명에 이르는 불교 동호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또한 나무아미타불이다.

이는 간화선 수행을 위주로 한국불교의 내면에는 염불 수행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은 한국 불자들이 외우는 가장 대표적인 불보살의 명호로 일반인들에게 까지 친숙하다.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저자거리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지성으로 부르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한 이후 염불은 불교수행법 중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불보살의 원력에 기대는 ‘염불’은 타력신앙으로 인식돼 한국불교에서 자력(自力)으로 깨달음을 얻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간화선’에 비해 낮은 수행법으로 취급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염불신앙을 현대 종교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6월 4일 서울 천태종 관문사에서 ‘염불신앙의 현대적 의의’라는 주제로 2011년 천태불교학술대회를 열고 염불신앙과 현대적 수행문화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염불신앙은 대승불교 대중성의 결정체”
김용표 교수, 종교학 관점서 염불 분석

“염불을 통한 타력신앙이야말로 대승불교의 대중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신앙형태다.”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염불신앙은 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불교의 대중성이 잘 드러난 대중불교 운동의 중심신앙”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표 교수는 “부처님의 설법 정신은 누구나 쉽게 불법의 진수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깨달음에 도달케 하는 데 있어 부처님도 상류층보다는 일반대중을 구제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바라문의 성전언어인 베다어를 배제하고 당시의 민중언어였던 마가디(Magadhi)로 설법하였다”며 “이러한 교육정신이 후에 불교가 염불신앙 등의 대중종교로 발전하게 된 동인”이라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한국불교의 신앙형태에서 기도와 염불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유를 “교리공부와 참선수행이 접근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행의 종교적 효능도 신통치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용표 교수는 그 원인으로 “삶의 고통에서 일반 대중들의 종교적 욕구는 무엇보다도 부귀와 무병장수, 그리고 죽은 후의 구원을 바라는 희망이 있으며, 범부중생이 일시에 돈오(頓悟)하여 불하기는 그 업장이 너무 많고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생 위한 신앙이 종교의 본질이다”

김용표 교수는 이러한 대중의 근기에 맞춘 염불신앙에 대한 비판을 종교학적 관점에서 반박했다. 김 교수는 신앙에서 자력과 타력을 구분하는 일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염불 수행도 불보살의 가피력에 기대고자 하는 점은 타력적이지만 그 수행이 깊어지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보살의 불성을 깨닫게 되는 ‘자력과 타력이 함께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이다.

염불신앙이 근기가 낮은 범부를 위한 방편이란 비판에 대해 “종교의 핵심은 일반대중이 진리를 느끼고 체험하는데 있다”며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실존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더 사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표 교수는 “종교를 자력과 타력의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화하려는 작업은 지나친 과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불교는 깨달음에는 수많은 방편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염불신앙은 이 길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열려진 또 하나의 방편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는 자력종교이고 기독교는 타력종교라고 하거나, 또는 초기불교와 선종은 자력문이고 정토종은 타력문이라고 규정짓는 일은 그 종교 안에 있는 또 다른 요소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표 교수는 끝으로 불교는 본래 자력신앙을 중심으로 출발한 종교였으나 타력에 의한 구제의 길도 열어 보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타력신앙이 발달하게 된 참 뜻을 되짚어 살려야 하는 것이 불자들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현 동국대 교수도 ‘염불신앙의 연원과 전개’ 발제에서 “신라의 원효는 천촌만락을 다니면서 대중을 교화했고 이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타의 호를 알고 南無를 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백련결사로 고려시대 계승돼 고려사회의 재가신도들 사이에도 염불신앙은 성행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신앙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김윤수 전 부장판사가 펴낸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 역주서!

청량의 소에 의한
대방광불화엄경(I~VII)



알기 쉬운 번역과 상세한 역주로 독자들을 화엄의 정수로 이끌어주는 책!

80권본 화엄경을 한글세대 독자가 읽기 쉽게 번역함은 물론, 화엄경 주석의 백미로 꼽히는 청량징관의 「소초」를 번역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우리말 번역과 실차난다 한역본을 함께 수록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 이치가 깊고 넓음은 물론 분량마저 방대하여 접근이 어려웠던 화엄경에 대한 상세하고 치밀한 최초의 해설서이다.

김윤수 역주 | 전7권 | 총 6,000쪽 | 정가 300,000원 | 한산암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붓다북 www.unjusa.com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딴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 잡아함경 -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주얼드림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 책자(카다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천도재·예수재 용품은 동진기획·붓다쇼핑에서...

그동안 동진기획 · 붓다쇼핑을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구성 : 금강경탑다라니,지장경탑다라니, 아미타경탑다라니, 신묘장구탑다라니,천수다라니,개팔전,상평통보,만관, 신묘장구대다라니,지전,봉투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C형-남 정가 1,200원 D형-여 정가 1,100원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부모은중경·목련경 정가 4,000원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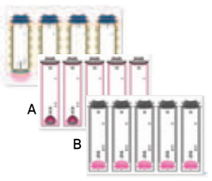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 크기 : 53×180㎜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종이신발(남/여) 1켤레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위패칼라(70모조)
위패2도 A형/B형(70모조)
정 가 3,000원(100매)
• 위 패 칼 라 : 268×180㎜
• 위패2도A형 : 270×180㎜
• 위패2도B형 : 268×180㎜



자비도량참법(세로)
할인가 9,000원(20권 이상)
정 가 15,000원



광명진언
할인가 1,200원(100권 이상)
정 가 2,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광동생활건강(주)

광동 큰일꾼 유기농 효소는 엄선된 유기농 곡류만을 발효시킨 효소제품입니다.

인터넷주문 www.gwangdong365.com NAVER 광동 유기농효소

특명! 내몸에 효소를 보충하라.

보약보다 효소가 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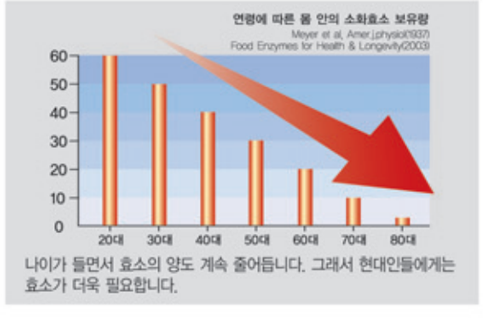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소가 없으면 소화흡수가 되지 않는다.

효소가 내 몸을 살린다.

효소는 우리 몸의 일꾼이다.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 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필요하다.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해독을 하거나 하다못해 작은 상처가 나도 꼭 필요한 것이 효소다. 효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화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보약과 건강식품을 먹어도 효소가 없으면 그냥 몸 밖으로 나갈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효소의 보충이 필요하다.

효소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그 작용이 저하되면 체외로부터 효소를 공급해 주고 밸런스를 유지해 주어야한다. 효소가 부족하면 음식의 소화분해가 어렵고 대사기능도 현저히 떨어지면서 살이 피둥피둥 찐다거나 몸이 비실비실 해진다. 결국 소화가 안되거나 살이 찌거나 너무 마른 사람들은 반드시 효소부족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다. 체내효소를 활성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효소가 풍부한 음식으로 효소와 효소의 재료를 인체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효소의 양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효소가 더욱 필요합니다.

효소의 적극적인 보충이 필요하다.

효소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은 1.음식을 소화 할 때 2.에너지를 만들고, 세포 및 조직을 만들 때 3.독소를 제거할 때이다. 나이가 들면서 효소 부족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하여 효소 고갈은 가속화 되고 있다. 그 첫째가 과식이다. 음식을 먹은 만큼 효소가 소모된다. 둘째가 화식(火食)이다. 익혀 먹는 화식에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화식중심의 우리의 식습관이 효소 고갈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는 인스턴트 식품, 고염 식, 고당 식, 고지방식은 효소 고갈을 가속화한다. 넷째는 운동부족과 스트레스가 효소의 고갈을 가속화 하고 있다.

효소제품은 미생물이 생산한 효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께 섭취할 수는 최상의 건강식품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효소의 약점은 열에 약해 뜨거우면 죽어버린다는 건데 익힌 음식을 주로 드시는 요즘 분들은 몸 속에 효소가 형편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효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선한 곡물과 채소를 그냥 먹거나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발효해서 먹는것이다. 발효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효소가 생성된다.

술, 커피, 음료, 고기를 많이 드시나요?

금번 50년전통 광동생활건강의 기술력으로 유기농 곡류만을 엄선 발효시킨 고농도효소제품으로 효소가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출시된 신제품 광동 큰일꾼유기농효소는 간편하게 스틱으로 포장되어 있어 휴대가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

술, 커피, 음료, 고기를 즐겨먹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효소는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다.



· 고소하고 맛있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 술, 고기 등을 먹을 때도 더욱 좋습니다.

• 1박스 (3g×30포)

공급원 광동생활건강(주) 제품구입문의 080-840-7000

우리는 왜 그를 좋아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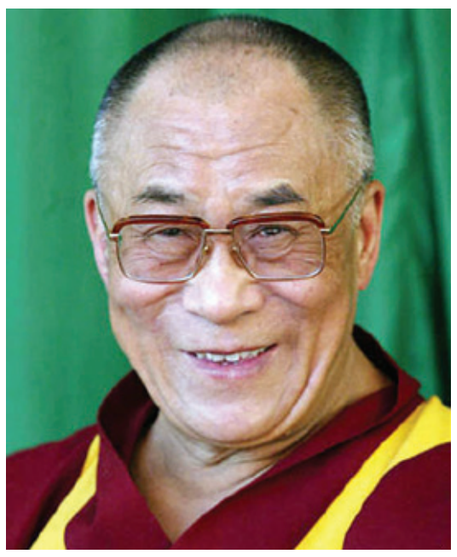
로버트 서먼 교수, 달라이 라마를 통해 티베트의 미래 밝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에 대해 호감을 표한다. 저명한 과학자, 정부고관, 국가원수들까지 불교와 그다지 관계없어 보이는 이들조차도 그를 좋아한다. 단지 티베트 고원 출신의 승려에 불과한 달라이 라마를 사람들은 왜 이토록 좋아하는 걸까.

달라이 라마는 이제 어디서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명도가 높다. 세계의 영혼을 위로하는 상징적 존재가 됐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60여 년간 억압당하고 핍박받아 온 티베트인들을 이끌어 온 티베트 최고의 지도자이며 전 세계에 무력 대신 비폭력을, 절망 대신 희망을, 적을 친구로 삼는 자비와 용서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 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민족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선미(眞善美)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달라이 라마의 모습에 더욱 열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여전히 망명자 신분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이 도덕적 권위를 부여해도 그에 대한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이 티베트를 억압한 지도 반세기를 훌쩍 넘기고 있다. 제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쵸는 네 살 때 달라이 라마로 공식 인정돼 1959년 3월 10일 23세의 나이로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로 망명길에 올랐다. 그곳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설립했고, 그로부터 52년 간 행정 수반과 종교 지도자로서 중국에 맞서 티베트의 독립과 자치를 위해 고군분투 했다. 책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를 왜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그를 존경심으로 대하는지, 왜 아직도 그는 망명자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11년 3월 10일 달라이 라마는 라싸 평화봉기 52주년 추모 행사에서 티베트 망명정부의 정치적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했다. 티베트가 자유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뜻에서였다. 4월 27일 티베트 망명 정부는 선거를 통해 롭상 상가이를 후임 총리로 선출했다. 티베트 정부는 비로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이원 정부로 재탄생했다.

티베트 불교 전문가이자 콜롬비아대 불교학 전공 교수로 활동 중인 저자 로버트 서먼은 이러한 달라이 라마의 행적과 발언을 바탕으로 티베트 문제해결을 위한 5단계 계획안에서부터 자치를 얻은 후, 티베트의 미래와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다. 활불 제도에서 정교분리로 변혁기를 맞아 정치, 종교, 문화, 환경문제까지 티베트의 조용한 혁명을 훑어내고 있다.

책은 단지 티베트나 달라이 라마의 일생에 대해서만 풀고 있지 않다. 인권과 평화의 근본을 다루면서 분쟁에 휩쓸려 있는 세계에 도발적인 해결책들을 내놓는다. 저자는 달라이 라마의 일생을 밝혀가며 완력으로 얻어진 권력은 진리의 단호한 행동에 맞서 더 이상 제대로 풀릴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티베트에서 실행 가능한 관광, 에너지, 대체의학, 고부가가치 농업 등에 관한 경제적인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과 티베트의 정치적 상황들이 단순히 중국의 문제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달라이 라마라는 인물과 그의 가치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저자 눈에 비친 티베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티베트인들이 가진 고유한 신화적 · 종교적 · 정치적 · 역사적 ·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를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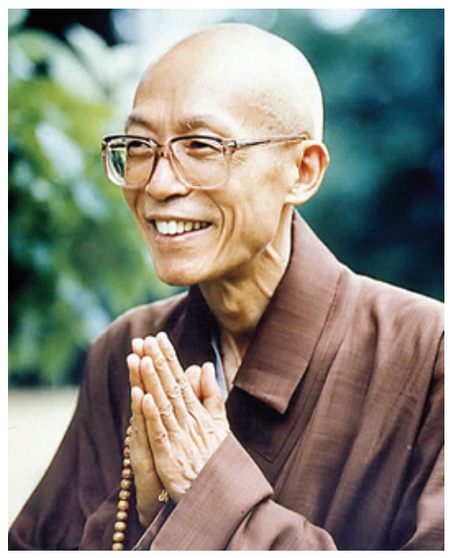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로버트 서먼 지음|문정희 옮김|김영사 펴냄|1만3000원

이은정 기자

대만 불교를 키워낸 선사의 이야기

대만 법고산 창건주 성엄 선사 자서전 '눈 속의 발자국'



세 살 때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고 다섯 살 때까지는 말을 못하며 더디게 배우는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가 훗날 세계 불교계의 거목 중 한 사람으로, 대만불교 4대 본산의 하나인 법고산을 창건하고 대만불교를 세계불교의 강력한 중심으로 격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바로 성엄 선사(聖嚴禪師; 1930~2009)이다.

〈눈 속의 발자국〉은 성엄 선사의 자서전이다. 계율 정립, 선교통합, 불교 대중화를 성공시킨 스님의 생생한 삶의 역정이 책에 담겨있다.

"뉴욕은 바람이 많고 추웠다. 늦은 밤 도시가 고요할 때 나는 승복 자락으로 몸을 단단히 감싸고 거리를 유랑했다. 종종 눈이 내렸다. 나는 스스로를 '풍설(風雪)속의 행각승' 이라고 불렀다.(본문 중에서)"

미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널리 활동하며 중국불교를 세계에 알린 성엄 선사는 중국 상하이 근처 시골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14세에 출가해 상하이에서 불학원을 다닌 스님은 대만에서 군복무 후 다시 출가, 6년간 폐관수행하며 경전 공부와 수행에 전념했다. 이후 일본에 유학해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각지에서 수행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인들의 선 수행을 지도하는가 하면 대만에 법고산을 창건했다.

〈눈 속의 발자국〉에서는 이러한 스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을 출판한 탐구사는 서평에서 성엄 선사에 대해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불교 억압으로 대륙의 불교는 쇠퇴했으나 대만에서는 불교가 오히려 크게 발전했는데, 여기에는 성엄 선사와 같이 불교 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세우고 부단히 노력한 주역들의 노력이 큰 밑바탕이 됐다"며 "청정한 계율, 폭넓은 교학 공부, 치열한 수행으로 요약되는 대만불교의 특징은 바로 성엄 선사의 삶과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한국불교의 쇄신을 위해 성엄 선사의 자서전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눈 속의 발자국|성엄 선사 지음|탐구사 펴냄|1만5000원

이나은 기자

식재료에도 불성이 있다

선재 스님, 11년 만에 사찰음식 이야기 펴내



"한 방울의 물도 부처님이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해야 진정한 요리사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와 청소년들이 식품첨가물이 남용된 음식을 상용하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음식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찰음식이 현대인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음식 모델이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30년 동안 사찰음식을 연구해온 선재 스님은 "건강한 몸, 맑은 영혼의 토대는 음식"이라며 "사찰음식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시작 된다"고 설명했다. "자연이 준 식재료에 감사하고, 식재료에 불성(佛性)을 살려 요리를 하고,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먹을 때 음식은 가장 좋은 약이 된다"고 밝혔다.

선재 스님은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사찰음식으로 치유시켰다. 스님은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등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음식으로 변화시킨 체험 사례들을 엮어 11년 만에 음식수행에 관한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을 펴냈다.

선재 스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존재 기반인 자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음식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은 관련 사진들을 풍부하게 담아 사찰음식문화의 뿌리를 알려주며, 사찰음식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중요 레시피도 함께 담고 있다. 스님은 사찰음식을 통해 병을 치유하고 행복하진 사람들의 인연담과 더불어 경전 말씀에 바탕한 음식 철학을 말하고 있다.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선재 지음|불광출판사 펴냄|1만7000원

이은정 기자

한지전통등 집에서 직접 만들자

전통등 작가 전영일과 함께하는 등만들기



연등회, 연등축제, 전통등전시회가 활성화 되면서 사라져가던 전통등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다.

정교하면서도 섬세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듯한 전통등을 보면서 제작방법에 대해 궁금해 한 이들도 여럿 있을 것이다.

10여 년 넘게 한지전통등의 복원 및 현대적 계승과 전통등 문화 확산에 투신해온 전영일 작가는 〈누가 만들어도 참 쉬운 한지 전통등〉을 출간해 독자들을 한지전통등의 세계로 초대한다.

책에서 전 작가는 1500년을 이어온 한지전통등의 역사와 현재를 소개하고 구상과 재료, 골조, 전기, 배접, 아교포수, 채색과 코팅 등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 설명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러 가지 전통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등, 행렬등, 인테리어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등의 제작방법을 아낌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10여년 이상 전통등을 만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와 더불어 많은 제작과정 사진을 사용해 전통등을 누구나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전영일 공방의 대표인 전영일 작가는 13년전 '전통등연구회'에 참여하면서 전통등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부터 지금까지 전통등의 복원과 현대적 구현, 그리고 전통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내 전시회와 해외 전시회를 개최했고, 해마다 연등축제에 사용되는 대형장엄등을 제작하며, 각종 전통등 강습회를 주관하며 많은 후배 작가들을 양성 지원했다.

누가 만들어도 참 쉬운 한지전통등|전영일 지음|불광출판사 펴냄|2만5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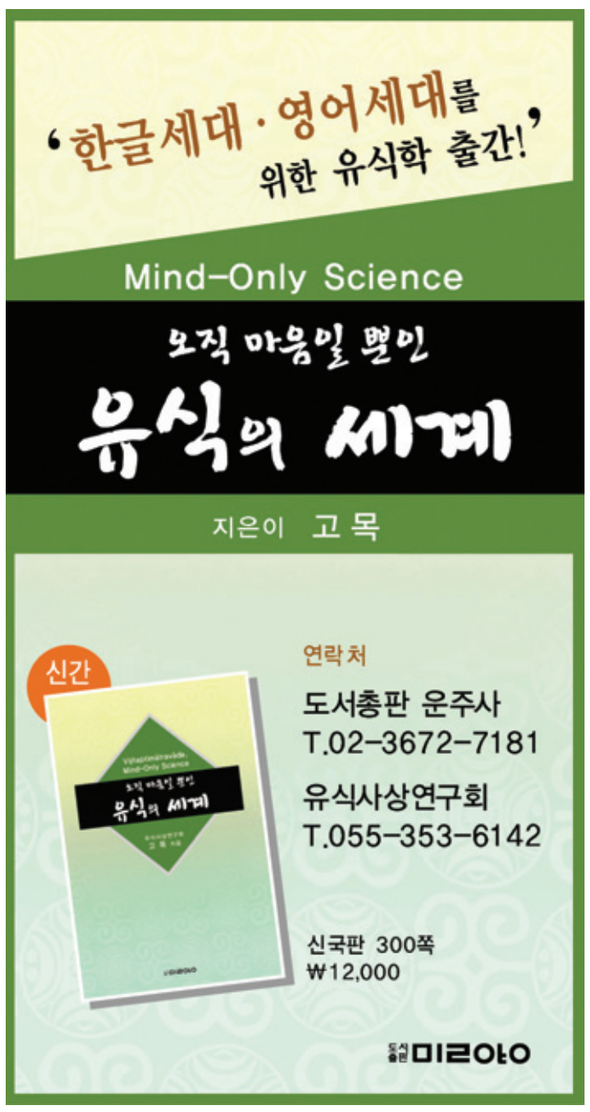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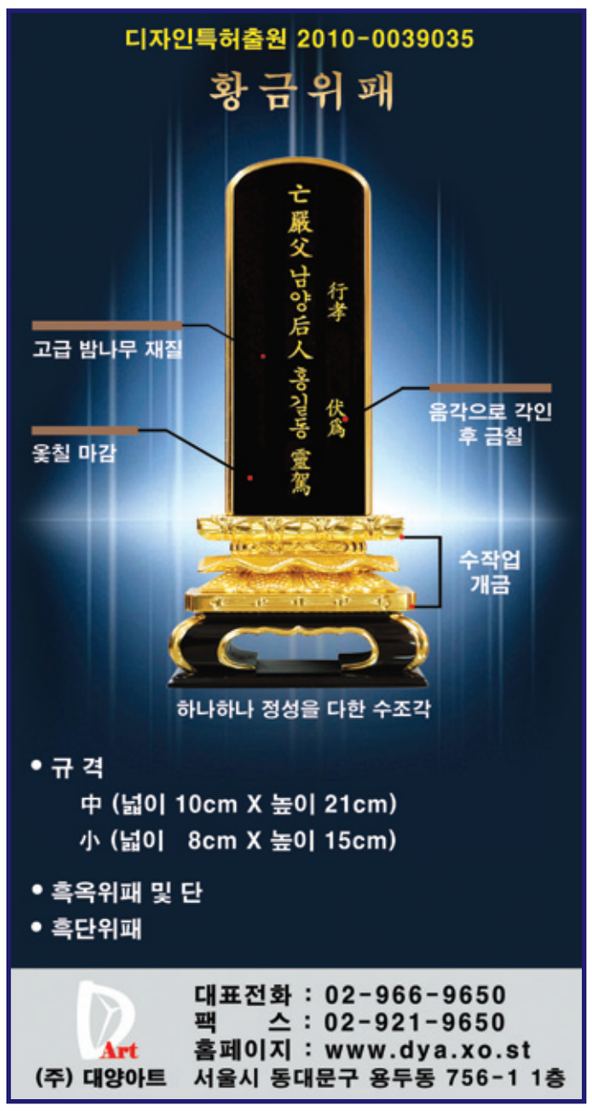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감사하고 사랑하며	우학	좋은 인연
3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4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5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6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보경	민족사
7	바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8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김정호	불광출판사
9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10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이 시대 표현하는데에는 돈이 최고



동국대 미술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변영환 작가는 현재 천안미협, 충남수채화협회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개인전 10여 회를 열고 단체전 150여 회, 퍼포먼스 100여 회를 연 중견작가이다.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팔아 큰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예술의 순수성과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까?'

돈과 예술을 떠올릴 때 우리는 항상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다.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예술을 이야기할 때 돈을 생각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하지만 정치인, 기업인, 학자, 예술인, 심지어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돈을 멀리할 수 없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쩐(錢)작가 변영환(55 · 사진) 선생은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속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6월 15~21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그의 15번째 전시회 '머니토피아(Money-topia)'를 연다. 동전을 집적(集積)해 만든 작품 30여 점과 전시 첫날 변영환 작가의 오프닝 퍼포먼스 '머니토피아'를 만날 수 있다.

변영환 작가는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상황-머니토피아'에서 10원짜리 동전 30만개를 깔고 그 위에 '기가 센' 붓다, 예수, 성모마리아, 인간을 올려놓는다. 또 기계, 전쟁 등 이슈가 되는 소재의 상징물로 장난감로보트와 탱크 등을 놓았다. 돈을 통해 변 작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종교도, 예술도, 전쟁도 모두 돈을 좇고 돈을 위해서 한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는 거대한 고층빌딩이 즐비하다. 고층빌딩은 자본주의 시대의 상징이다. 변 작가는 10원짜리 동전 수천개를 접착제로 쌓아올린 작품 '마쩐루(摩錢樓)'를 통해 다다익선(多多益善),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이야기한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도 하지만 지나친 물질만능은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돈은 순수 그 자체이지만 돈을 소유하는 주체자의 의도에 따라 악이 될 수도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변 작가의 생각이다. 일체 만물의 모든 현상은 그 성품으로 보면 다 공하다는 일체개공(一切皆空)과 공(空)사상, 또는 중용(中庸)사상이 엿보인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 '머니토피아'는 '머니(Money)'와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이다.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머니를 추구하지만 머니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회화 위주의 작품 활동을 하던 변 작가는 캔버스와 종이위에서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 2002년부터 돈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에 천착했다.

돈의 외형적 소재로 예술활동에 매진하는 유일한 작가인 그는 '이 시대 마스터피스는 지폐, 최고의 조각품은 동전'이라는 돈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지폐 · 동전은 현대미술의 결정체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입니다. 5만원권 지폐는 이종상 화백의 신사임당 초상화가 어울려 뛰어난 조형감을 이뤘고, 종이 · 인쇄물감도 최상의 것이 사용돼 지폐의 변질을 막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 똑같은 모양을 지녔지만 모두 다른 일련번호를 가진 별개 작품입니다.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죠."

(02)736-1020 이나은 기자


마쩐루


염원


상황-머니토피아

천 년의 고서에서 최첨단 전자책까지

'2011 서울국제도서전' 6월 15일 서울 코엑스서



국내 최대 책 전시회인 2011 서울국제도서전이 '책은, 미래를 보는 천 개의 눈'이라는 주제로 6월 15~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A · B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는 물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3개국 572개의 출판사가 참여해 아동도서를 포함한 인문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 전 분야의 도서를 소개할 예정이다.

2011 서울국제도서전은 특히 초조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이해 대표 특별전인 '우리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전'을 마련했다.

특별전에서는 초조대장경인쇄본과 팔만대장경 복각판, 현대의 디지털 기술로 복각된 〈반야심경〉 팔만대장경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기록문화유산물을 소개한다.

또한 팔만대장경판을 직접 인경(탁본)해보는 시간을 통해 초기 인쇄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팔만대장경 천년을 기념해 출판된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의 저자 오윤희와의 만남도 인문학 카페에 준비돼있다.

또한 도서전은 희귀본인 고려 금니사경(金泥寫經)과 초조대장경 재조대장경 등 국보급 출판물을 개인소장가들로부터 출품 받아 전시한다. 한국의 고서경매전(Kobay)도 특별전을 열어 선비들의 집필과 특색에 따라 경매과정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다양한 출판사와 저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2011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고 싶은 작가와 출판사' 설문조사 결과 상위 20위에 랭크된 출판사 중 12곳의 출판사가 도서전에 참가하며 그 외의 출판사들도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 초청행사와 특별전시 등으로 모두 참여한다.

불교계에서는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참여한다. 조계종출판사, 불광출판사, 민족사, 운주사 등 10여 회원사들의 신간과 경전 등 300여 종의 책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6월 17일에는 소설 〈무소유〉의 정찬주 작가를 초청해 '내가 모신 법정스님 - 법정 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초청 강연 및 사인회를 연다. (02)736-1020

이나은 기자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⑦ 지구상상 사진展

불법(佛法)으로 코끼리를 구해라

2011년 5월에는 한 외교관이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를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하기 위해 거래가 금지된 상아의 밀반입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인간의 코끼리의 남획으로 코끼리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일부 서식지에서는 이미 멸종 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끼리 뿐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종의 동 · 식물들이 멸종해 가고 있다.

6월 2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현대사진의 향연 지구상상展'의 막이 올랐다. 현대사진 작가들이 뜻을 모아 지구사랑을 외쳤다. 오염으로 죽어가는 호수와 홍수로 범람하는 강, 전쟁으로부터 파괴된 도시, 인간 없는 세상, 우리가 보호해야할 야생 동물 등 빛나는 지구의 자연 · 환경 사진이 펼쳐졌다. 사진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뚜렷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진전에는 닉 브랜트(미국), 루드 반 엠펠(네덜란드), 지아코모 코스타(이탈리아), 존 고토(영국) 등 저명한 세계 각국의 작가 10명과 로이터 통신이 참가했다.

여느 사진전과는 달랐다. '상상' 사진전 이다. 텔레비전 속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한 야생의 동물들을 그대로 담아낸 사진이 있는가 하면, 재난 영화에서만 보던 물에 잠긴 도시, 인


닉 브랜트 作

간이 모두 사라진 텅 빈 도시도 볼 수 있었다.

지구 온난화, 사막화현상, 이상기후. 이 단어들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던 지구 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단어 들이다. 그러나 위기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다. 환경 문제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율배반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작품들은 자연 환경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준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진은 제 1전시실의 첫 번째 사진은 흑백 코끼리 사진이다. 사진은 닉 브랜트(Nick Bandt)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닉 브랜트는 이번 전시를 열면서 "나에게 자연은 모든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돕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사진 속 동물들에게서 작가가 보내는 따뜻한 눈빛이 느껴진다.

산양의 한 무리가 밀렵꾼들의 총성을 피해 필사적으로 초원을 가로질러 간다. 분리수거와 장바구니만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하며 살고 있다고 여기던 나의 일상이 부끄럽고 초라해졌다. 부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생을 금하라 하셨다.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체는 미물도 제각기 역할이 있고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적극 적으로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현대사진의 향연-지구 상상전은 8월 1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 된다.


지아요코스타 作


존 고토 作


피포 누옌-두이 作

무료공개강좌 '금니로 만나는 비천'



선아트스페이스 제3회 무료공개강좌

일반인들이 불교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불교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선아트스페이스는 6월 25일 '금니로 만나는 비천'을 주제로 무료공개강좌를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비천(飛天)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실기수업이 진행되며 비천의 아름다움을 다각도로 살펴볼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20명 선착순이다.

예약은 전화와 메일,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홈페이지 참조 www.sunarts.kr) (02)732-0732

이나은 기자

스님!

10년 후에도 우리 절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찰 경제의 안정은 도량을 보전하고 가꾸어 가는 바탕입니다.
지금, 전국의 스님들께서 법륜대와 사찰경제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 법륜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사찰 ◆

법정사	부산	보경사	경기	약사사	경기	고선사	정읍
기룡사	경북	반야정사	진주	법성사	부산	원당사	경기
조주선관	강원	대승암	경남	수곡사	부산	미륵사	광주
용운사	경북	광명사	경남	반야암	하동	부심사	경남
극락사	경기	청용사	경기	도원사	경남	정각사	부산
성암사	경기	무심사	경남	홍덕암	경기	보은정사	부산
대원사	경기	응공사	대구	견불사	서울	용화사	경북
무애사	부산	동경사	울산	지장사	부산	약수사	부산
대관음사	대구	용관사	경남	문수사	부산	보광암	경주
불암사	부산	길상사	충남	용화사	충북	금강사	부산
성불사	서울	백봉사	경북	불로정사	경북	성주암	부산
금선사	서울	천지암	경남	해송사	부산	무아사	청주
미암사	충남	용화사	부산	율림원	경기	문수암	부산
배과사	강남	백연사	부산	건봉사	부산	보광선원	부산
봉화사	경북	현각사	경남	법륜사	경기	관음사	충북
무상사	경기	연송암	충북	고선사	정읍	지선사	울산
대원사	경남	극락사	경북	심원사	경기	약수사	부산
용문사	경남	보광사	서울	한승사	광주	태현사	광주
흥안사	경기	여래사	서울	화심사	전남	미륵사	광주
안심정사	충남	덕천사	남원	약수사	경북	광산불원	서울
청암사	전남	삼학사	경북	관음사	울산	대법사	부산
		구룡암	서울	금성사	부산	황용사	김해
		약사암	충남	도솔사	서울	복천사	부산
		지장암	서울	독성암	서울	태광암	부산
		정암사	부산	천궁사	서울	묘법사	마산
		상원사	서울	관음사	마산	대선사	경남
				연화사	서울	보문사	경남
				소원정사	부산	비로사	경북
				어울락	경남	소우선원	경북
				명성암	경남	약수암	경남
						약명사	부산
						진영포교당	경남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전화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겠습니다.
055)941-1083. H.P 010-4595-0017 덕유산 청다향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지혜의 샘

자타카 이야기 9

– 아홉 빛깔 사슴과 나무꾼 –



구성-김흥인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㉟

선문답의 방법과 방식

스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2002년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린 한중일 무차선법회에서 법거량하는 진제 스님과 묵산 스님

당대(唐代) 조사선의 선승들은 상당법어와 선문답 등 각종 법어를 통해 고준한 선어록을 남겼다. 마조도일, 백장회해, 조주종심, 운문문언, 임제의현 등 선승들의 법어는 정법의 눈(正法眼)을 열어주는 청량한 말씀으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선의 바다를 만들었다. 당대(唐代)의 선, 조사선은 곧 '공안 형성의 시대' '선문답의 시대'였다.

반면 송대의 선은 당대 선승들이 남긴 선어록이나 선문답·공안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대, 해석, 주석하는 시대, 우려먹는 시대였다. 송대에는 유명한 공안이 별로 없다. 있어도 깨달음의 문을 여는 공안이 되지 못했다. 간화선의 시대에서도 전해지는 선문답은 모두 당대의 것이다.

선(禪)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선승과 선승, 또는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격외의 대화, 방외(方外)의 대화를 '선문답(禪問答)'이라고 한다. '선을 주제로 나누는 문답'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법거량(法去量, 法擧揚)'이라고 하는데, '법(法)을 재어본다' '법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법담(法談)'이라 한다.

선이 중국으로 건너온 이후 최초의 선문답은 달마와 제자 혜가 사이에 오고간 '안심법문(安心法門)'이다.

"그대의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면 편안하게 해 주겠다"는 달마의 말에 혜가는 온 사방을 뒤져도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고심(苦心)의 실체가 없음[空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달마의 안심법문 이후 새로운 많은 선문답이 탄생했다. 그 때마다 한 명의 깨달은 선승이 탄생했는데, 유명한 선의 역사서인 〈전등록〉에는 무려 1700가지나 되는 공안(선문답)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 수록된 선문답은 참선자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지남(指南) 혹은 방편이 됐다. 수행자는 세속적인 틀을 벗어난 격외(格外)의 문답(대화)을 통해 관념의 지옥으로부터 탈출해 진리의 당체를 직시한다.

선문답은 중국 선불교가 낳은 독특한 형태의 대화방식이다. 중국 한당(漢唐) 시문학의 고수(高手)들은 만나자마자 싯구 두세 수(首)를 주고받으며 상대의 실력을 가늠했다. 여기서 꺾이면 하수(下手)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또한 중국 장수들이 전장에서 상대 장수를 맞닥뜨려서 기(氣)로, 혹은 비수(匕首) 같은 언어로 상대를 제압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선문답의 형태는 독자들도 익히 알겠지만, 여기서 한두 가지 선문답의 예를 보도록 하겠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영운(靈雲志勤, ?~866) 선사를 찾아가 물었다.

"선사,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如何是 佛法大義)?"라고 묻자 영운 선사는 직답을 회피하고 빙 둘러서 "여사미거 마사도래(驢事未去 馬事到來, 당나귀의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다가왔다)"라고 답했다.

'불법의 대의(大義)'에 대해 물었는데, 영운 선사는 엉뚱하게도 '여사미거 마사도래'라고 답했으니, 이야말로 상식이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어지간한 질문자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 자고로 길이 있으면 흔적이 있게 마련이고 언어가 있으면 뜻이 있게 마련이다. 선사의 답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만 하수는 그것을 포착하지 못할 뿐이다. 여기서 그 누구든 정곡을 찌르는 답을 한다면, 아니면 저절로 "하하"하고 너털웃음을 친다면, 그는 영운 선사의 경지에 이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 화두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선문답을 보자. 어떤 스님이 운문(雲門, ?~949)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진리)입니까?" 운문 선사는 "간시궐(乾屎厥, 마른 똥 막대기)"하고 대답했다. '간시궐(마른 똥 막대기)=부처(진리)?' 이야말로 중국 선종사상(史上) 천하의 고수들의 입을 틀어막는(坐斷天下人舌頭) 공안이다. 운문 선사의 말뜻을 안다면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고, 모른다면 간시궐은 역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방식의 대화를 '선문답(법거량)'이라고 하는데, 선문답이나 법거량에는 어떤 정해진 형식이나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형식이나 방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선불교 낳은 '선문답'

형식 없음이 바로 그 형식

선문답은 매우 짧다. 문답은 보통 두세 번 정도에서 끝난다. 길어도 4~5번을 넘지 않는다. 전개 방식도 방외(方外)·격외(格外)이다. 이것을 활구(活句)라고 한다. '생명을 주는 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살아 있는 말'이라는 뜻이다. 4~5회 이상을 넘으면 깨달음을 열어 주는 선문답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분별적인 사고로 몰아넣는 사구(死句, 죽어 버린 말, 무의미한 말)가 되어 버린다.

선문답은 대부분 1:1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간혹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도 있다. 예컨대 하안거나 동안거가 시작되는 결제일이나 끝나는 해제일 법어, 또는 기타 상당법어가 이에 해당된다. 이 때는 방장이나 조실 스님이 많은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선문답은 즉문즉답(即問即答)으로 진행된다. 양자가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안 된다. 머뭇거리면 그것은 벌써 분석적 사고, 사량분별, 즉 알음알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깨달음이 체화, 생활화됐다면 선의 대화는 아무런 인위적인 작위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야 하고 말끝마다 진리의 당체를 가리키는 언어가 돼야 한다. 분별의식, 알음알이에서 나온 말은 깨달은 자의 언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활구문답이 아닌 사구문답이다.

그렇다고 '여사미거 마사도래', '간시궐', '마삼근' 등 선문답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괴변이나 또는 즉흥적인 만용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선문답에는 일정한 기준과 치밀한 선의 논리가 바탕하고 있다.

선문답의 기준, 선의 논리는 바로 공(空)사상·무아(無我)·불이(不二)·중도(中道)·무집착(無執着)·무분별(無分別)·몰종적(沒?迹)·무심(無心)·일체유심조·불립문자·언어도단·부사의(不思議) 등에 바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사상에 바탕한 언어, 선의 세계를 드러낸 언어가 아니라면 그것은 선문답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깨달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선시(禪詩)와 오도송도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선시도 오도송도 아니다.

선문답은 즉문즉답으로 진행

상대 가늠하려면 안목있어야

선문답은 두세 가지 정도 역할을 한다.

첫째, 선승과 선승 사이에 주고받는 선문답은 상대방의 경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물론 여기서 하수는 고수에게 한 수를 배운다. 하수는 고수들과의 많은 실전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가 더욱 단단해 진다. 무른 쇠를 불에 달구었다가 물에 넣기를 반복하면 강철이 되는 것과 같다.

중국 선종사에서 수천 명의 선승이 나타났지만, 산문(山門)을 개창한 이는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쇠를 녹여 쟁기를 만드는 기술은 대종장(大宗匠)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처럼 수백 명을 지도해 부처로 만드는 기술은 정법안장을 갖춘 노련한 선승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제자와 나누는 선문답은 제자로 하여금 그 즉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제자가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돌아가서 참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말은 참구해야할 화두가 된다.

셋째, 깨달음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깨달음을 검증하는데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선사만이 알 수 있다. 그 검증 방법이 바로 선문답 또는 오도송이다. 선문답이나 오도송 등을 통해 그의 경지를 가늠한다.

선문답은 오늘날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로 전개되는 대화(토론)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 이유는 선의 기준과 논리, 가치관은 세속적 논리, 세속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세속의 가치관은 지식과 물질적인 소유를 추구하지만 선은 지식을 부정하고 무소유를 추구한다. 세속에서는 부모·자식·부부간 등 모든 면에서 애착이 바탕이 되지만 선은 무집착을 추구한다. 근본적으로 선이 추구하는 바와 세속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주제도 대화 방식도 다른 것이다.

선은 공안, 화두를 참구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깨달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저 수행자가 깨달은 것인지' '화두를 타파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아무 것도 없다. 몇 년을 참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대학입시처럼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다. 방법은 오직 선문답을 통해 또는 그가 지은 싯구를 통해 깨달음 여부를 가늠한다.

선문답(법거량)을 통해 상대방을 가늠하려면 선사의 안목이 탁월해야 한다. 뛰어난 안목과 식견, 혜안과 통찰력을 가진 유능한 선사는 상대방의 한 두 마디 말만 들어보면 곧바로 그 경지를 간파할 수 있다. 언어와 행동에 드러난 그 사람의 면면은 아무리 가식을 부려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마디에 파악 못하면 그는 탁월한 선사, 법안을 가진 조실이 아니다.

선문답을 통해 깨달은 것이 확인되면 스승은 제자에게 인가 증명을 내린다. 이때 스승은 그 징표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발우(鉢盂)나 가사(袈裟)를 하사한다. 물론 제자로서는 일생일대의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더욱 치열한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원다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네이버,다음 에서 '초록원웰빙'을 검색하세요.



한국구술인물사⑨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아물지 않는 한국전쟁의 흔적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전재성은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1977년 10월 폐간호 〈대화〉 잡지에 '민중불교론'을 게재한다. 전서암이라는 필명으로 기고했다. 그러나 이 글은 1년을 기다린 후 우여곡절 끝에 실렸다. 사회운동에 관심 있었던 불교인들이 이 글에서 많은 용기를 얻었다. 소극적이던 불교계의 민주화운동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동인을 제공했다. 엄혹했던 유신독재시절, 불교계의 지성을 현장으로 이끌어낸 글이다. 전재성의 구술에 따라 대불련(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살펴본다.

그는 서울대 농대 농화학과 1학년 때 불교학생회를 결성했고, 1974년 겨울 대불련 회장에 당선되어 1975년 한 해 동안 활동했다. 회장으로 피선되기 이전에 전재성은 민청학련 사건에 가담했다가 감옥생활을 했다. 이 때 동국대에서 민청학련을 주도했던 여익구가 구속되었다 석방(1975년 2월)되자 그를 만났다. 그리고는 이른바 '민중불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고려대 부근 대원암에 주석했던 탄허 스님을 중심으로 당시 고은, 황석영, 고준환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국가변란을 꾀했다는 혐의를 씌워 여익구와 전재성은 다시 구금했다. 다시 풀려났지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여익구는 출가하여 승려가 됐고, 전재성은 대불련 회장이라는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혔고 항상 시위 발생하기 전에 구금됐다.

전재성은 1953년 한국전쟁 막바지에 출생했다. 내성적이면서 항상 가슴에 응어리



고려대 부근 대원암

를 지녀야 했다. 부산 난민촌에서 성장할 때 겪은 화상 때문이다.

"밥을 할려고 이제 끓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문 앞에다가 놨어요. 근데 제가 "엄마 무좀 줘" 하면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은 거야 문을. 문을 열으니까 아~ 우리 형님이 있다가 또 뒤에 있다가 "나도 물 좀 줘" 하면서 문을 또 활짝 열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문 앞에다 놓은 끓는 물속에 이렇게 확 빠진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여름이라면 괜찮았을 텐데 겨울이라서 겨울에 끓는 물에 빠졌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작은 하꼬방 집에서 여러 식구가 옹기종기 살았으며, 끓여 놓은 물에 화상을 당한 것이다. 팔뚝에 자리한 흉터들을 보여준다. 몸 전체에 화상 흔적이 드리워 있었고 그는 성장 과정 특히 사춘기에 겪었던 고뇌를 호소하였다.

부모님과 조상은 대대로 함경도 신흥군에서 살았다. 전재성의 할아버지는 비록 화전민이었으나 천도교를 신봉하였고, 글 모르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고 한다. 책을 읽어준다던가 이웃의 대소사가 생기면 글을 써 주는, 이른바 동네의 식자층이었으며 또한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부친은 광업소 혹은 철공소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정밀한 기계로 작업하는 내용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건너가 일했으며, 해방과 함께 귀국하여 계속 기계 작업을 했다. 6.25전쟁에 이어 1.4 후퇴 때 전재성의 가족은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왔다. 거제도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주한 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서울에 올라왔다. 중학교 시절과 고교 시절을 회고한다.

"제가 경동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때 인제 그 생물 선생님이 아주 그 참선 불교지도 명상지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존경스러웠던 분이시고 제가 그 밑에서 조금 그 일주일마다 한 번 참선같은 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⑩

"일등품 세가마…" 철저하게 소임살던 선지식

경봉 스님은 선사(禪師)이면서도 사찰의 소임이 맡겨지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어려운 시기 불교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1932년(41세)에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講主)에 취임하여 학인(學人)스님들을 이끌었고, 1935년(44세)에 통도사 주지를 맡았다.

1932년 2월 17일 〈삼소굴일지〉에 경봉 스님이 통도사 강원 강주소임을 보면서 적은 내용이다.

"밤에 학인들의 연설에 참석하니 연제(演題)가 봄맞이, 우리의 사명, 노력은 성공의 기초, 불교에서 본 대자대비, 망중한 등이었는데, 이 연설을 듣고 나서 관례대로 연설하는 태도와 방법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

강원에서 학인스님들에게 설법을 하게 해 지도한 모습에서 스승과 제자의 훈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1937년 1월 일기를 보면 통도사 주지 소임을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하게 한다.

"일등품이 3가마, 이등품 390가마, 삼등품 605가마, 등외 109가마, 계 1107가마 내(內)에서 매 가마당 7원 85전씩 박현진이 사가고, 사중창고 500석 매 석당 17원 39전에 황현암이 사가다."

경봉 스님은 당시 사중의 쌀을 입찰 경매하는 내용조차 위와 같이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이를 통해 스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소임을 사셨는지 알 수 있다. 또, 이는 통도사의 살림규모를 살펴볼 수 있고, 현재의 통도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지금도 쌀 수확은 본사 대중이 자급자족하기에 충분하다. 1000미터가 넘는 영축산은 마치 병풍을 친 것 같이 넉넉하게 펼쳐져 모든 면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경봉 스님은 통도사뿐만 아니라 국내 불교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스님은 1941년(50세)에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 이사장에도 취임하게 된다.

1941년 봄 일본 불교계를 시찰하고, 1945년 54세 때 선학원 이사장 1946년 55세 때 불교혁신총연맹본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다. 이러한 시기 스님은 통도사 강주와 주지, 극락선원 개설, 화엄산림법회 개설 등 정진과 포교의 각 방면으로 활발하게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에 충실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의 오보로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어 2일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1945년 8월 15일 식민지 지배체제를 벗어나 자주독립 국가를 달성할 기회를 맞이했다. 이 때 경봉 스님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동해 반도에 새 가을을 맞아
한국전쟁이 이 날 모두 끝났네.
길이 빛나거라 순국절사의 공명이여,
와신상담(臥薪嘗膽)한 충렬들 얼마나 근심스러웠나.
매란의 은은한 미소 뭇 향기 압도하고
강물과 바닷물 한 맛으로 흐르네.
풍진이 다 지나가 국민이 즐거워하니
이제부터는 응당 태평세월 누리리라."

경봉 스님은 해방된 기쁨을 함께하시며 순국열사들을 위로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것을 축원하셨는데 이러한 스님의 기원대로 순풍에 돛단배처럼 안정된 우리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㉛ 북산석굴

석굴에 새겨진 당의 문화



대족지역의 북산석굴

돈황의 불교는 당나라 때 들어 불교문화의 획을 그었다. 중국을 떠나며 살펴봐야 할 것은 사천지방의 석굴이다. 사천은 석굴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 중 하나인데, 특히 대족(大足)지방의 석굴이 매우 흥미롭다.

사천지역은 안사의 난(중국 당나라 현종 말, 755년에 안녹산과 사사명이

석굴이 발달했던 사천지역
대족지역 북산석굴이 대표적

일으킨 반란)과 회창폐불(845년 당나라 무종이 일으킨 법란)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으로, 독자적인 불교를 이룩했다. 특히 당 현종이 안사의 난을 피해 사천지방으로 이주하는 시기에 당나라 중앙에서 활동하던 문인이나 화공 공인들이 사천으로 상당히 이주했다. 이런 영향으로 당시 유행하던 밀교가 사천지역에 새로운 불교문화를 이룩했다. 또한 당시 사천에서 활동하던 신라출신의 정중무상(淨衆無相: 684~762)이 성도(成都) 정중사(淨衆寺)에 주석했다. 그는 사천에서 새로운 불교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족지역의 석굴 중 북산(北山) 석굴은 당나라 시대 후기의 불교문화를 잘 보여준다. 245굴은 관무량수경변상을 벽화가 아닌 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으며, 밀교적 영향을 받은 약사유리광불(藥師琉璃光佛)과 북방비사문천왕(北方毘沙門天王)상이 조상된다. 비사문천의 경우 사천왕은 하나지만 밀교의 성행이후 비사문천이 중시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사천지역에 관한 불교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정중 무상 스님을 중심으로 중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 수용된 밀교문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당나라 때 중국문화는 최고의 전성기에 도달했다. 통일신라(676)에는 우리나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당시 무수한 승려들이 당나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새로운 불교적 흐름을 간직하고 이 땅에 들어왔다. 이전과 달리 무수한 구법승들의 활동은 불교문화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당나라 현장이 인도에서 귀국한 이후 당나라의 불교문화를 바꿔 놓았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통일신라에 연출된 것이다. 통일신라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했다. 문화는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면서 화려한 꽃을 피운다. 이제 신라 땅에서 새로운 불교문화의 장이 열리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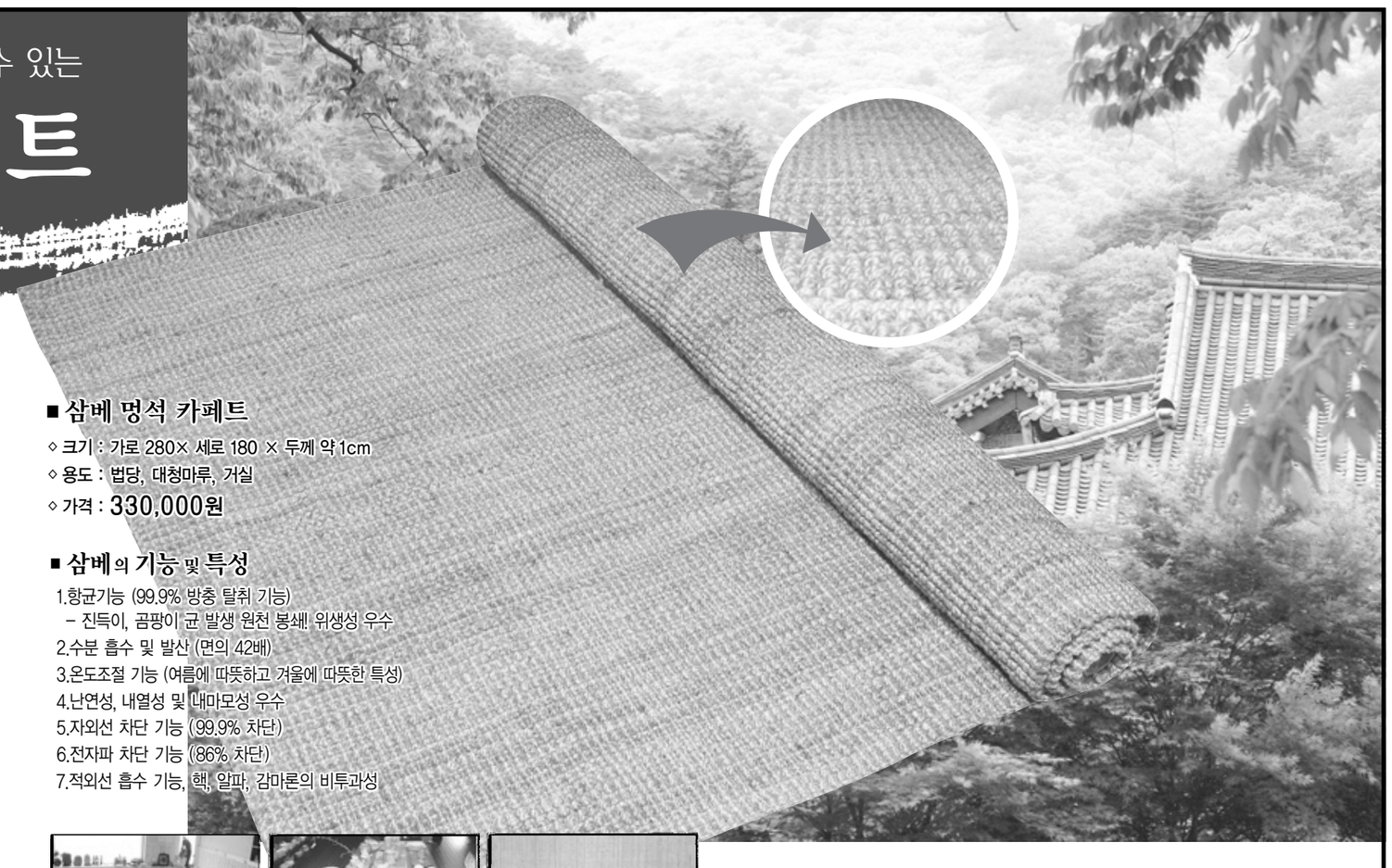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6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요사 : 55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충남
- 법당 : 22평(목조)
- 요사 : 45평
- 부지 : 120평
- 가액 : 2억 9천

- 위치 : 전북
- 법당 : 17평
- 요사 : 37평
- 부지 : 170평
- 가액 : 2억 5천
  납골당 2000기중
  미분양 1500기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금정산 대사찰(천년고찰)

- 총대지 : 약 5700평
- 법당 약 80평, 요사채 및 기타 5동
- 부산 금정산 자락
- 가액: 18억

진주 아름다운사찰(100년)

- 대지 : 600평
- 법당 20평 요사 및 기타 5동
- 진주 인터체인지 5분거리
- 주차장 120평
- 총금액 4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부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가람터 추천

당사가 보유중인 전원주택지. 별장지 중 지세에 밝은 큰 스님이 특별히 절터나 기도원 용지로 적합하다고 추천한 다음의 토지를 불자 사부대중께 우선 양도합니다. 공통적으로 남향, 뒤로는 소나무 숲, 앞으로는 탁트인 경관, 포장도로를 접하고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1. 경남 밀양시 상동면 1,300평 토목공사 완료 평당 27만원
2. 경남 밀양시 상동면 1,400평 과수원 평당 14만원
3. 경남 양산시 원동면 560평 택지조성 완료 3백년생소나무숲 평당 60만원
4. 경남 양산시 원동면 290평 택지조성 완료 평당 60만원
5. 경남 창녕군 길곡면 1,200평 낙동강 내려보임 평당 20만원
6. 경남 하동군 청암면 650평 토목공사 완료 큰계곡, 평당 38만원
7. 경남 사천시 곤양면 2만 2천평 임야 호수가, 관리지역 약 5천평, 소나무숲 약 3천평 평당 2만

청산전원주택 대표 중산 010-3872-0354

포교원안내

- 대구 두류공원 성당 못 근교
- 시설(포교활동 위치) 최상급
- 법당, 방3(상담실)화장실
- 주방: 아파트식 넓은 시설완비
- 총평수: 65평(4층 전체)
- 옥상: 옥탑창고 2개 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인연되시는 스님 상담후 형편에 맞게 시설비는 결정

011-807-004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납 골 공 원

- 위치: 전남 장성
- 면적 9500평
- 법당 27평, 요사 29평
- 납골허가기수 15,000기
- 가액: 20억

062)431-8484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총 120평(3층 90평, 4층 30평)
- 법당, 방5, 화장실 4, 후원및 주방
- 시설 A급모든시설완비, 현법회중
- 삼존불, 후불, 인등 300등, 관음원불 108불, 삼성각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679-1080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 건물에 2층, 에어컨 3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황도기토굴안내

- 2층단독주택25평
- 법당,왕쏙뜸기토굴방
- 암이나 당료가심해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꼭 받아야 하실 스님,불자님께 양도하고저합니다.
- 기타 생활도구 일체양도
- 보증금 2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조금있음

010-8585-0386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충남 행정도시에서 20분거리
- 평수 : 420평
- 도로, 전기 되있고, 옆 계곡, 청정지역

011-753-076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자락
- 3층건물, 단층건물 100평
- 대지 230평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0-663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지장보살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1,2번출구에서 1분거리
- 35평정도,
-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70만원
-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9472-7572

명당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봉산면 보전관리, 건축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 있음
- 임야, 논 950평
- 계곡과 자연경관 수려함
- 가액: 6천 6백만원

010-2887-41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 평수 : 3층 건물중 3층, 58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살림가능

010-2288-15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야동
- 3층건물중 3층, 옥상사용가능
- 건평 50평 이상
- 방2, 사무실, 주방, 창고, 베란다, 화장실, 공간 사용 편리함
-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모든시설 완벽함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가액: 총 합계 3천8백만원

070-4127-35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큰 도로 옆
- 2층 상가 건물
- 1층 요사채(상가), 방2, 화장실2
- 2층 법당 외 방2, 화장실 1
- 양도가액: 1억 3천 5백만원
- 사정상 급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5054-6782

조용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 600평, 임법당 60평
- 공양간 30평, 창고 10평
- 방 4개
- 가액: 2억 5천만원

010-4775-27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남산사찰
- 대지 450평
- 목조건물 3동
- 마당앞 보물 신라쌍석탑2기
- 가액:8억(절충가능)

010-5561-0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216-1525

토굴(암)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
- 300평
- 건물 45평
- 시내에서 5분거리 산속
- 가액: 1억천만원
- 토굴기도처로 적합

010-3568-6949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돌상한분,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
- 건물: 법당 20평(등기)
-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
- 산을 끼고 물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
- 가액: 1억
- 꼭하실분만, 장난전화사절

010-2692-596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부 경남 지역
- 진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320평, 대웅전, 목조기와, 요사채 1동
- 별채2동, 총평수 2500평
- 가액: 차후결정

055)742-029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216-1525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미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철학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 조방앞)
- 평수 30평, 2층
- 법당: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852-75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8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지장보살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 목조,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 석굴암, 기타찬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남녀 화장실 별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010-4668-7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소재 매우 오래된 사찰
- 평수 : 종교용지 1800평
- 절묘한 도량으로 산기운이 강한 기도터이므로 신심이 돈독하신 분으로 마음공부나 기도정진하실분 외에는 전화사절 합니다
- 지병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액: 8억 6천만원)

010-2034-779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8억 5천

- 위치 : 충남
- 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9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급)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현동 (최요지) 전철 3분, 시장 2분 거리
- 부지 130평, 건평150평/ 주차 7~8대 가능
- 1층 50평 큰방1개, 큰거실1개, 큰공양간 2층 대웅전, 방1개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개, 다실 별도 2,3층 베란다 사용
- 가액 : 7억 8천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7-572-37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 조방앞)
- 평수 30평, 2층
- 법당: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852-75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요사채 25평
- 법당 15평, 시설 완벽함
- 몸만 오시면 포교가능함
- 가액: 1억 8천만원 (가격절충불가)

011-792-89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 평수: 35평 (삼존불, 지장, 신중, 산신탱화, 최상급인등) 방2, 부엌, 화장실
- 유동인구 많은 APT 밀집지역
- 최고위치,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4534-3646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위치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진구
- 당감시장입구 큰대로변
- 대지 62평, 3층건물 중 2층 32평
- 공양실, 주방, 욕실, 방3칸
- 3층 32평, 대법당
- 전세1억, 월세도가능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257-54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포교원(급)안내

-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40평
- 방1, 공양간, 법당
- 삼존불봉안(미타, 관음,지장)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6227-5965

아담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 총 약 200평, 실용가능 면적 약 400평
- 토굴內아파트식으로 올수리 (방2개, 넓은거실겸 부엌, 욕실, 붙박이장)
- 창고, 토굴앞 텃밭, 비닐하우스2동, 주차장 산자락끝에 위치하며 앞으로는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 가액: 6천 5백만원

054)457-4367
010-7163-08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입구
- 평수 63평
- 법당 25평, 산신2평, 요사채 20평, 주방 10평, 스님방 3개
-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정자항과 관광이 모이는곳 사찰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는 형편맞게 결정

011-831-732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현동 (최요지) 전철 3분, 시장 2분 거리
- 부지 130평, 건평150평/ 주차 7~8대 가능
- 1층 50평 큰방1개, 큰거실1개, 큰공양간 2층 대웅전, 방1개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개, 다실 별도 2,3층 베란다 사용
- 가액 : 7억 8천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7-572-371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지장보살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 목조,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 석굴암, 기타찬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남녀 화장실 별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010-4668-7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소재 매우 오래된 사찰
- 평수 : 종교용지 1800평
- 절묘한 도량으로 산기운이 강한 기도터이므로 신심이 돈독하신 분으로 마음공부나 기도정진하실분 외에는 전화사절 합니다
- 지병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액: 8억 6천만원)

010-2034-7799

사 찰 안 내

- 경기도 안성 시내 최고 중심지
- 3층건물 전체 약 20평
- 1층 : 친견실 및 공양간
- 2층 : 법당,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영단, 원불 외 모든 시설 완비
- 3층 : 요사채
- 가액: 2억 5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함

010-8678-052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 평수 : 41평 (4층) 법당, 친견실, 삼존불
- 5층 : 주택 약 30평 큰방 4, 공양간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현재 법회중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입구
- 평수 63평
- 법당 25평, 산신2평, 요사채 20평, 주방 10평, 스님방 3개
-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정자항과 관광이 모이는곳 사찰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는 형편맞게 결정

011-831-732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 목조,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 석굴암, 기타찬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남녀 화장실 별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010-4668-7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소재 매우 오래된 사찰
- 평수 : 종교용지 1800평
- 절묘한 도량으로 산기운이 강한 기도터이므로 신심이 돈독하신 분으로 마음공부나 기도정진하실분 외에는 전화사절 합니다
- 지병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액: 8억 6천만원)

010-2034-77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6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요사 : 55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충남
- 법당 : 22평(목조)
- 요사 : 45평
- 부지 : 120평
- 가액 : 2억 9천

- 위치 : 전북
- 법당 : 17평
- 요사 : 37평
- 부지 : 170평
- 가액 : 2억 5천
  납골당 2000기중
  미분양 1500기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금정산 대사찰(천년고찰)

- 총대지 : 약 5700평
- 법당 약 80평, 요사채 및 기타 5동
- 부산 금정산 자락
- 가액: 18억

진주 아름다운사찰(100년)

- 대지 : 600평
- 법당 20평 요사 및 기타 5동
- 진주 인터체인지 5분거리
- 주차장 120평
- 총금액 4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부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가람터 추천

당사가 보유중인 전원주택지. 별장지 중 지세에 밝은 큰 스님이 특별히 절터나 기도원 용지로 적합하다고 추천한 다음의 토지를 불자 사부대중께 우선 양도합니다. 공통적으로 남향, 뒤로는 소나무 숲, 앞으로는 탁트인 경관, 포장도로를 접하고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1. 경남 밀양시 상동면 1,300평 토목공사 완료 평당 27만원
2. 경남 밀양시 상동면 1,400평 과수원 평당 14만원
3. 경남 양산시 원동면 560평 택지조성 완료 3백년생소나무숲 평당 60만원
4. 경남 양산시 원동면 290평 택지조성 완료 평당 60만원
5. 경남 창녕군 길곡면 1,200평 낙동강 내려보임 평당 20만원
6. 경남 하동군 청암면 650평 토목공사 완료 큰계곡, 평당 38만원
7. 경남 사천시 곤양면 2만 2천평 임야 호수가, 관리지역 약 5천평, 소나무숲 약 3천평 평당 2만

청산전원주택 대표 중산 010-3872-0354

포교원안내

- 대구 두류공원 성당 못 근교
- 시설(포교활동 위치) 최상급
- 법당, 방3(상담실)화장실
- 주방: 아파트식 넓은 시설완비
- 총평수: 65평(4층 전체)
- 옥상: 옥탑창고 2개 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인연되시는 스님 상담후 형편에 맞게 시설비는 결정

011-807-004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납 골 공 원

- 위치: 전남 장성
- 면적 9500평
- 법당 27평, 요사 29평
- 납골허가기수 15,000기
- 가액: 20억

062)431-8484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총 120평(3층 90평, 4층 30평)
- 법당, 방5, 화장실 4, 후원및 주방
- 시설 A급모든시설완비, 현법회중
- 삼존불, 후불, 인등 300등, 관음원불 108불, 삼성각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679-1080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 건물에 2층, 에어컨 3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황도기토굴안내

- 2층단독주택25평
- 법당,왕쏙뜸기토굴방
- 암이나 당료가심해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꼭 받아야 하실 스님,불자님께 양도하고저합니다.
- 기타 생활도구 일체양도
- 보증금 2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조금있음

010-8585-0386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충남 행정도시에서 20분거리
- 평수 : 420평
- 도로, 전기 되있고, 옆 계곡, 청정지역

011-753-076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자락
- 3층건물, 단층건물 100평
- 대지 230평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0-663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지장보살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1,2번출구에서 1분거리
- 35평정도,
-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70만원
-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9472-7572

명당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봉산면 보전관리, 건축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 있음
- 임야, 논 950평
- 계곡과 자연경관 수려함
- 가액: 6천 6백만원

010-2887-41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 평수 : 3층 건물중 3층, 58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살림가능

010-2288-15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야동
- 3층건물중 3층, 옥상사용가능
- 건평 50평 이상
- 방2, 사무실, 주방, 창고, 베란다, 화장실, 공간 사용 편리함
-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모든시설 완벽함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가액: 총 합계 3천8백만원

070-4127-35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큰 도로 옆
- 2층 상가 건물
- 1층 요사채(상가), 방2, 화장실2
- 2층 법당 외 방2, 화장실 1
- 양도가액: 1억 3천 5백만원
- 사정상 급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5054-6782

조용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 600평, 임법당 60평
- 공양간 30평, 창고 10평
- 방 4개
- 가액: 2억 5천만원

010-4775-27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남산사찰
- 대지 450평
- 목조건물 3동
- 마당앞 보물 신라쌍석탑2기
- 가액:8억(절충가능)

010-5561-0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216-1525

토굴(암)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
- 300평
- 건물 45평
- 시내에서 5분거리 산속
- 가액: 1억천만원
- 토굴기도처로 적합

010-3568-6949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돌상한분,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
- 건물: 법당 20평(등기)
-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
- 산을 끼고 물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
- 가액: 1억
- 꼭하실분만, 장난전화사절

010-2692-59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남산사찰
- 대지 450평
- 목조건물 3동
- 마당앞 보물 신라쌍석탑2기
- 가액:8억(절충가능)

010-5561-0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216-1525

토굴(암)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
- 300평
- 건물 45평
- 시내에서 5분거리 산속
- 가액: 1억천만원
- 토굴기도처로 적합

010-3568-6949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돌상한분,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
- 건물: 법당 20평(등기)
-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
- 산을 끼고 물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
- 가액: 1억
- 꼭하실분만, 장난전화사절

010-2692-59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남산사찰
- 대지 450평
- 목조건물 3동
- 마당앞 보물 신라쌍석탑2기
- 가액:8억(절충가능)

010-5561-0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216-1525

토굴(암)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
- 300평
- 건물 45평
- 시내에서 5분거리 산속
- 가액: 1억천만원
- 토굴기도처로 적합

010-3568-6949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사 찰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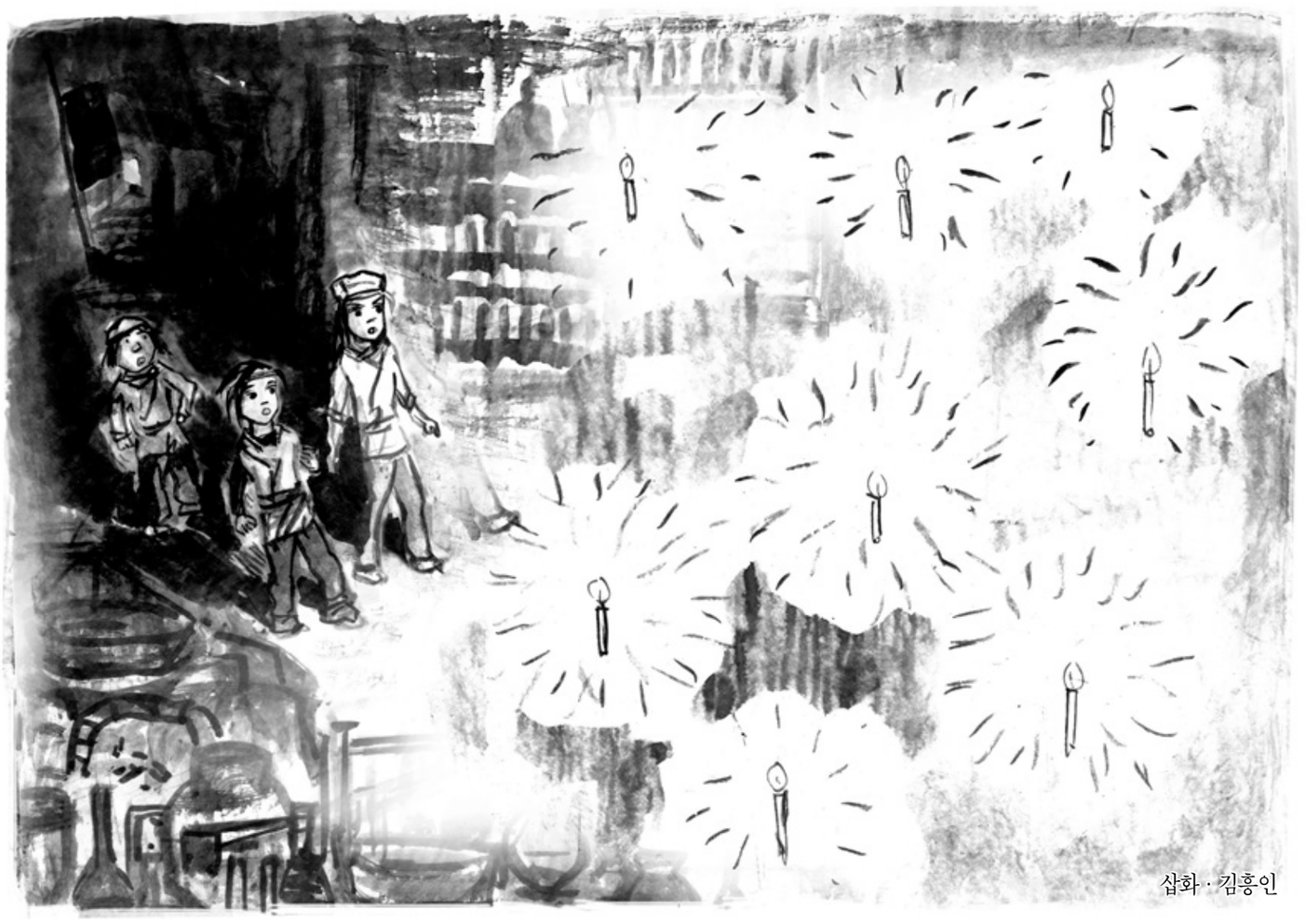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야. 그걸 꼭 지금 다 확인해야해? 얼른 나가야지!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5)



삽화 · 김흥인

당황한 무니 일행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앞으로 쏟아졌다. 순간 무니가 "뭐야!"라고 소리치려하자, 난다가 얼른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급하게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들은 남카의 손짓에 따라 쪼르르 걸어가 벽 옆에 몸을 바짝 붙였다. 이어 말소리가 들려왔다.

"적어도 그 어린 녀석들이 거기 있는 동안은 마을 분위기가 잠잠하겠지."

낮고 카랑카랑한 목소리, 아침에 들었던 촌장의 목소리였다.

"게다가 만약 정말 그 아이들 때문에 용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면, 그건 그걸로 최선의 결과겠지요. 누구도 애지중지하는 자기 자식을 내놓으려 하지 않으니까요. 촌장님에게 막내 아들 남카가 그런것처럼 말이지요."

이 목소리 역시 무니와 난다에게 낯설지 않았다. 아침의 그 남자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분명 저 자의 집에 우리 물건이 있어!' 남카만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고개를 숙였고, 그 후로 계속 얼굴을 들지 못했다. 잠시 말이 없던 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흠. 자네, 그 꼬마 녀석들을 이용하자고 한 게 남카를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웃기는구만. 술 냄새가 아직도 난다는 건 알고 있나. 여긴 도대체 뭐 하러 온 건가. 약속 한대로 그 아이들의 짐이라면 모두 자네가 가져도 상관없다고 한 거 같은데?"

촌장의 마지막 말을 들은 남카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뭔가 생각이 난 모양이었다. 그리고 일행에게 손짓으로 이동할 방향을 가리켰다. 아이들이 다시 남카의 뒤를 따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니가 난다에게 귓속말로 질문했다.

"그런데 저 녀석 지금 우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방금 그 남자네 집이겠지, 아침에 봤던."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 쓰러져 가는 폐가로 도저히 집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장소였다. 얼기설기 짚으로 메운 구멍 때문에 거의 움막이나 마찬가지로 보였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집 밖으로 비쭉 뚫고 나온 원통 모양의 굴뚝이었는데, 하나로 이어지던 굴뚝이 위, 아래 두 개로 나뉘어 있어서 괴상해 보였다. 게다가 집 쪽으로 다가갈수록 뭔가 썩는 듯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 냄새에 잔뜩 인상을 구기던 무니와 난다는 그 지독한 냄새에 아침의 그 술 냄새도 희미하게 섞여있음을 곧바로 알아챘다. 무니가 말했다.

"확실히 그 주정뱅이 녀석의 술기운이 느껴지는군."

그때 오는 내내 별 말이 없던 남카가 앞장서서 문대신 걸려있던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난다가 뒤따랐다.

"넌 여기 있어. 누가 오는 지 망 좀 봐줘, 알았지?"

무니가 칸타카에게 말했다. 조랑말은 늘 그랬던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무니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키더니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남카의 조그만 등불에 드러난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여기저기 무엇이 들어 있는지, 혹은 들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자루들이 널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다. 벽 한 쪽에는 움막 같은 장소와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화덕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아궁이가 두 군데였으며, 이상한 모양의 병들이 그 구멍 앞마다 놓여 있었다. 이어서 불빛에 비춰 보이는 것들도 온통 병이었다. 특히 무슨 실험대인 듯 보이는 커다란 탁자 위에는 온갖 모양의 병들이 빼곡했고, 여러 가지 색깔의 암석과 금속들이 쌓여있었다. 무니는 어쩐지 이곳의 풍경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동안 정신없는 표정으로 남카의 등불을 따라 시선을 옮기던 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거지? 누가 사는 곳이라고?"

"연금술사."

무니와 난다의 눈이 마주쳤다.

"연 · 금 · 술 · 사? 그럼 아침의 그 주정뱅이가 바로 연금술사라는 거야?"

남카는 흥분한 표정의 두 소년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니는 다시 어두컴컴한 방을 휙 둘러봤다. 이곳이 익숙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유리 영감의 오두막과도 매우 비슷했던 것이다.

연금술사를 찾았다는 뜻밖의 사실 때문에 잠시 멍했던 무니와 난다는 일단 자신들의 짐부터 찾기로 하고, 남카의 도움을 받아 온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을 환히 밝히지 못해 어두운 데다 집 안이 워낙 뒤죽박죽이라 한참을 뒤졌는데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화덕 근처는 그들이 근처에서부터 맡을 수 있었던 악취가 심해서 다가가기가 꺼려질 정도였다. 무니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도대체 이 결정적인 역한 냄새는 뭐냐? 저 쓰레기에서 나는 거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유황 냄새야. 할아버지의 오두막에서도 가끔 이 냄새가 나곤 했어."

난다 역시 코를 막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곳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을 다 뒤져본 셈이 되자, 결국 화덕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벌써부터 멀찍이 떨어져 불만 비춰주고 있던 남카는 그래도 여전히 안 되겠는지 냄새를 피해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 버린 상태였다. 다행히 금방 "찾았다!"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난다였다. 남카와 아예 구석까지 가있던 무니 역시 그쪽으로 급히 다가갔다. 그러나 난다가 찾아낸 것은 그들의 짐이 아니라 아궁이 깊숙이에서 땅 밑으로 나 있는 커다란 구멍이었다.

"뭐야? 이게 '찾았다!'라고 외칠 만큼 대단한 거야? 으아! 냄새 하나는 진짜 대단하다."

아궁이 안을 들여다보던 무니는 코를 틀어막았다.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문양 하나가 들어왔다. 완전히 겹쳐지기 직전으로 보이는 태양과 달이었다. 무니는 유리 영감의 책장에서 비슷한 걸 본 기억이 났다. 그 두 원을 겹치자 타원형이 만들어졌고, 그것은 왠지 아궁이 안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여기에 들어가자는 거야?"

"야. 샅샅이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았잖아? 그럼 그 큰 짐들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겠냐."

계속 인상을 쓴 채로 아궁이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에게 난다가 말했다. 무니는 이윽고 결심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아궁이 안쪽으로 기어들어 시작했다. 입과 코를 옷으로 가린 난다도 무니를 따라 들어가자, 마지막으로 등불을 든 남카가 뒤를 따랐다.

구멍은 생각보다 깊었고, 남카의 실수로 등불마저 꺼지자 완전한 어둠 속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무니가 괴로워하며 말했다.

"갇히는 거 다음으로 싫은 게 이런 어둠이야."

그러나 다시 점점 시야가 분명해지더니 막 다른 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거지?"

맨 마지막으로 기어오던 남카가 난다에게 물었지만, 난다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때 앞서 가던 무니가 쿵하는 소리를 내며 막다른 벽 아래로 떨어졌고, "어, 어!"하는 사이 난다와 남카 역시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다.

"우와!" 맨 먼저 떨어진 무니가 입 밖으로 처음 낸 소리는 감탄사였다. 수많은 촛불이 환하게 밝히고 있는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넓었다. 벽을 따라 쭉 들어서 있는 장에는 책들과 각종 도구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가장 큰 책장에는 아까 아궁이 안쪽에서 봤던 것과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바로 위의 난장판이었던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아이들의 눈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촛불들이었다. 촛대가 벽에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데다가, 촛농이 하나도 녹아내리지 않아서 각각의 크기 그대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되게 넓은데? 백 명은 누워 잘 수 있겠다."

남카의 말에 무니가 뭔가 생각난 듯 말을 보탰다.

"그럼 용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피신하면 안 돼? 이 정도 깊이로는 안 되나?"

"글쎄. 연금술사는 도대체 언제 이런 걸 팠지? 마을 사람들 모두 몰랐어. 그나저나 이 촛불들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무니와 남카가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감탄하느라 넋을 빼놓고 있을 때에도 난다는 자신의 책가방을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찾았다! 찾았어!"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난다는 자신이 지고 다니던 가방과 칸타카가 들고 다니던 상자까지 모두 열어보며 책과 물건들을 확인했다. 그 모습을 본 무니가 말했다.

"야. 그걸 꼭 지금 다 확인해야해? 얼른 나가야지."

남카 역시 연금술사가 곧 돌아올 지도 모른다며 무니의 말을 거들었다. 그러나 난다는 종이가 없던 시절에 주로 쓰던 진흙 판부터 양피지 묶음, 책까지 뒤죽박죽으로 꺼내 뭔가를 찾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러더니 이윽고 "아!"하며 들기도 무거울 정도인 두꺼운 책 한 권을 상자에서 꺼내들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이란 이름을 가진 사전이었다.

"휴. 그 사람이 책들을 이리저리 다 섞어놔서…."

그러더니 난다는 금세 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야, 지금 그걸 꼭 봐야해? 그 사르나튼지 뭔지 찾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이 집 주인 녀석 돌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이러다 꼼짝없이 용한테 먹히길 기다리며 갇혀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구."

840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조용한 토굴안내
- 위치: 김천시 지래면 신평리
- 대지 200평
- 건평 30평, 방3, 거실, 실내화장실
- 법당 11평, 마당 잔디, 주차공간 8대
- 가액: 5천 5백만원
011-832-5074

인 법 당 안 내
- 위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방 3개중 1개는 법당
- 거실, 주방, 지장보살님 4자
-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모든 살림 집기 일체
- 월세 없이 1천만원에 인수
010-4667-0866

종단및 건물 안내
- 법원등기된 종단과 건물
- 위치: 경기 양평군 단원편
- 대지 206평
- 건평 57평(1층, 2층)
- 가액: 3억 9천 5백만원
010-4562-10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총 2천평
- 현재 불사중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8천만원
010-8681-15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토기와) 20평
-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 38평(2동)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 8억(조절가능)
010-3822-4565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시내
- 상가 1.2층 양도
- 대지 70평, 건평 80평
- 마당, 공양간 넓음
- 법당 50명이상 법회가능 현재 법회중
- 가액: 1억 4천 5백만원
010-6561-65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010-2637-61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점촌동
- 대지 93평
- 법당 7평
- 부대시설 요사채 3동
- 가액 1억
011-9370-4043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슴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시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❾

'꼬끼오'는 '高貴요'



닭. 재강 안태원作. 동양화에서는 닭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장닭을 그린다.

닭 울음소리나 병아리들이 삐약거리는 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달걀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간식과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유익한 음식재료이기도 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을 보고 밥상의 행복을 느끼지 않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한(韓)나라에 꼬리가 긴 세미계(細尾鷄)가 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이전부터 닭이 사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닭은 소와 더불어 한국인에게는 가장 친밀한 동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동양화에 장닭 그리는 이유는
지위와 명예를 추구했기 때문

승가에는 재미있는 농담이 있다. 스님들이 먹는 육보(肉補, 몸이 허약하거나 병환치료중 고기를 보약으로 먹는 경우)를 지칭할 때, 부월채(斧鉞菜)나 천리채(穿籬菜)라는 말을 쓰곤 한다.

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부월채라 한다. 부월채는 소, 돼지를 잡을 때, 도살장에서 도끼를 사용한 데서 나온 말이다. 거기에 채자(字)를 붙여 나물반찬처럼 부른다. 천리채는 닭이나 병아리들이 울타리를 뚫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지었음이 틀림없다.

기록에 의하면, 병고로 인해 오래전 입적한 한국 선불교의 중창자 경허(鏡虛) 스님은 해인사 주지로 있을 때 민가에서 만들어온 닭고기를 드셨다 한다.

경허 스님이 닭뼈를 던지면 고양이들이 받아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는데 스님은 제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은 그러면 안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남방에서는 사찰내 공양간이 없고, 신도들이 공양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게 돼 있다. 신도가 스님들에게 카레치킨을 올리든, 발우에 돼지고기볶음, 소고기산적을 넣든지 간에 스님은 조식·중식으로는 무엇이든 먹어야 한다. 때문에 닭고기는 남방스님들에게는 친숙한 음식이다.

닭은 또 우리의 문화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처갓집에 처음 온 사위를 성대히 대접할 때는 장모가 씨암탉을 잡아 백숙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례였고, 전통민화에서 봉황을 본 적 없는 서민들은 봉황을 그릴 때 닭처럼 그리고 장식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곤 한다. 이렇게 닭과 인간은 친숙한 관계에 있다.

〈담마파다〉라는 남방의 빨리경전인 〈법구경〉에는 이런 일화도 있다.

인도의 바라나시 어느 농가에 사는 암탉 한 마리가 매일같이 알을 낳았지만, 여주인이 매일 알을 가져다가 요리를 해 먹는다. 암탉은 알을 품을 수 없어서 한을 품고 다음 생에 표범으로 태어난다. 암탉의 여주인은 다음생에 사슴으로 태어났고, 암탉은 원한으로 사슴의 새끼들을 잡아먹는다. 다시 환생한 암탉과 여주인은 귀신과 아이를 낳은 여인으로 만난다.

귀신이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자 여인은 아기를 안고, 부처님의 회상에 뛰어들어 살려주기를 간청한다. 부처님은 귀신과 여인을 불러서 500생을 넘게 원수로 살아온 둘의 전생을 이야기 해주면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음을 일깨워 둘의 은원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는다.

동양화에서는 닭을 그릴 때, 대부분 장닭을 그린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 새벽을 알리는 장닭의 우렁찬 '꼬끼오' 소리는 예전의 시골에서 시계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장닭을 그렸을까? 장닭의 꼬끼오는 한문으로 풀이하면, "고귀(高貴)요"라고 들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높은 지위, 부귀를 갖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을 장닭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어느 정치가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가. 새벽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밝은 달을 바라보며 지새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향기 끝에는

악취가 나는 곳엔 파리들이 모여든다.
향기가 나는 곳엔 벌과 나비가 모여든다.
나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차 한 잔 깊이 우려 마시며 생각에 잠긴다.
내 삶의 표정은….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⑬ **조선 제월경헌 선사의 '월하도인에게 보임(示月華道人)'**

진정한 인연을 바로 보는가

若人欲識這箇事 (약인욕식저개사)
動靜須參祖師關 (동정수참조사관)
不覺全身都放下 (불각전신도방하)
九邵雲散月當天 (구소운산월당천)

만약 그대가 이 한 도리를 알고자 할진댄
항상 조사의 관문을 참구해야 하나니.
몰란결에 온 몸이 다 내려지게 되면
하늘 높이 구름 흩어지고 달 떠있으리.

조선 제월경헌(霽月敬軒; 1544~1633) 스님은 15세에 출가해, 제방을 편력한 후 30세에 청허의 문하에서 조사선의 도리를 깨쳤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가 스님에게 좌영장,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 등의 책임을 내렸지만 "만 리의 긴 강물도 나쁜 이름을 씻어가지 못한다"고 사양하고 묘향산·금강산 등으로 자취를 숨겼다. 그러나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학인들에 의해 큰 회상이 이뤄졌다. 스님은 학인들을 제접함에 도서(都序)와 절요(節要)를 바탕으로 불법의 지견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선요(禪要)와 서장(書狀)으로 불법의 알음알이를 끊어 주었다. 또한 법문함에 있어 눈썹을 치켜뜨거나[揚眉] 눈을 깜박이거나[瞬目], 선상을 내려치거나[擊禪床] 불자를 들어 올리거나[擧拂子], 묵묵히 침묵하거나[良久] 방망이로 때리거나 크게 소리를 치는[榜喝]등의 여섯 가지 방법[六段法語]를 즐겨 사용했다.

화두참구와 그 체득된 경지를 읊은 위의 시에서 앞의 두 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행·주·좌·와·어·묵·동·정에 한결 같이 화두참구를 요구하는 선문의 수행법을 보였다. 제 3구는 '온 몸을 모두 내려놓으면' 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사상(四相)에 집착하는 전도된 생각이 내려지게 되는 참구의 공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결구는 구름 걷힌 하늘에 달이 드러나는 이치가 곧 '한 도리'임을 보였다. 이 별스러울 것 없는 시구는 무미지미(無味之味)한 선시의 한 전형이기도 하며 스님의 방하착(放下着)한 경지이기도 할 것이다.

내 앞에 그려진 자연과 뭇 소중한 인연들을 진정 나는 바로 보고 있는가? 나뭇잎에 햇살이 흔들리고 붉은 장미가 저녁놀을 물들인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주)현대에너텍 2011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대행 스님

자기 중심의 막대기를 믿지 않고 어딜 믿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도반으로서 이렇게 끝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찰나에 벗을 수가 있겠지만 영혼의 근본 뿌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길 가끔 합니다. 콩씨는 콩싹을 면치 못하고, 콩싹은 콩씨를 면치 못한다고요. 이 세상 이치가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거늘, 때로는 가슴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죽는 게 원통하고, 사는 게 복잡하고 외롭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이였을 때가 있었고 또 젊었을 때가 있었고 늙을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데 아이였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고, 젊었을 땐 젊어서 또 그렇게 살아왔고, 나이가 좀 들면 드는 대로 부모 생각도 나고,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생각도 날 거고,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만 될 건지, 또 '내가 아무 때 연분에는 참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거를 그렇게 했어!' 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모의 그 뜨거운 정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부모가 돼서 늙어 보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젊은 혈기로써 살아나갈 때는 그런 걸 일일이 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지혜가 생기고, 철도 나고,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효도하면서 은혜를 갚고 끝없는 세월을 빛이 되게끔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근심도 생기겠죠.

요새 그 뭐 삼풍백화점, 거기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죠. 욕심이 없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아픔을 좀 더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모두 나 아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진실하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잘 베풀어 줄 수가 있고, 잘 리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눈이 멀고 귀가 트이지 못해서 나중에는 홀딱 다 없애는 이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 도반으로서 걸림 없는 길을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한 찰나에 한 인간의 삶이 다해 갑니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자가 천차만별입니다.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종자라는 그 두 글자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차원이 큰 콩씨다, 아주 조그만 콩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큰 콩씨로 만들 수도 있고, 우주를 덮을 수 있는 종자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조그마한 종자에 우주 삼라만상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게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 당신 뿌리에 놓으라고 하니까, 모두 어떻게 놓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놓으려고 놓으려고 애써도 놓아지지 않습니다."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본래 콩씨와 콩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콩씨가 콩싹으로 화(化)하려면 수분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은 다 놔두고라도 그 씨는 정자, 난자를 기반해서 자기가 싹으로 화합니다. 싹으로 화하는데 그 싹이 어디 가서 내 콩씨를 찾겠습니까? 네? 과거로 돌아가서 뿌리로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래로 찾으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형상에게 내 뿌리, 씨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름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스님네들의 고깃덩어리한테 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하며 누구를 믿으며…. 그러나 그 콩씨만이 콩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몸뚱일 버려서 바로 싹으로 만들어서, 그 싹이 화하게 되면은 또 콩씨를 열리게 한답니다, 하나도 아닌 몇 개씩. 그리고 딴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그 종자는 되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익 중생이라고 그러죠. 살아나가면서 남과 나와 둘 아니게 이익을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몸뚱이 속에도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이익 중생들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먹고, 들어도 같이 듣고, 봐도 같이 보고, 사랑을 해도 같이 하고, 같이 존재를 하는데…, 세상에 생각하자면 눈물이 날 지경이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하니까요. 그러는 자기중심의 막대기를 믿지 않고 어딜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이가 허망하게 그냥 저런 구덩이에 산 채로 묻히게 되는 것도, 콩씨가 콩싹을 다스리고 나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도님들 얘기 들으니까, 시장을 봐 오는데 거기에 가기가 싫어서 딴 데로 갔다고 합디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그건 콩씨와 콩싹이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몸뚱이가 자기라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자기 뿌리만이 자기 몸을 이끌어가는 선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뚱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거기에 줬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한테 콱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로 가면 죽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저리로 가게 만들죠. 그건 왜?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를 끌고 가는 거죠. 즉, 바로 자기 몸뚱이자 시자며, 시자이자 바로 자깁니다. '나는 그런 데서 그렇게 잘못되는 길을 걷지 않겠다.' 고 한다고 안 걸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악업, 선업 중에 유전성, 인과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다섯 가지가 주둔했다가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을 되입력을 하니까, 앞서게 없어지면서 또렷하게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며) 심봉이, 바로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장이 자기 몸뚱이를 자꾸자꾸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잘못된다 싶으면 술을 먹기 싫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또 가다가 술을 먹어야만 되면 그 술을 안 먹어도 될 수 있게끔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기도 하구요. 여러 가지 건입니다. 이 자기 주인공에게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해서 자부처라고 했고, 자성불이라고 했고, 부처 아님이 없다고 한 도리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뚱이는 항상 영화배우들과 같아서 지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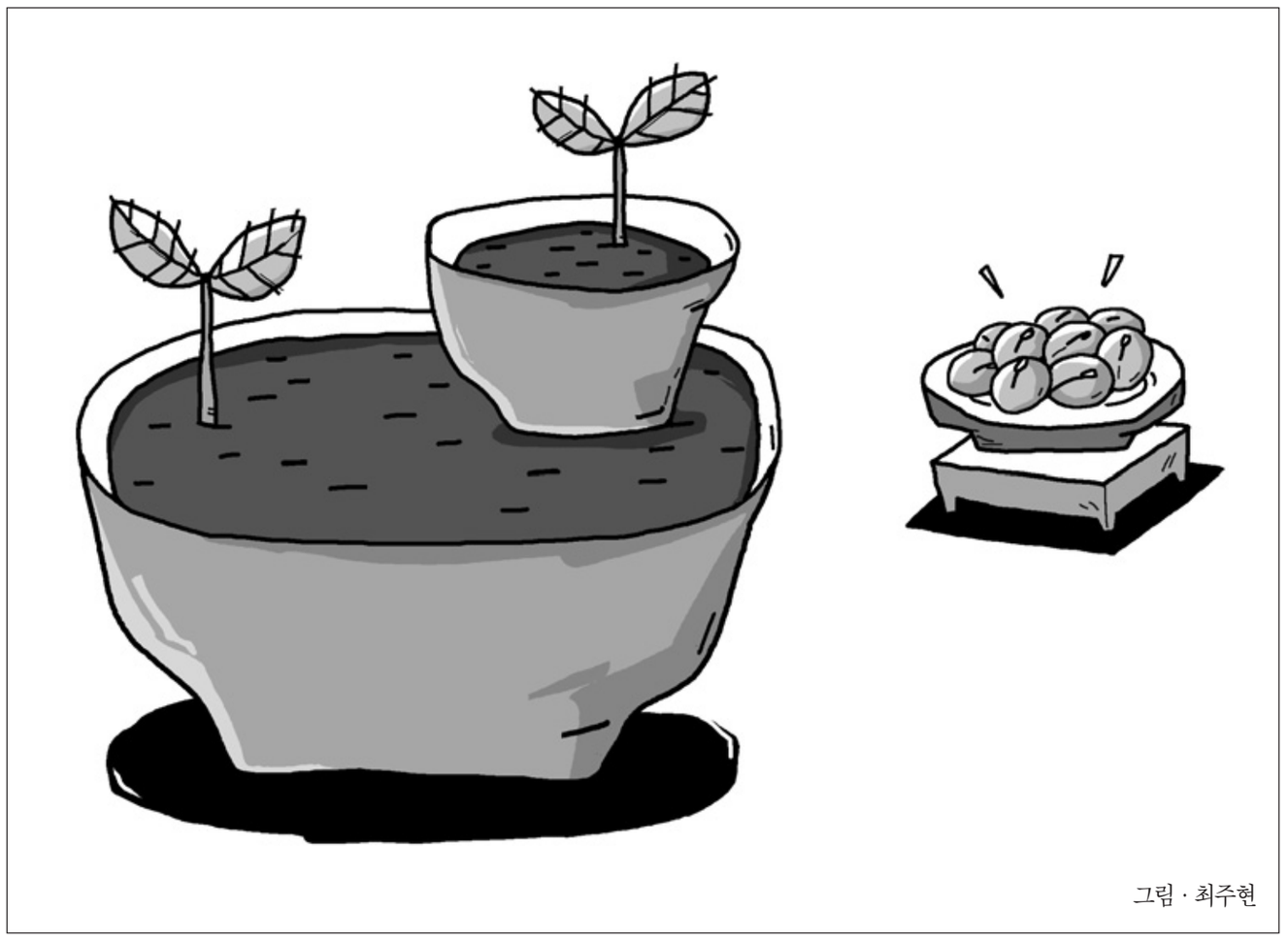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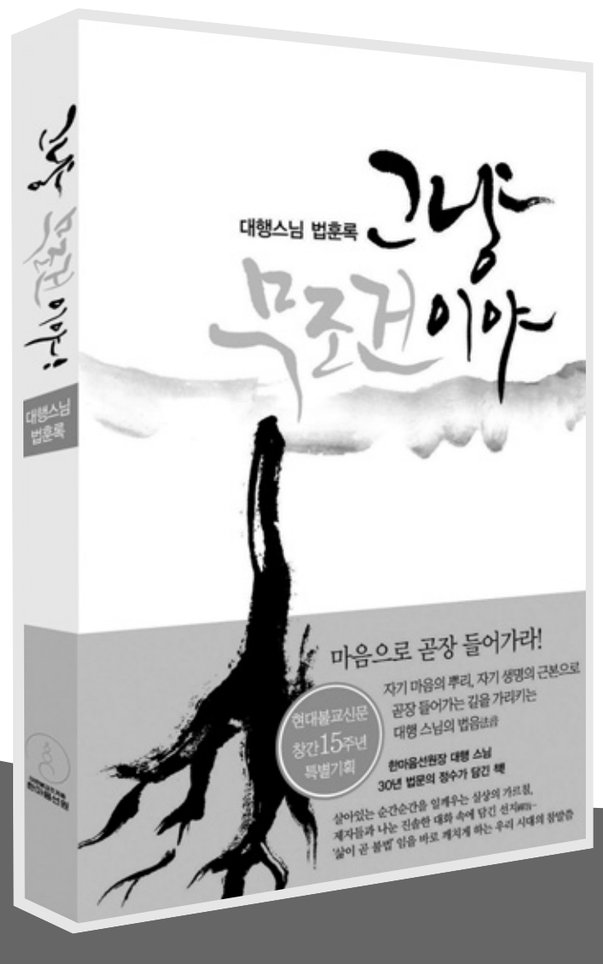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천차만별의 일들이 마음 하나로부터 벌어집니다

☞ 29면에서 계속

금 자기가 소임 맡은 거를 그대로 이행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기하는 거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배역을 맡는다 하더라도, 추접한 배역을 맡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역은 막이 내리면 끝이고 원래로 되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막이 내리면 다 끝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잠시 잠깐 배역을 맡았을 뿐이니까 머슴으로 나왔든지 어쨌든지 자기 맡은 바 수행을 아주 잘 마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르든지 알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가난하기 그지없든지 그 배역을 맡았으니까 지극하게, 나쁜 마음 갖지 말고, 모두를 내 스승으로 알고, 자만과 거만을 떨지 말고, 있다고 거만 부리지 말고,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항상 지극하게 진실하게 해 나간다면은 우주 법계에서 다 알아요.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것도 우리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시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나 혼자만 있으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보지 않는 줄 알고, 듣지 않는 줄 알고, 남의 흉도 하고 또 도둑질 아닌 도둑질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만좌중에 훔쳐가는 것과 같고, 만좌중에 흉보는 것과 같고, 만좌중에 이간질하는 것과 같아서, 만좌중에 험담하고, 별별 악의적인 일들을 행과 말과 뜻을 다 가지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저 허공도 없고 세상도 없는 가운데 작대기로 스승을 삼고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 작대기인 스승이 너무나 감사해서 부처님 모셔 놓은 데 가서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높기는 뭐가 높아? 당신이 오히려 불쌍해서 죽겠어. 당신은 작든 크든, 벌레든 사람이든, 돌이든 흙이든, 모두의 심부름꾼과 더불어 같이 극매니, 항상 밑을 씻어 주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뭐가 높아? 이 도리를 알게 한 것도 당신인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로 다 하리까?'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조금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마음의 고개를 숙이고, 어떠한 걸 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디를 지나가다 나무 하나, 돌 하나를 봐도, '허허, 저런 생명들, 저런 모습들이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배웠을까. 어떻게 저런 게 있는 줄 알았을까. 저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면 절로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모시고 도반으로서 이렇게 앉았지만 어떤 땐 '허허, 나는 그렇지 않지만 저분들은 그래도 내 고깃덩어리를 앉혀 놓고….' 그 고깃덩어리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그 고깃덩어리 속의 콩씨가, 입을 빌려서 말을 자꾸 여러분한테 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함이 없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함이 없이 부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놓아지지 않는다' 고 하시는데 왜 놓아지질 않느냐? 항상 여러분한테 말했듯이,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없고 더불어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움죽거리고, 자도 같이 자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고 앉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러는 게 누구 덕으로 그렇게 됩니까? 모두 여러분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뭉쳤기 때문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뭉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열 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하나나 두 개라도 없으면은 열 손가락으로 다 들어야 할 무거운 거를 못 들게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그 한 몸뚱이 속에 세계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위 나라가 있고 장 나라가 있고, 심장 나라가 있고, 척추 나라가 있고, 척수 나라가 있고, 식도 나라가 있고, 나라가 많이 있어서 그 나라를 한데 포함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중에 한 나라만 없어져도 이 전체 세계가 다 죽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다 죽어요. 그러니 어찌 내 껍데기 나가 나라고 하면서 뽐내겠습니까? 뽐낼 거 하나도 없죠. 내가 홀로 섰다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홀로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구성된 동체(同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체 속에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주는 선장이 있어서 몸을 움죽거리게 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다 쓰듯이 용도에 따라서 그 힘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팔만대장경을 수차 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죠. 고걸 줄여서 줄여서 해 놓은 게 반야심경입니다. 그 반야심경을 더 줄인다면 불심(佛心)입니다, 불심! 아주 간단하게. 마음이에요, 마음!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일들이 마음 하나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시원하게 한판 치고 울든, 한판 치고 웃든, 그냥 좀 그래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깨친다, 성불한다, 뭐 견성한다 이런 건 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 병원에 간 사람, 또 살아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바들바들하고, 또 살리려고 바들바들하고 그러는 거를 볼 때에 어떠한…. 나는 그런 걸 많이 봐 왔습니다. 개미 굴이나 또는 개구리들, 또는 뱀 소굴, 뭐 여러 벌레들 소굴이 장마가 들어서 산이 무너지거나 이런다면 그냥 우리가 대형사고가 났다고 하듯이, 그네들도 그럴 겁니다. 온통 그냥 난리가 나죠. 난리를 벌이는데 그것과 똑같애요, 아주. 어쩌면 그렇게…. 그러곤 다리 부러진 것도 그냥 끌고 가고, 목 떨어진 것도 끌고 가고, 이 개미들이 그럽디다. 개구리도 창자가 쭉 삐져 나왔는데도 그냥 업고 가고 말입니다. 똑같애요, 크고 작을 뿐이지.

그러니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를지언정, 차원은 천차만별로 다를지언정 생명과 더불어 사는 도리는 어찌 다르겠느냐는 얘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말고 중천세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걸러서 잘 중심을 뒤서 중용을 하라. 중심을 두면은 중용을 하게 되고 중용을 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세세생생에 하천세계로 떨어지질 않고, 하천세계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어버이로서 등장을 할 수 있느니라. 금(金)이 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게,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말입니다. 또 물 흐르는 걸 한없이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수없이 나오는 그 마음이 저 물 흘러가는 것과 같은데 어찌 칼로 똑 끊을 수 있으리까. 끊으라고 하는 것은 말일 뿐이지 끊어지진 않습니다. 수없이 꼬리에 꼬릴 물고, 꼬리에 꼬릴 물고 나오는 그 마음을, 화해서 변동이 되면서 찰나찰나 나오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말로 하고 어떻게 끊으오리까. 그때서부터 '아, 끊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바로 더불어 같이 녹이는 거로구나.'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죠.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통해서 다 나오는 말을, 잘하는 것은 주인공에 감사하다고 놓고, 또 잘못되는 건 '네 속에서 나온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놔라, 놔라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죠. 첫째, 위로 역대의 부모가 나 하나로 인해서 건져지죠. 또 자기가 낳아 놓은 2세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이 건져지죠. 그 다음에는 조상, 나, 자식, 삼대가 다 세세생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바탕이 생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좋은 도리를 우리가 모르고 중세계에서 고통받고 있죠.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가 있다면, 우리 중세계에서는 마음에 따라서 체로 걸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세계로 떨어뜨리고, 상세계로 올리고, 중세계에 그냥 남겨지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물건도 그렇듯이, 종자들도 그렇듯이.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이럽니다. 옛날 부처님의 말씀으로, 그때의 방편과 용도로 말을 한다면, 나는 현대에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현대에 나온 사람은 현대말, 현재말을 해야지 어떻게 삼천년 전 용도의 방편으로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을 해서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법우들의 이 법회날, 누가 높다 얕다 이런 걸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토론하자는 생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올려놓고선 (대중 웃음) 자기네들은 말 한 마디 없고 그럽니까? 이건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살아나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좀더 안다고 자만과 위세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도 그럴 게 없어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더 숙여져요. 푸르렀을 때, 아주 푸르렀을 때,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았을 때 아주 빳빳하게 일어나죠. 그러니 나만 말을 시키지 말고 살아나가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그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로 토론한다면 참 좋을 겁니다, 아마.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아니 되고 또 안다고 해도 아니 되고, 말을 하면은 외려 잘못된다."이러지만, 여러분이 말을 하면 말을 한 사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이 말 했다가 저 말로 돌아가는데 무슨 말을 한 사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까, 내가 말했게? 더불어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같이 모여서 말을 한 것이지 자기 혼자 말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공(空)했다 이러는 겁니다. 공해서 한 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좀더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니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니라. 즉 콩씨와 콩싹이 둘이 아니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니라. 그래서 정말 콩싹이 콩씨를 발견한다면, 콩싹과 콩씨는 둘이 아닌 까닭에 그 몸이 그렇게 크니라.' 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몸을 보고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몸을 보고는 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말들을 했죠. 그러니 이제 나만 말 시키지 말고요, 말씀하세요.

(다음 호에 계속)

> 너희는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말고
> 중천세계에서 잘 중심을 뒤서 중용을 하라.
> 중심을 두면은 중용을 하게 되고
> 중용을 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 수 있다.
> 그렇게 되면 세세생생에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 하천세계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 그런 어버이로서 등장을 할 수 있느니라.

※위 법문은 1995년 7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수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한류, 이제는 佛流가 될 차례



이강렬
경기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최근 우리의 영화를 비롯한 드라마, 음악 그리고 연극 등 문화의 제 분야는 세계를 향해 능동적으로 진출하며 상당부문 인정받고 있다. 2004년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을 차지하고, 김기덕과 이창동으로 이어지는 각종 영화제의 수상은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입증한다.

한류(韓流)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대중문화의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주요한 관심사가 되며 콘텐츠 분야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작금 일본과 중국에서 일고 있는 한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류는 문화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다. 따라서 단순히 문화적인 논의로 보면 여러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비즈니스로 접근해도 문화가 갖는 순수성을 놓치기 쉽다. 한마디로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안타깝다. 비즈니스는 한마디로 시스템이다. 한류서 지속화를 위한 치밀한 마케팅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적이라면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질 높은 콘텐츠에 의해서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문화는 항상 의외성을 유발한다. 실제로 드라마, 영화, 음악분야는 아시아권에서 잘 먹히지만,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이 훨씬 경쟁력 있다. 문화의 원동력에는 다양한 콘텐츠에 있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한류의 밑바탕에도 다양한 순수예술의 성과가 깔려있어 가능했다.

지난해 미국 최고의 음악시상식 그래미 어워드에 우리의 아이돌 스타들이 무대에 섰다. 1만5000석의 좌석은 매진을 기록했고 관객들은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프랑스의 팬들이 파리 루브르박물관 입구 유리 피라미드 앞에서 벌인 시위로 유럽 내 한류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했다. 이들은 하루만 잡힌 파리 공연을 늘려 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유명 아이돌 가수들의 라이브가 파리에서 개최되면서 열정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어느새 우리 대중음악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인들이 K팝의 어떤 면에 매료된 걸까. 한마디로 일단 색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럽엔 춤추는 아이돌이 없다. 반면 우리 가수들의 잘생긴 외모와 자극적인 노래 그리고 선정적인 춤 등 모든 부분이 재미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젊은 마니아들의 일시적인 흥미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영국, 독일, 프랑스로 점차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각종 영화제와 문화교류 사업 등 한국의 문화를 알릴 기회를 늘렸던 것에 기인했을 것이다.

어떻든 드라마 콘텐츠 중심의 한류가 지나고,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중심이 된 가히 새로운 열풍이다. 과거 한류의 기반이던 일본과 동남아를 넘어 이제 문화의 중심인 유럽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사회, 경제적 이슈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후 해외에 알려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때문이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의 역할은 별다른 프로모션 없이 홍보를 가능하게 했다.

한류 열풍은 관광이나 뮤지컬 등 관련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아이돌 스타가 출연한 뮤지컬은 해외 팬들이 몰려 매진 사례를 빚을 뿐만 아니라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준다. 이제 뮤지컬 공연에서 유명 가수를 출연시키는 기획은 빈번하게 이뤄진다. 좋아하는 출연자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 관광에 나서는 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잇속만 앞세우면 금방 실망한다. 수준 높고 세련된 프로모션으로 팬들과 격의 없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한류가 국가의 이미지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요청된다. 이즈음 불교도 공연예술을 통한 멋진 작품이 불류(佛流)의 기세로 전 세계에 이어졌으면 하는 소망도 생긴다.

사부대중 칼럼

진솔한 만남이 그립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 동국대 외래교수

삶을 사노라면 몸과 마음에 때가 끼기 마련이다. 아침저녁으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함으로써 몸의 때를 씻어내듯이, 마음의 때도 일상적으로 씻어내야 한다.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방법은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명상, 사색, 놀이, 운동, 교우 등 다양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때, 즉 업장(業障)을 정화한다. 불교의 수행 전통은 스승의 지도하에 혼자서 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스승의 지도를 받으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 수행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여럿이 어울려 마음을 교류하는 방식도 그 효과가 상당하다. 만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각자의 감정, 생각, 욕구 등 마음의 현상들을 진솔하게 내놓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정화가 일어난다. 각자의 삶 속에서 겪은 일들을 공부 소재로 삼기 때문에, 삶 속에서의 문제나 과제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불교와 상담의 접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을 섭렵하고 다니던 7~8년 전 무렵에 만난 공부 방법과 체험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10여 명이 둥글게 앉아 '지금여기'에서 느껴지는 느낌, 기분, 감정, 정서 위주로 각자의 마음을 교류하면서 마음을 치유했다.

리더(촉진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 이제 시작합시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음공부는 시작됐다.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입열기를 주저하다보니 대개 처음에는 정적이 감돌기 마련이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침묵 속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중 속에서의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팽팽한 긴장감을 깨며 한 마디 던진다.

"답답합니다."

같은 느낌을 인내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 입을 연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반갑고, 말문을 열어 긴장감을 깨트려주어 고맙다는 마음을 그렇게 간결하게 표현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도 만나면서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 일순 긴장감이 줄어들고 상대방에 대해 연민과 자애를 느끼게 된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이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다.

"따뜻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참가자들도 말한 사람들의 마음 변화에 공명하면서 긴장감, 답답함, 시원함, 푸근함, 따뜻함 등 그때그때 흐르는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진솔하게 만나는데 긴 말과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마음공부는 때론 깊은 속내의 응어리를 건드리기도 했다.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 회한, 화, 불안, 두려움 등이 표현될 경우에는 관련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듣는 사람이 묻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보다는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아픔을 드러내고 서로 마음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하곤 했다. 더불어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10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에, 리더(촉진자) 역할 하는 사람이 불교 교리, 마음 관련 이론, 의사소통 기법 등에 대해 10여 분 간단하게 정리해 줄 때도 있었고, 10여 분 자애명상이나 호흡관찰명상을 하고 마칠 때도 있었다. 20~30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같은 형태의 마음공부가 진행됐다.

나의 경우 사람을 가슴으로 만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고, 말의 힘을 체험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좋은 기회였다. 마음공부의 길에서 도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삶의 여정에서 겪는 희노애락을 진솔하게 내놓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며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지혜와 자비심을 함양할 수 있는 도반들과의 마음공부의 장(場)이 그립다.

아난존자께서 도반의 중요성에 대해 세존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이다."

社說

불사심의위원회 반드시 만들어야

'천박한 전통문화인식'을 가졌던 정부가 최근 불교계를 옥죄던 규제들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이 그 예이다.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화장실, 안내소마저 불법건축물 취급을 받던 강남 봉은사도 새 도시계획시설 조성 계획안을 통해 역사공원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불교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난개발과 불사 난립 등으로 이어질지 모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계종은 7일 총무원장스님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고 예산 수령 및 집행에 대해서는 종단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불사심의위원회'가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불사심의위원회는 정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 주목받을 때마다 불교계가 자구책으로 제시해 온 단골손님이다. 오래도 됐다. 하지만 불사심의위원회는 위기를 모면하는 방편과 같았다. 환(幻)처럼 실체 없이 말뿐인 단체였다.

이제는 진정, 불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난다면 조계종의 미래, 불교의 앞날은 정권이 흘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위정자에 끄달리는 꼭두각시를 면치 못한다.

5대결사의 시발은 템플스테이 지원금의 축소였다. 그러나 총무원장스님의 담화문에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대책이나 자립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었다. 불사심의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꾸려져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호국도 나눔이다

조계종의 5대결사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다. 전국 교구본사마다 결의대회가 열렸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5대(수행 · 문화 · 생명 · 나눔 · 평화) 결사의 외침을 들었다. 이제는 '5대결사' 소리만 들려도 식상한 구호의 나열이라는 선입견에 고개가 돌려지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결사의 실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이명박 대통령은 6월 9일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종교계의 사회적기업 진출을 독려했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인 '연우와함께'가 역사 · 자연환경 · 보건 · 음식 · 특화작물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7일, 진관사에서 봉행된 '호국영령과은평구민을위한기원대법회'는 자신의 목숨마저 나라를 위해 내놓는 호국은 나눔이라는 메시지를 일깨우는 자리였다.

우리는 지금껏 나눔을 보시행이라고만 알아왔다. 재물을 나누는 재보시 외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 타인의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 안정되게 해주는 무외시도 보시이다. 나눔은 내 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 내놓는 것만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호국을 실천하는 것도 나눔이다. 청와대가 말하고, 진관사가 보여준 나눔이 이웃과의 상생을 실천하는 나눔결사의 한 방편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한국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춘하추동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흔히 3박자가 맞아야 대운길격(大運吉格)이라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의 3박자는 무엇인가?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일년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이 4계절은 각 3개월씩 나뉘어져 운명의 흐름이 각각 달라진다. 당신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며, 그 계절의 운세의 흐름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할까?

사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 / 21C 신개념 행복 부자되는 사주팔자
■甲長慧印 이준용 지음 / 신국판 / 340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 · (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 · 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상)권 鳳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鳳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 · 심 · 사 · 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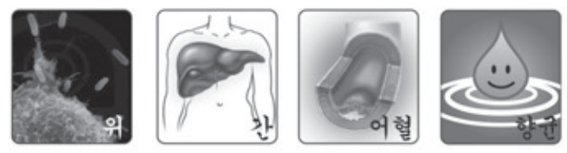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紅崩(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지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자격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낀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때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들어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주는 맘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끼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셨은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에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즉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40-70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